

성황림 마을제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1. 12.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원주시역사박물관장 貴下

본 보고서를 「성황림 마을제의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진

.....

총괄 책임 : 김경남(세명대학교 전통문화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창식(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최명환(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강사)

윤영기(비교민속학회 총무이사)

연구 지원 : 박효정(세명대학교 전통문화행정학과 대학원생)

— 목 차 —

제 I 장 개관	13
1. 민간신앙의 정의와 세계관	15
2. 마을제의의 의미	19
3. 마을제의의 유형과 분포	23
4. 마을제의의 금기	28
5.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위치	29
6.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상징	35
7.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사회문화적 기능	36
8.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보호와 계승	40
제 II 장 신림면 마을제의의 유형과 특징	43
1. 신림면 마을제의 개관	45
2. 신림면 마을제의 조사 현황	47
3. 신림면 마을제의 형성 배경	63
4. 신림면 마을제의 유형과 성격	67
5. 신림면 마을제의 의미	80
제 III 장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의 실제	85
1.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개관	87
2.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준비	88
3.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절차	98
4.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제물	110
5.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의미	122
제 IV 장 신림면 성황숲 가치와 활용	125
1. 신림면 성황숲의 가치	127
2. 신림면 신목(神木)의 유형	129
3. 신림면 성황숲의 활용	135
3. 신림면 성황숲 활용을 위한 과제	140
참고문헌	143
부록1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마을제의 조사 기록	145

부록2	윗성남 당고사 관련 구술 기록	175
부록3	2012년 추계 윗성남 당고사 사진	179
부록4	2021년 추계 절골 산신제 사진	183

표 목 차

<표1> 『원주시 역사와 문화유적』 수록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51
<표2> 『한국의 마을제당』 수록 신림면 구학리 황학동 석동 마을제의 ...	52
<표3> 『문화유적분포지도』 수록 신림면 일대 마을 제당	54
<표4>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수록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59
<표5>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제일(祭日)	69
<표6>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제장 형태	72
<표7>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신격	74
<표8>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제수용품 구입 및 점검’	89
<표9>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축문 내용	93
<표10> 2021년 추계 윗성남 마을제의 진설도	111

— 사 진 목 차 —

〈사진1〉 원주시 치악제에서의 굿	24
〈사진2〉 신림면 성남리 절골 산신제 금줄 제작	28
〈사진3〉 2019년 원주시 행정지도	30
〈사진4〉 신림면 일대 표기 여지도	32
〈사진5〉 신림면 용소막성당	34
〈사진6〉 윗성남 당고사 이후의 음복	38
〈사진7〉 신림면 성남2리 윗성남	45
〈사진8〉 용암리 탑골 서낭당	49
〈사진9〉 구학리 석동 당숲	50
〈사진10〉 구학리 황학동 당숲	52
〈사진11〉 황둔리 물안동 서낭제	59
〈사진12〉 치악산 산신제	63
〈사진13〉 치악제 굿판에 모신 치악산 백운산 산신	65
〈사진14〉 신림면 성남2리 아랫당숲	66
〈사진15〉 금창리 예찬이 당숲	68
〈사진16〉 구학리 선학동 당숲	71
〈사진17〉 서낭당 개축 이전의 윗성남 당숲	72
〈사진18〉 구학리 선학동 당숲과 계곡	73
〈사진19〉 용암리 탑골 수부 제단	73
〈사진20〉 윗성남 춘계 당고사 제물 구입	77
〈사진21〉 윗성남 추계 당고사 제물 구입	77
〈사진22〉 황둔리 물안동 서낭제에서의 부정풀이	79
〈사진23〉 금창리 가리파 서낭제에서의 퇴송	80
〈사진24〉 금창리 가리파 서낭제	81
〈사진25〉 제물 준비	91
〈사진26〉 제찬 조리	91
〈사진27〉 동구리	91
〈사진28〉 축	92
〈사진29〉 성황제 행사 진행 시나리오	95
〈사진30〉 금줄	99
〈사진31〉 황토	99

〈사진32〉 진설도	100
〈사진33〉 부정폴이	100
〈사진34〉 헌작	103
〈사진35〉 독축	104
〈사진36〉 삼시정저	105
〈사진37〉 희망자 헌작	107
〈사진38〉 수부제	108
〈사진39〉 수부제 소지	108
〈사진40〉 소지	109
〈사진41〉 소지 축원문	109
〈사진42〉 음복 반찬	110
〈사진43〉 봉송	110
〈사진44〉 봉송떡	110
〈사진45〉 제사상	111
〈사진46〉 제사상	111
〈사진47〉 떡	113
〈사진48〉 메	114
〈사진49〉 메	114
〈사진50〉 탕	114
〈사진51〉 산적	115
〈사진52〉 산적	115
〈사진53〉 두부	115
〈사진54〉 부침개	116
〈사진55〉 부침개	116
〈사진56〉 삼색나물	117
〈사진57〉 과일 고이기	118
〈사진58〉 대추	118
〈사진59〉 밤	118
〈사진60〉 밤	118
〈사진61〉 꽃감	119
〈사진62〉 꽃감	119
〈사진63〉 배	119
〈사진64〉 과일	119
〈사진65〉 사과	120

〈사진66〉 수박	120
〈사진67〉 포도	120
〈사진68〉 약과	121
〈사진69〉 산자	121
〈사진70〉 수부제 제물	122
〈사진71〉 신림면 윗성남 성황숲	127
〈사진72〉 신림면 윗성남 서낭당과 신목	129

제 1 장

개 관

-
1. 민간신앙의 정의와 세계관
 2. 마을제의의 의미
 3. 마을제의의 유형과 분포
 4. 마을제의의 금기
 5.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위치
 6.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상징
 7.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사회문화적 기능
 8.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보호와 계승
-

1

민간신앙의 정의와 세계관

- ‘민간신앙’이란 용어는 영어권의 folk-religion이나 folk-belief에 해당하는 역어(譯語)이다. 그러나, folk-belief는 ‘속신(俗信)’이란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folk-religion이라는 용어를 민간신앙의 대용어로 쓰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 신앙은 신과 인간 간의 양자 주종관계가 뒤따르는 종교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신 사이에 접촉과 이해관계가 따르기 마련인데 많은 신을 대상으로 하느냐 유일신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다신교(多神敎) 국가와 일신교(一神敎) 국가로 구별된다.
- 원래 민간신앙은 고급종교를 낳게 한 원형종교(原型宗教・proto-religion)이다. 이 같은 원형종교의 현상은 인간 본연의 자연숭배사상이나 동물의 숭배사상 등에서 그 원초적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의 원형종교적 현상은 대략 애니미즘, 토테미즘, 정령숭배, 자연숭배 등에서 찾고 있으며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애니미즘은 좁은 의미로 영혼 관념에 관한 이론이고, 넓은 의미로는 영적 존재 일체에 관한 이론이다. 애니미즘을 다시 우리들에게 무생물로 보이는 자연물을 살아 있다고 여기는 애니머티즘(Animatismus)과 동물숭배(Animalismus)와 정령숭배(Manismus)로 분류하기도 한다. 과거에 특정한 철학 체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애니미즘이란 이름이 타일러에 의해 정착되었다.
- 이 이름들이 확립되는 동기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역사상의 또는 현존하는 원시민족들의 아주 특이한 자연관과 세계관이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이 영들과 악령들이 자연현상들의 원인이라고 보면서 동물과 식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생물들도 이들을 통해 살아 있다고 여긴다.
- 오늘날 우리가 영적 존재들을 아주 제한하여 놓고 있고, 자연현상들을 비인격적인 물리력의 가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들의 원시적 ‘자연철학’을 구성하는 다음 부분은 우리에게 덜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도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대인들은 개개 사람들에게도 유사하게 “혼이 주어져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라는 인격체들은 혼을 지니고 있는데, 이 혼은 정신활동의 담당체이며, 어느 정도까지 ‘육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원래 혼은 개인들과 아주 유사하게 생각되었었는데, 오랜 발전을 통하여 물질적 성격이 떨어져 나가면서 고도의 ‘정신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원시인들은 어떻게 애니미즘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독특한 이원론적 기본입장에 이르게 되었는가? 수면 상태와 이와 유사한 죽음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친밀한 이 상태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가 이론형성의 출발점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원시인들에게 생명의 지속 ‘불사(不死)’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그리고 마지못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들에게조차 내용이 없으며 실감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관념들은 “신화를 형상화하는 의식의 필수적인 심리적 산물이며, 우리가 인간의 자연 상태에 관찰을 통하여 이르고자 한다면, 원시적 애니미즘이야말로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한 정신적 표현이라고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흄(Hume)은 그의 저서 《Natural History of Religion》에서 무생명체의 생명체화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인류에게는 모든 존재들을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고 파악하고, 자기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으며 비밀스럽게 의식하고 있는 성질들을 모든 대상들에게 원용하는 경향이 있다.”
- 애니미즘은 하나의 사고체계로서 개별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하나의 유일한 관련체로서,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인류는 역사상에 세 개의 사고체계, 곧 세 개의 큰 세계관을 산출하였다. 애니미즘적(신화적) 세계관, 종교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애니미즘 세계관이 아마도 가장 모순이 없고 세계의 본질을 모두 설명하는 세계관일 것이다.
- 인류의 이 첫 번째 세계관은 하나의 심리학적 이론이다. 이 세계관이 미신의 형상 안에서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아니면 우리의 언어와 신앙과 철학 속에 여전히 살아있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남아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프레이저는 그의 논문에서, ‘토텐이란 야만인으로 하여금 미신적 존경심을 갖게 하는 어떤 물체인데, 야만인이 그러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까닭은 자신의 인격과 그 물체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다. 한 사람과 그의 토템 사이의 결합은 상호적이어서, 토템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토템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다.

- 예를 들면, 동물일 경우에는 그것을 죽이지 않고, 식물일 경우에는 그것을 따지 않는다. 토템과 주물(呪物)의 차이는 토템이 주물과 달리 결코 개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종(種)라는 점이다. 토템은 보통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이다. 드물게는 무생물의 집합일 수도 있으며, 더 드물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의 집합인 경우도 있다.

- 토템은 적어도 세 종류로 구분된다.

- 부족토템은 부족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 세대에서 다음 대로 세습된다.
- 성별토템은 한 부족 내의 남자 전체 또는 여자 전체에 해당되며, 다른 성의 소유자는 제외된다.
- 개인토템은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그 후손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 성별토템과 개인토템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부족토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아마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토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이 덜하다.

- 부족토템은 남녀 집단의 숭배 대상이다. 집단은 토템의 본질에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각 부족원은 서로를 같은 조상에서 나온 혈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호 간의 공동의무와 토템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굳게 결속되어 있다.

- 토템이즘은 하나의 종교체계인 동시에 사회체계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토템은 인간과 토템 사이의 상호존경 및 상호보호 관계에 성립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토템은 부족원들 상호 간 및 다른 부족과의 책무 관계가 성립한다. 토템이즘의 후기 역사에서 양 측면은 분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체계가 종교체계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토템이즘에 근거한 사회체계가 사라진 나라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종교 안에 토템이즘의 흔적이 남아 있다.

- 토템이즘의 양 측면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근원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토템이즘의 양 측면이 처음에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였음에 틀림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시대를 소급해 가면 갈수록, 부족 소속원들이 자신들을 토템과

같은 유로 파악하고 있으며, 토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동족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구별되지 않음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 종교체제로서의 토템이즘을 별도로 묘사하기에 앞서 프레이저는 한 부족의 구성원들은 토템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삼고, 자기들이 이 토템으로부터 나온 자손이라고 대개 믿고 있다. 이 믿음의 결과로서 그들은 토템동물을 사냥하거나 죽이거나 먹지 않으며, 토템이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토템을 사용하는 것을 단념한다.
- 토템을 죽이지 않고 또 먹지 않는다는 금지들이 토템과 결부된 유일한 타부가 아니다. 때로는 토템을 만지는 것도, 나아가서 보는 것까지 금지된다. 몇몇 경우에는 토템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금지된다. 토템을 지키기 위한 타부계율들을 범하면 중병이나 죽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처벌된다.
- 때로 토템동물의 견본들을 기르고, 우리 안에 가두어 놓기도 한다. 토템동물의 시체를 발견하면, 부족의 일원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애도하고 매장한다. 토템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속죄의식과 사죄행사에 따라 진행된다.
- 토템부족은 그들의 토템이 자기들을 방위하고 보호하리라고 기대한다. 토템이 맹수나 독사 같은 위험한 동물일 경우에, 그 토템이 자기 동족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리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예상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해를 당한 자를 부족으로부터 추방한다. 서약(Eid)은 원래 신의 심판(Ordal)이었다고 프레이저는 말한다. 출생을 밝히거나 순수 여부를 가릴 때 그 결정권을 토템에게 위임한다. 토템은 병을 낫게 하고, 부족에게 닥칠 위험에 대하여 미리 경고한다. 집 근처에 토템동물이 나타난 것은 그 집에 죽음이 닥치리라는 예고로서 종종 여겨진다. 토템이 자기 친척을 데리러 왔다고 믿었다.
- 부족원들은 갖가지 중요한 상황 안에서 토템의 가족을 몸에 두르거나 토템의 형상을 몸에 문신하는 등, 외모를 토템과 비슷하게 만듦으로써 자기들이 토템과 친척관계임을 강조하려고 한다. 출생, 성인식, 장례 등의 의식을 치를 때면, 토템과의 동일화가 행위와 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부족원들이 토템처럼 분장을 하고 몸짓하는 춤은 다양한 주술적 종교적 의도에 종사한다. 끝으로, 토템동물을 엄숙하게 죽이는 의식이 거행된다.
- 토템이즘의 사회적 측면은 무엇보다도 엄하게 지켜지는 계명과 굉장한 제약 안에서 드러난다. 한 토템씨족의 일원들은 모두 형제자매이며, 서로 돕고 보호해

야 할 책무가 있다. 어떤 씨족의 일원이 다른 씨족의 일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에, 살인자의 씨족 모두가 이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살자 측의 민족도 연대적으로 홀린 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토텐에 의한 결속 관계는 이런 의미에서 가족적 결속 관계보다 견고하다.

- 자연숭배(naturism)는 한마디로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대한 숭배라 할 수 있다. Max Müller가 종교기원론으로서 자연숭배설을 제창한 이래 종교의 원초형태의 대부분을 자연숭배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여져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연이란 말 자체가 지니는 의미 내용은 매우 애매하고 다의하다. 이 때문에 자연숭배를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감각적 존재에 대한 숭배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천체현상이나 지상의 산천초목(山川草木)의 숭배에 한정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 이처럼 자연숭배의 범위가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범위는 그 지역사회의 생활 조건의 맥락에 의하여 스스로가 결정된다. 자연숭배란 원래 숭배 대상의 배후에 신·영혼(靈魂)·정령(精靈)·신비적 주력(呪力)의 관념을 인정 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 사물 그것의 소박한 숭배를 말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동·식물 등은 동종(同種)의 것이 숭배되는 경우가 많다. 태양, 달에 대한 숭배는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목축민족 사이에서는 대체로 하늘이나 별에 대한 숭배가 보인다. 반면, 농경민족에게는 대지의 풍요성과 여성의 다산성과의 결부된 지모신 숭배가 보인다. 또한 숭고한 형상의 산, 울창한 숲을 비롯하여 하천·기암·소 등 지역주민의 관심사 중에서 숭배대상이 결정되기도 한다.
- 신라의 오묘제(五廟祭)·사진제(四鎭祭)·사해제(四諸祭)·사독제(四瀆祭)를 비롯하여 삼국이나 고려, 조선 시대의 각종 명산대천제 그리고 지금까지 당제의 주종(主宗)을 이루고 있는 원주시 신림면의 주산인 치악산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마을제의인 산신제와 서낭제 등은 자연숭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

마을제의의 의미

- 마을제의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마을 주민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기 위

해 드리는 마을 공동 제사이다. 동제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 행하게 된다. 동제는 특정 신분이나 집안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의 집단 제사이다. 마을에 여러 성씨가 섞여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벌이 되지 않으며, 마을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의식으로 동제에 관계하고 참여하게 된다.

- 동제를 부르는 마을은 마을굿 · 부락제 · 도당제 · 서낭제 · 산신제 · 거리제 · 동신제 · 동제 · 당제 · 당산제 · 본향당제 · 촌제 등으로 다양하다. 각각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명칭으로 여기서는 이것을 통일하여 마을 공동 제사라는 뜻으로 동제라는 명칭을 쓰려고 한다.
- 이제 동제를 이루는 여러 요소 중 동신(洞神)의 명칭 · 신격 · 당의 명칭 · 당의 형태와 배치 · 제사일시 · 절차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 동신의 명칭을 계통상으로 분류하면 천신(天神) · 산신(山神) · 수신(樹神) · 지신(地神) · 수신(水神) · 일신(日神) · 성신(星神) · 사귀(邪鬼) · 인신(人神) 등 9개 계통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신 · 서낭신 · 골매이할배 · 할매 혹은 당산할아버지 · 당신할머니 · 장군신(將軍神) · 용왕신(龍王神) 등의 명칭이다.
- 명칭을 통해 본 신의 성격은, 우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민족의 산신과 용신에 대한 오래된 신앙 관념도 보여준다. 그리고 할아버지 · 할머니를 통한 남녀 신의 배우(配偶) 형식은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신앙 형태를 반영하며, 농경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여기서 남녀 신 가운데 특히 여신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농경사회에서의 지모신(地母神) 관념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당(堂)은 동신이 기거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공간이다. 당을 부르는 이름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강원도에서는 서낭당, 경기·충청지방에서는 산신당 또는 산제당, 경상도 지방에서는 골매이당, 호남지방에서는 당산, 제주도에서는 본향당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명칭만 다를 뿐 본래 같은 것이다.
- 당의 형태는 신수(神樹)형태, 신수와 제단(祭壇)이 복합된 형태, 신수와 당집이 복합된 형태가 보편적인 것이다. 신수는 동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어지는 오래되고 큰 나무로 당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제단이나 당집은 독립된 당이기도 하지만 대개 신수와 복합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당집은 보당 인공적인 형태의 당으로 건물 안에 위패나 그림, 방울, 쌀을 담은 향아리 그리고 목조

- 철제 신상(神像) 등의 신체(神體)가 모셔져 있다.
- 이외에 수구(水口)막이 신앙으로 쌓아 올린 탑이나 입석도 당의 한 형태로 신수(神樹)와 복합되어 있기도 하고 신수와 관계없이 위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승과 솟대 역시 당의 하나 형태이다. 장승은 길가나 마을 어귀에 세워지는 사람 모양의 형상으로 석장승과 목장승이 있다. 솟대는 긴 장대 위에 새나 오리를 얹혀놓은 것으로 역시 석조(石造) 솟대와 목조(木造) 솟대가 있다.
- 이러한 당은 마을의 일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보통 마을은 산을 등지고 남향해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을 뒷산 중턱에 산신을 모신 산신당이 있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옆에 서낭당이나 서낭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가 있는 곳도 있다. 한편 해안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마을 뒷산에 산신당과 마을 앞에 용신당(龍神堂)이 각각 배치되어 있어 이중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당의 배치를 통해 동신이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반영된 마을 공동체의 성격과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동제를 모시는 시기는 봄이나 가을이다. 대체로 정초에 날을 잡아서 하거나 정월 14일 밤 자정을 기해서 하는 것이 통례이다. 별신굿이나 해안지방의 풍어제나 용신제 등은 예외가 되어 특별히 날을 잡아 지내기도 한다.
- 동제는 마을회의에서 화주와 축관 등 제관을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을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정결한 사람으로 화주와 축관·집사 등의 제관이 선출된다. 제관은 선출된 날로부터 목욕재계를 하며 금기로 들어가 언행을 삼가며 출입을 통제시키며, 마을 샘에서 떠온 깨끗한 물로 제주(祭酒)를 빚고, 정성을 들여 제사에 쓸 음식을 마련한다. 마을 샘도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해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으며, 당집에도 역시 청소를 하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둔다.
- 제일(祭日)이 되면 화주 집에서 마련한 제수(祭需)를 지계에 지고 당에 진설을 하고 초헌·아헌·종헌·독축 등의 절차로 제를 모시고 음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산신당·서낭당, 혹은 윗당·아랫당 순으로 제를 지내면 제사는 끝나게 된다.
- 한편, 위의 설명은 유교식 동제의 절차이고 풍물이 동원되는 동제에서는 당으로 제수를 나를 때부터 풍물 곧 농악을 치고 나서서 제를 모시기 전 당 주위를 돌며 치다가 제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올 때에도 친다. 그리고 보다 규모가 크

게 동제를 모시는 곳에서는 무당을 불러 당굿을 지내기도 한다. 당굿은 제관들의 제의가 끝난 다음 무당들에 의해 진행되는 곳이다. 이 곳은 마을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당들의 다양하고 긴 곳거리에 의해 굿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동제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 동제가 끝난 다음 날, 보통 음력 정월 15일 날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대동 회의를 하고, 제물을 음복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논다. 이날 줄다리기를 하고, 풍물을 치며 마당밟기를 한다. 대동 회의에서는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이장을 새로 뽑고 신년도 사업과 예산을 의논하고 품삯이나 머슴의 새경도 정한다. 줄다리기는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서 하는데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마당밟기에서는 당과 공동 샘에 인사하고 공동체 성원의 집집을 돌며 풍물을 치며, 집안 곳곳과 마을 전체의 액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기원을 한다.
- 이러한 동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속신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적 성격을 두루 담고 있다. 위에서 본 동신의 명칭, 신격, 당의 명칭, 당의 형태와 배치, 제사일시, 절차 등에서 그러한 점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제가 신앙 행위 그 자체에 머물지 않음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동제가 지닌 성격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동제의 성격 중 위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아래의 공동체성과 기충성 같은 것은 동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동제에서 우선 두드러져 보이는 특성은 공동체성이다. 동제에서 모셔지는 동신(洞神)은 공동체의 기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을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시조신이자 수호신이다. 동신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지켜주고, 나와 이웃을 지켜주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키고, 소망과 기대를 획득해 주는 정신적 신뢰의 구심점 구실을 한다.
- 그래서 성원들은 주체적으로 당제에 관계하고 참여를 하며, 당제의 모든 준비와 진행은 공동 주체의 양상을 띠게 된다. 동제에서의 기원은 공동체 성원 모두의 무병강녕이며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의례와 절차를 통한 기원은 음복의 나눔으로 연장되며, 놀이와 축제의 즐거움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동제의 한 특성으로 동제의 구체적 계기이자 결과라고 할 것이다.
- 동제는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이며 농업과 어업 등의 생산에 종사하는 민중의 종교이다. 우리는 여기서 동제의 기충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충이란 공간적인 측면에서 밀바탕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원초적인 것을 뜻하며, 더 나

아가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것을, 공시적인 측면에서는 근원적인 것을 의미한다. 동제의 이러한 기층성은 동제가 민속문화의 원본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동제의 역사성에 근거하고, 동제에 내재된 민중의 세계관과 삶의 근본적 질서가 동력으로 작용하여 민속문화의 구체적 실현을 낳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이러한 종교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기층적인 동제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전개와 각 지역에서의 전승을 통해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동제를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제의 여러 가지 성격과 면모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마을제의의 유형과 분포

1.1 유형

- 마을제의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다. 그것은 그만큼 동제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에 따라 그리고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명칭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 제의가 포함되거나 결합되어 있는 등 실제 동제가 전승되고 있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 동제는 매년 지내는 일반 동제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별신굿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동제는 그 제의 양식에 따라 제관의 독축 고사로 엄숙하게 이루어지는 정숙형(靜肅型) 동제와 춤과 노래·극 등을 통해 축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가무사제형(歌舞司祭型)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또 가무사제형을 무당굿형과 풍물굿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일반 동제는 정숙형·무당굿형·풍물굿형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별신굿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점과 일반 동제에 비해 규모가 크고 예술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점 등을 빼면 가무사제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별신굿 역시 무당굿형과 풍물굿형으로 나누어진다.
- 한편 정숙형 뿐만 아니라 무당굿형과 풍물굿형에도 제관들이 진행하는 제의가

들어있는데, 그 제의가 무당굿놀이에 비해 비중이 적을 뿐이다. 그리고 농악패는 정숙형에서 파제 후 놀이판을 벌일 때 참여하고 있으며, 무당굿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가진다. 무당패의 경우는 그 참여가 한정되어 있어 정숙형이나 풍물굿형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나 그 간접적인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1) 정숙형

- 정숙형 동제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한 제관들만이 조용한 밤중에 당에 올라 지내는 제사이다. 제관들은 선출 직후부터 엄격한 금기를 지키고 목욕재계하고 근신하면서 제를 준비해야 하며, 마을 사람들도 직접 제를 지내지는 않으나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와 마찬가지로 제의 진행 역시 엄숙하게 이루어진다. 대개 유교식(儒敎式) 절차에 따라 진설·헌작·재배·독축·소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 유형의 동제를 유교식 동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정숙형 동제도 엄숙한 제사가 끝나면, 금기의 해제와 함께 놀이가 행해지기도 한다. 파젯날 음복과 곁들여 춤이나 노래판을 벌여지며, 풍물도 치면서 즐겁게 놀게 된다. 이러한 놀이 뒤에 마당밟기가 행해지는 곳도 있다.



<사진1> 원주시 치악제에서의 굿(2003년)

2) 가무사제형

- 가무사제형 동제 역시 제관들이 진행하는 제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제의는 여러 절차 중 하나이며, 제의에 이어 무당의 굿놀이가 이루어지고, 풍물굿과 탈놀이, 그 외 갖가지 놀이가 행해지는 축제나 다름없는 동제이다. 이것이 일반

동제에서는 규모가 작게 이루어지나, 3년 · 4년 혹은 10년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별신굿에서는 며칠씩이나 계속해서 치러지는 축제가 된다.

3) 무당굿형

- 무당이 가무사제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제사와 굿이 결합되어 의례성(儀禮性)과 연희성(演戲性)을 동시에 띠고 있는 동제이다. 제주도의 본향당굿, 경기도 도당굿, 서해안의 대동굿, 전라도 서남해 일부의 당제 등이 이 유형의 동제이며, 동해안 별신굿 · 은산별신제도 역시 같은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본래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주로 해안이나 도서지방의 동제에 많이 남아있다.
- 동해안 별신굿과 은산별신제의 경우를 잠깐 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 별신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행해지는 풍어제의 성격을 지닌 마을굿이다. 일단 마을 안의 제관들이 조용하게 제사를 마친 다음에 무당들에 의해 굿거리가 차례로 사제된다.
- 그 굿거리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부정굿 (2)일월맞이굿 (3)골매기청좌굿 (4)당맞이굿 (5)성조굿 (6)마당밟기 (7)화해굿 (8)세존굿 (9)조상굿 (10)천왕굿 (11)놋동이굿 (12)심청굿 (13)손님굿 (14)계면굿 (15)용왕굿 (16)탈놀이

- 이 별신굿은 마을의 평안과 자손의 번창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는 종교 제의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강한 예술성과 연극성, 오락성을 지닌 굿놀이가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다목적인 연행을 보이는 축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은산별신제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 전승되어 오는 것이다. 당산의 산신당에 모여 산신(山神)과 복신장군(福神將軍)·토진대사(土進大師)에게 제사를 모신다. 여기에 매년 지내는 제사는 산제(山祭)라고 하며, 3년만에 대제(大祭)를 지내는 것을 두고 별신제라고 한다. 은산별신제는 10여일 이상 계속되는데, 그 제의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물 봉하기와 조라술 빚기 (2)집굿 (3)대진베기 (4)꽃받기 (5)상당굿 (6)본제 (7)강

신굿 (8)하당굿 (9)독산제 (10)장승제

- 여러 과정 중에서 은산별신제의 핵심과 절정은 굿에 있다. 신이 내리기를 비는 맞이굿과 축원하고 오신(娛神)하는 과정에 무녀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춤과 노래가 연행된다. 무녀의 가무사제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노래와 춤과 음악이 일체되는 미분화예술 상태의 대동굿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4) 풍물굿형

- 풍물굿형은 마을의 풍물패들이 제의의 주재자가 되어 가무사제(歌舞司祭)하는 동제다. 전국에 널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형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풍물을 ‘매구(埋鬼)’ 혹은 ‘매구굿’이라고 하는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풍물이 지닌 이런 의식성(儀式性)과 동제의 그것은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연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1.2 분포

1) 서울·경기도의 당제·도당굿

- 이 지역은 도시화가 된 탓에 지금은 동제의 전승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 서울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답십리 도당굿 · 봉화산 도당굿 · 보광동 부군당굿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도 역시 상당히 큰 규모의 도당굿이 도처에서 행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전승이 활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도당굿은 무당굿현의 동제로 1년 혹은 2 · 3년만에 한 번씩 행해지는 마을굿이다. 도당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당주굿 (2)거리부정 (3)안반고수레 (4)부정굿 (5)도당 모셔오기 (6)돌돌이 (7)장문 잡기 (8)시말루 (9)제석 (10)본양굿 (11)터벌림 (12)손굿 (13)군웅 (14)도당 모셔다드리기 (15)중굿 (16)뒗전

2) 강원도의 서낭제와 풍어제

-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산간지방과 해안지방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이 많은 영서지방의 동제는 서낭제(혹은 산신제)의 형태이고, 영

동지방의 동제는 풍어굿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해안 지역의 풍어굿은 무당굿놀이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서낭제는 산촌에서의 마을 구성에 따라 반(班) 서낭과 도(都)서낭의 관계에 따른 제의를 보여주며, 위패나 화상을 모신 당집과 당목, 돌무더기 등으로 표상된 산신은 원시적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충청도의 산신제, 거리제, 장승제

- 충청도 지역에는 대개 산신제 · 장승제 · 수신제(水神祭) 세 가지 형태의 동제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복합되어 행해지고 있다. 이 밖에 탐제라고 불리는 동제도 행해지고 있는데, 산신제나 거리제의 성격과 흡사한 것이다. 충청도의 동제에서 무당이 참여하는 당국은 충청남도 해안 및 도서 지역 일부에서만 발견될 뿐 대부분 정숙형의 동제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4) 영남의 골매이 동신제

- 골매이 김씨 할배 혹은 김씨 할매 등에서 보이는 골매이란 골(洞·邑·郡)과 막이 ‘수호자’의 복합명사로써 부락 창건신 · 시조신 · 수호신 등으로 관념된다. 이러한 신명(神名)은 강원도 남부와 영남 지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적인 신관념이다. 이 지역 동제 중에서 하회 별신굿과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 당산제에는 별신굿탈놀이와 가산오광대가 전승되고 있듯이 몇 군데의 동제는 기능의 확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5) 호남의 당산제

- 이 지역의 동신은 당산할아버지와 당산할머니가 가장 보편적이다. 특히 여신인 당산할머니에 대한 신앙은 보다 특별한 것이어서 농경사회의 지모신(地母神) 관념이 뿌리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제와 줄다리기가 복합 병행되고 있는 점도 이 지역의 특성이다. 이 역시 농경사회에서의 신앙성을 보여준다. 무당굿형 · 풍물굿형 · 정숙형이 각기 나타나며 그것들이 결합되어 전승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6) 제주도의 본향당굿과 포제

- 제주도에서는 당을 본향당(本鄕堂)이라 부른다. 본향당굿은 년 1회에서 4회까지 하는데, 여성들 위주의 당굿 형식의 본향당굿과 남성위주의 유교식 포제로 이중적인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향당굿이 포제로 이행되는 일면도 있으며, 둘의 연관성도 드러나고 있다.

4

마을제의의 금기

- 금기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면 탈이난다”로 되어 있는 행동에 대한 규제이다. 종교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탈이 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금지를 금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탈을 전제로 한 인물 · 사건 · 일시 · 장소 · 행위 · 말 등에 대한 금지를 금기라고 하는 것이다. 동제에는 갖가지 금기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기로 인해 동제의 신성성이 확보되고, 동제의 전승력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금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신림면 성남리 절골 산신제 금줄 제작

4.1 신성한 것의 접근·접촉을 피하는 금기

-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금기의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시간의 금기를 보자. 동제는 신성기간이 정해져 그 기간 동안에는 제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금기가 설정된다. 속된 시간에서 신성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근신

의 의미이다. 일상 시간과는 달리 제의의 시간은 성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금기인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며, 속된 것은 범접할 수 없게 된다.

- 다음 장소에 대한 금기이다. 당 주변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것은 신성한 공간에 대해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금줄과 황토는 성스러운 장소의 표시이며 속된 공간과의 분리를 나타낸다. 그 표시 안은 신성한 공간이 된다. 그 안으로는 출입이 금지되며, 그 안에서는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음주 소란하지 않으며 부부간의 방사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제의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그러한 금기는 규제로 작용하는데, 서낭목에 대한 것들이 많다. ‘서낭목 벤 사람이 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것은 금기와 관련된 언술이며, 신성한 신수(神樹)에 접촉을 금지 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4.2 부정한 것에 대한 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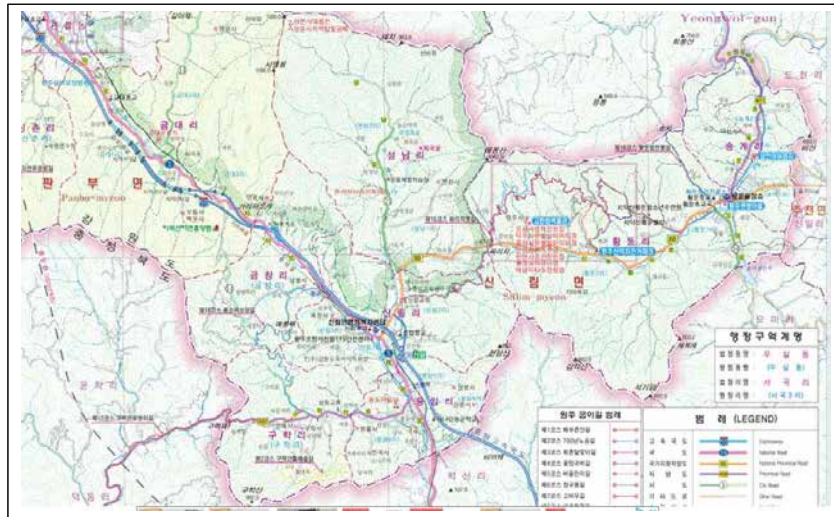
- 부정의 대표적인 것은 출산과 사망에서 새기는 부정이다. 이러한 부정을 당하는 사람은 일정한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출생이나 사망을 당한 사람은 동제의 제관이 될 수 없다. 제관이 된 후에라도 그만두어야 한다. 마을에 이런 일이 있어도 동제는 연기된다. 그러므로 출산을 앞둔 부녀자들은 임시로 마을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남과 다투어서도 안 되고, 나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며, 비린 것을 먹어서도 안 되며, 금주, 금연해야 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고자 하는 금기라 할 수 있다.

5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를의 위치

- 원주시는 강원도 제1의 도시이며 한국전쟁 휴전 때까지 도청소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다.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이래 갖가지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로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며 조선 시대에는 ‘강원감영’이 자리 잡았던 행정중심지였다. 동쪽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치악산이 웅장한 모습 그대로 수많은 전설과 고사를 지니고 있다.
- 원주시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치악산 등 관광자원이 햇빛을 보게 됐으며 영동고

속도로가 뚫려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교통 요지로서 큰 구실을 해왔는데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고속도로와 KTX 고속철도까지 개통되어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사진3> 2019년 원주시 행정 지도(신림면 일대)

- 사적지 제439호인 강원감영지는 당시의 건물(선화당, 포정루, 청운당)들이 원 위치에 남아있고, 2000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발굴 조사 결과 관련 유구(중삼문지, 내삼문지, 공방고지, 책방고, 보도, 담장지, 행각지 등)가 비교적 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 이전의 원주목 관아의 건물지 등이 하층에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 관아건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이다.
- 원주의 인물로 운곡 원천석 선생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밝아 목은 이색 등과 함께 성리학 보급에 큰 역할을 했으며 조선 태종의 어릴 적 스승이기도 하다. 고려 말 정치가 문란해지자 이를 개탄하면서 치악산에 들어가 숨어 버렸다. 조선왕조가 들어서 선생에게 벼슬이 주어지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지 않았다. 운곡선생의 묘역 내에는 봉분 앞에 묘비와 제사음식을 차려 놓을 수 있는 상석(床石)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신도비가 있는 소박한 형태이다.
- 유형문화재 제145호인 구룡사는 치악산 능선 아래 급경사지에 동향(東向)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 산지에 건립된 사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룡사의 출입은 사천왕문(四天王門)을 통과하여 보광루 아래 부분의 트여있는 가운데 칸을 통로로 삼아 대웅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누하진입방식

(樓下進入方式)인데, 이러한 방식은 경사진 지형에 조성된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보광루는 구룡사의 가람배치에서 불이문(不二門)의 성격을 가진 건물로 공간의 위계(位階)를 구분함과 동시에 누각 아래를 통한 진입으로 전이공간(轉移空間) 역할을 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익공집으로 홀처마 맞배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으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배흘림이 있는 튼실한 원형기둥을 세워 아래층을 구성하고 있다.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가운데 1칸을 제외한 나머지 옆 칸은 판벽으로 막고 창고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창고 안쪽으로도 기둥을 세워 놓았으며 각 칸마다 두 줄씩 가로·세로로 보를 놓았다.

- 강원도 지정기념물 제30호인 황장금표는 학곡리 구룡사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인근에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 이 금표는 황장목 봉산(넝빤지로 사용하는 품질 좋은 큰 소나무가 있는 국가지정보호 국유림)의 경계 표시로 황장목 금양(궁중용재보호)을 위하여 일반인의 도별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로 설치된 것이다. 예부터 왕실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필수품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운데 가장 양질의 것을 진상케 하였는데 황장목도 그 중의 하나이다. 황장목이란 나무의 수심 부분의 색이 누르고, 몸이 단단한 질이 좋은 소나무로서 그 용도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주로 왕실에서 신관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목을 말한다. 일종의 보호림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금표제도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치악산은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이 가까워 관리에 유리하며, 한강 상류에 자리하여 뗏목으로 한양까지의 운반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전국 60개소의 황장목 봉산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의 하나였다. 처음에 발견된 제1금표는 폭 110cm, 높이 47cm, 둘레 270cm 크기의 자연석에 새겨져 있는데 각자(刻字)의 크기는 대략 가로 11cm, 세로 14cm이다. 나중에 발견된 제2금표는 흙속에 일부가 묻혀 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가로 24cm, 세로 25cm의 공간에 ‘황장금표(黃腸禁標)’라고 새겨져 있다.
- 원주향교는 맨 안쪽 중앙에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 좌우에 동·서무를 배치하고 대성전 앞에 명륜당을 두고 명륜당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배치하였으며, 동재 옆에 수복실을 그리고 명륜당 앞에 외삼문을 배치하였다. 건물구성은 1734년 건립된 대성전(맞배지붕), 명륜당(1609년 건립), 동무, 서무, 동재(1602년 건립, 맞배지붕), 서재(1602년 건립, 맞배지붕), 외삼문(1839년 건립), 수복실 등이 있다. 원주향교의 창건을 고려 말이라고 하나 있으나 고증된 것은 아니다. 전하는 문헌 및 기록으로는 상량문(1609), 명륜당 상량문(1749), 향교

중수기(1839), 원주향교문묘중수기(1923), 원주향교중수기(1987)가 있다. 창건 당시의 위치는 현재의 향교 터로 추정되고 있다.

- 신림면은 원주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원주시청에서 약 21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영월군 주천면, 서쪽으로는 판부면과 충북 제천시 백운면, 남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쪽으로는 영월군 무릉도원면과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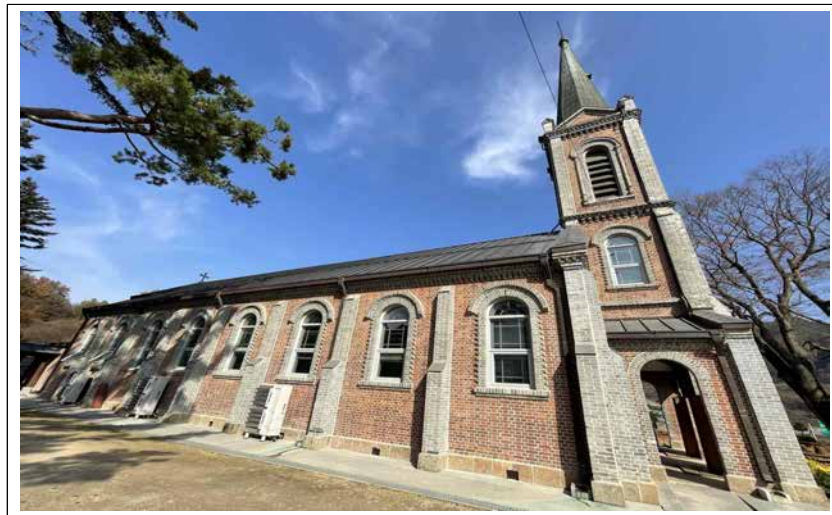
<사진4> 신림면 일대 표기 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원래의 이름인 ‘가리파’는 가리파재에서 연유한 것이다. ‘가리파’는 ‘가리+ 파> 가리파’인데 ‘가리’는 갈(分)에서 파생된 것으로 ‘갈라지다’의 뜻이며 ‘파(坡)’는 옛 고구려어로서 ‘언덕, 바위’를 뜻하였다. 현대어의 ‘바위’는 이 고구려어 ‘파’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가리파’는 원주와 신림을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는 고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신림(神林)이라는 이름은 고려 성종 11년(991)의 행정구역 개편 때 평구도(平丘道) 소속 원주 예하에 단구역(丹丘驛)과 함께 신림역(神林驛)이 등장하면서 처음 나타난다. 이후 조선시대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이 28세에 신림을 지나면서 「제신림역(題神林驛)」이라는 시를 지었고 『고려사』(1451)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신림역 이름이 나온다. 우리나라 역참 제도는 5세기 삼국시대 초기부터 운영되었고, 이후 통일신라기에 전국망이 확립되었는데, 그것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궁예가 신림 석남사에 터를 잡은 것 등으로 보아 신림역은 늦어도 통일신라 시기에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신림’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천 몇 백 년의 역사를 가진 지명

임을 알 수 있다.

- 신림(神林)이란 이름은 이 지역을 ‘신이 깃든 곳’으로 특별하게 신성시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림(神林)이라는 지명은 현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신림골(神林-)’, ‘신림당(神林堂)’, ‘신산(神山)’, ‘신산당(神山堂;큰당)’, ‘신숲(神-)’ 등에 나타나 있다. 고대에는 이 장소들이 거대한 당숲으로 ‘신숲’, ‘신림’, ‘신산’ 등으로 불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거기에 역이 들어섰으므로 ‘신림역’이라 하였고, 이후 이 마을을 지칭하는 ‘신림리’라는 행정명이 생기고 그것이 확장되어 ‘신림면’이 되었다..
- 신림면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경 127°57′, 북위 37°21′ 지점이며 원주의 남동쪽에 있고 차령산맥인 치악산과 백운산의 중간에 위치한다. 남쪽으로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동쪽으로 영월군 주천면, 서쪽으로 귀래면, 북쪽으로 원주시 판부면과 경계하고 있다.
- 치악산과 백운산 사이에 있어 남대봉 · 감악봉 · 석기암 · 구학산 등의 높고 험한 산들이 먼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금창리에서 발원한 용암천과 신림리에 이르러 성남리에서 발원한 주포천이 합류하여 면의 서부를 남류하며, 유역의 신림 · 용암리 일대에 좁은 충적평야를 발달시켰다. 동쪽에는 주천강 지류인 서만이강 유역인 황둔 · 송계리에도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 면적은 127.46km²(원주시 면적의 14.69%)로, 총 면적의 77.7% 이상이 산악지대인 산간분지형이다.
- 신림면은 석자재가 풍부하여 석회생산 및 석재원료 관련기업이 많으며,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산수가 수려하다.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남2리 성황림을 비롯하여 상원사와 용소막성당이 명소가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제1가나안 농군학교(1962년 김용기 장로 설립)에 이어 용암3리에 제2가나안 농군학교가 1973년 3월 13일 설립되어 전국의 사회지도자 및 농촌지도자,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학생 등을 교육시켜 신앙심 고취와 민족정신, 경제자립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 면적은 원주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123.58km²이나 면적의 77.7%이상이 산악지대인 산간분지형이며 산지의 6할 이상이 고랭지채소 재배지이나 경지면적은 극히 적다. 이 지역은 고지대인 지형적 특성으로 산나물 및 이를 이용한 자연식품, 약초재배로 농가소득원이 되고 있다.

- 교통은 중앙선 철도가 면의 서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산림역이 있다. 도로는 원주 ~ 제천 간의 중앙고속도로와 5번 국도가 철도와 나란히 지나고, 402번 지방도가 백운~신림~황둔~영월을 동서로 연결하며, 12번 시도가 용암~학산, 14번이 구학~금대, 18번이 황둔~송계와 연결되는 등 편리하다.
- 치악산 국립공원 남부진입로로서 상원사 · 남대봉의 입구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든다. 면내에는 신림을 비롯하여 금창 · 구학 · 용암 · 성남과 황둔출장소 관내에 황둔 · 송계 등 7개리가 있다.
- 신림지역의 명승과 대표적 고적으로는 상원사와 용소막성당이 있다. 상원사는 치악산 남대봉 아래에 있는 사찰로서 신라 문무왕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신라 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선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도하던 중 문수보살에게 기도하여 관법으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 원주시 신림면 성남 2리에 위치한 문화재자료 제18호 상원사는 원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오늘날까지도 치악산이란 명산이 있어 한 유서 깊은 절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최근에 신축된 것이어서 창건 당시의 전체 가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대웅전 앞에 나란히 남아 있는 2기의 석탑으로 신라시대의 쌍탑식 가람임을 추측하게 할 뿐이다. 현재의 건물은 1968년 당시 주지인 송문영법사와 여신도 의성에 의하여 중건 복구된 것이다.



<사진5> 신림면 용소막성당

- 용소막성당은 풍수원성당과 원주성당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곳으로 풍수원

성당의 전교회장으로 있던 한석완이 고종 광무 2년(1898) 원주본당 소속 공소로 모임을 시작했다가 고종 광무 8년(1904) V.Poyaud신부가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하면서 독립된 성당이 되었다. 발족 당시 원주, 평창, 영월, 제천, 단양 등 5개 군에 17개의 공소를 관할하고 있었다.

- 교회 건물은 처음 초가였다가 P.Chuzallet에 의해 현재의 벽돌 건물로 건립되었다. 시잘레 신부는 신자들의 도움으로 중국인 기술자들을 써서 이 건물을 지었다. 성당 건물은 전면 중앙에 돌출한 종탑을 둔 장방형 평면의 벽돌조로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고 버팀목은 회색 벽돌을 사용하였다. 창의 형태는 모두 원형 아치형이며 테두리를 회색벽돌로 장식하였다. 고딕양식을 변형시킨 소규모 벽돌조 성당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6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상징

- 예로부터 각 마을에는 ‘마을성황당’이 있었고 마을마다 성황신을 모시고 제사(祭祀)를 올렸으며 이 제사(祭祀)를 성황제라 하고 그 당(堂)을 성황당(城隍堂)이라고 하였다. 당(堂)은 당사(堂祠) 또는 설단(設壇)으로 대부분 노송(老松)과 고목(枯木)이 있으며 성황지신(城隍之神)과 토지지신(土地之神), 그리고 여역지신(厲疫之神)을 제사(祭祀)한다.
- 성황지신(城隍之神)에게는 그 마을의 인축(人畜)이 무고(無故)하고 농상(農桑)이 잘 되도록 축원(祝願)하고,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는 그 마을의 동물(動物) 및 식물(植物)을 번성하게 하여 줄 것을 축원(祝願)하고, 여역지신(厲疫之神)에게는 병귀(病鬼)가 근접(近接)하지 말고 마을이 평안(平安)하게 하여 달라는 기원(祝願)을 하며, 축문(祝文)과 홀기(笏記)를 읽고 제사(祭祀)를 지낸다.
- 또한 수목은 생생력 상징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니, 즉 선인들의 고유사상을 보면, 그들은 흔히 나무에서 풍어·풍농이나, 기자 기원을 하였음을 구비전승이나 문헌을 통해 익히 알 수 있는 것이다.
- 마을제의는 정령숭배사상에서 기원하여, 천신의 하강처나 거주처가 되는 마을의 숲이 그 첫째요, 산의 신령한 영위(靈位)가 들어 있기에 치성을 드리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둘째로, 수목은 산의 영기가 응결된 영적 존재이기에 영웅, 장군 등의 위인이 탄생되고 자식의 점지를 받으면 나무처럼 유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로, 생산과 풍요의 신성한 수목의 숭배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성황림은 성남리 마을제의로 승화된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제의의 특성은 공동체성이다. 동제에서 모셔지는 동신(洞神)은 공동체의 기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을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시조신이자 수호신이다. 동신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지켜주고, 나와 이웃을 지켜주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키고, 소망과 기대를 획득해 주는 정신적 신뢰의 구심점 구실을 한다. 그래서 성원들은 주체적으로 당제에 관계하고 참여를 하며, 당제의 모든 준비와 진행은 공동 주체의 양상을 띠게 된다.
- 동제에서의 기원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무병강녕이며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의례와 절차를 통한 기원은 음복의 나눔으로 연장되며, 놀이와 축제의 즐거움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동제의 한 특성으로 동제의 구체적 계기이자 결과라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윗성남의 성황림과 마을제의를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래가치로 창조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황림과 마을제의가 지닌 전통문화적 상징성과 다양성에 주목하여 그 면모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7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사회문화적 기능

- 마을제의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그 기능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동제의 기능을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7.1 종교적 기능

- 동제는 인간이 일사에서 겪는 무력감이나 공포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풍농 · 풍어를 기원하고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주술 행위이다. 따라서 동제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천재지변에 대한 공포감을 제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유발되는 불안 심리를 극복하려고 한다. 동제가 지닌 이러한 종교적 기능으로 심리적 안정 및 제의를 통한 심신의 정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 신성기간(神聖其間)과 금기의 설정은 종교적 엄숙성과 정결성을 드러낸다. 일

정 기간 동안 제관집에는 대문에 원새끼 금줄이 쳐지고, 부정한 행위를 삼가며, 한겨울인데도 찬물로 목욕재계한다. 당과 당샘도 깨끗하게 청소되며 금줄이 쳐지고 황토가 뿌려진다. 마을 역시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마을 사람들도 행동을 조심하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며 임산부는 일시 출타하며 상고(喪故)가 나며 연기하는 등 공동체 모두가 신성한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신성화는 동제를 통해 바라는 종교적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제의에서의 소지(燒紙) 역시 종교적인 주술적 행위의 하나이다. 길이 20~30cm, 폭 10cm 정도로 한지를 접어 태워서 그 재를 날려 보내는 것이 소지다. 이 소지는 기원(祈願)과 예지(豫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소지를 올리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기원함과 동시에 그 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새해의 길흉을 예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원과 예지는 종교적 기능의 한 표현이다.
- 동제는 사람들이 그 해의 평안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그 해의 길흉을 예지하고자 하는 종교의식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람들은 확인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매사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만일 불길의 예측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근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길조가 예견되면 그 길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중 · 근신 · 노력으로 그 해를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제가 발휘하는 중요한 종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7.2 사회적 기능

- 동제를 잘 지내고 있는 마을일수록 단합이 잘 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제의 사회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 동신은 마을 사람 모두를 수호해주는 공동신이다. 어느 특정 신분이나 집안을 애호하는 신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 전부를 균등하게 보호해주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각자는 동신으로부터 균등한 가호를 받고 있다는 공지와 동류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이 성원 상호 간에 결합을 촉진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 경비를 공동으로 모금하고, 금기와 재계를 같이 하는 것도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다지게 한다. 그리고 이런 공동의 준비와 진행을 동제의 목적이 집단 전체의 것이 되게 한다.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잡귀 · 질병 · 재액 등

을 퇴치하려는 것은 동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성원 개개인의 목적인 동시에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동제를 통해 더욱 결속하고 단합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6> 윗성남 당고사 이후의 음복(2012.10.23)

- 동제를 통한 사회의 통합은 제의 후의 음복(飮福)과 놀이를 통해 더욱 굳어진다. 음복은 제사에 쓰인 음식과 술 등 같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신의 축복을 다 같이 나누는 것이며, 성원들끼리 일체감을 갖게 하는 장치이다. 이런 음복에는 대동회의가 곁들여 진행되며, 이후 매구꾼들의 풍물에 맞춰 흥겨운 놀이판을 벌어지게 된다.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벌어지는 대동놀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동제를 통해 획득된 연대의식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가가호호를 돌며 계속될 마당밟기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되는 것이다.
- 마을 공동체가 획득한 이러한 ‘연대의식’과 ‘지역의식’은 성원들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게 하고 마을의 미풍양속을 보존·전승케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동제를 잘 지내는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단합이 잘 되어 있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힘이 작용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3 정치적 기능

- 동제는 순전히 마을 자치에 의해 행해진다. 제관 선출이나 경비의 추렴 등이 모두 자치적이며, 동제 후 파젯날 음복과 더불어 개최되는 대동회의는 마을의

자치기구나 다름없는 구실을 한다. 대동회의에서는 각 집의 호주 또는 일반 동민들이 한 곳에 모여 당제 거행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부터 마을내의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토의 결정한다. 동제의 예산 편성, 부역 · 혼례 · 상례 때의 상호 부조 문제, 노임 책정, 이장 선출 등의 문제가 토의되고 결정되는 것이다. 동제 뒤에 열리는 이러한 대동회의는 마을의 회의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대동회의에서는 선행자를 표창하고 불량자를 징계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노부모를 잘 받들고 사는 효자 · 효부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통해 선행자의 영예를 부여했으며, 불효자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는 동장의 집행하에 사리를 물어 벌을 주기도 했다. ‘마을재판’의 운영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적 규범을 바로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 그리고 대동회의의 참석과 의사 결정은 신분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연령이 높은 장로의 의사가 존중되기는 하나 불평등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민주적 평등성에 의해 대동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이상에서 보듯이 동제의 정치적인 기능은 대동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마을 회의나 마을재판의 역할에서 보이는 자치성 그리고 회의 참석이나 운영에서 보이는 민주적인 평등성의 면모는 동제의 정치적인 기능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7.4 축제적 기능

- 유교식 동제는 신성기간을 끝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풍물이 동원되는 가무사제 형식의 동제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오락적인 축제가 계속된다. 우리의 민속놀이 중 상당 부분은 이때 행해지는데, 그것이 동제의 축제 기능 속에서 형성되어 연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풍물패에 의한 마당밟기 · 걸립 등은 오락적인 축제 한마당이며, 줄다리기 · 고싸움 · 동채싸움 · 횃불놀이 · 편싸움 등의 각종 놀이들은 축제 분위기를 최대로 고조시키는 것이 된다. 이 축제를 통해 그동안 자제하고 참가했던 일상적인 삶의 응어리를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남녀노소 가림 없이 더불어 즐기는 가운데 지역적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의의를 지니게 된다.
- 동제는 전통사회에서부터 우리의 최대의 축제 기간이고 공간이었다. 현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진정한 축제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에 동제는 우리에게 축제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역적 유대와 전통문화의 온전한 전승을 위

해서도 동제가 지역 축제로서 각 마을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5 예술적 기능

- 별신굿으로 행해지는 동제에서는 풍물패의 풍물과 춤, 무당들의 무악 및 굿놀이, 그리고 탈춤 등의 각종 예술 양식들이 연행된다. 하회 별신굿에서 연행되는 탈춤, 강릉 단오굿의 관노 가면극, 은산 별신제에서의 무당 굿놀이 등은 모두 동신을 섬기는 동제와 더불어 전승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호남지방의 예술성 높은 풍물 역시 동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이고, 동해안 별신굿에서의 연극·서사무가·가무 등 종합예술적인 굿놀이 역시 동제와 관련하여 전승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민속예술은 모두 동제의 연장선상에서 연행되는 것들이다. 동제가 이들 민속놀이의 중요한 전승틀이 되어 있는 것이다.
- 한편 동제는 민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동제 관련 예술에는 민중의 삶과 의식세계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위에서 본 민속예술은 귀족적 예술에 맞서는 독자적 가치의 예술성을 지니고, 민중의식과 민중적 미의식을 표출한다. 지배층의 예술에 동화되지 않고, 지배층의 허위와 모순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건강한 민중의식이 주체적인 문화양식을 성립하게 하고, 또 그것을 전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동제의 예술적 기능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민중적 예술성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8

신림면 성황림 마을제의의 보호와 계승

- 우리나라의 마을제의는 의식, 춤, 풍물, 놀이, 신명이나 신바람 그리고 흥을 지니고 있는 민속 문화의 정수이다. 이러한 신명의 근원은 원초적으로 마을제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서낭신을 모시고 마을 전체의 건강, 풍요(豊饒), 풍어(豊漁)를 확보하기 위한 굿인 것이다. 그 굿이 바로 우리의 축제이다. 이 축제 속에는 기쁨과 주술적인 목적이 성취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게 충족된 것처럼 만드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이러한 제의 속에 주술이라는 관념적 인식이 작용하여 마을의 서낭신과 인간이 함께 하며, 남녀노소, 상하귀천의 구별 없이 모두 흥겹게 열린 축제의 장(場)으로 어우러져 공동체 조직의 단합과 그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예술,

전통예술의 정수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 일제강점기와 70년대 근대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곳곳의 마을제의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그렇지만 제의와 함께 하던 많은 민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민속이 살아있음은 곧 마을신앙이 살아있음과 같다. 마을신앙이 사라지면 그것은 곧 그 마을의 민속이 사라짐을 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마을신앙에 대하여 다시 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마을신앙을 우리민속의 중심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우리의 민속이 앞으로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마을신앙의 부활이나 복원의 문제도 아울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신탄지역의 경우 많은 서낭당이 소멸되고 축소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튼튼하고 많은 마을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성황림과 마을 수호신에 대한 신앙심과 외경심은 그 자체가 이 지역주민의 전통과 관련된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 서낭제의를 우리의 기층신앙이며 농업과 어업 등의 생산과 직결되어 있는 종교 의례이다. 이러한 제의를 통하여 기층의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세계관 삶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축제적, 예술적, 기능을 하며 마을이라는 단위의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질서를 구가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신탄면 성황림의 마을제의 또한 이러한 사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사, 자연환경 등과 무단한 교섭을 거쳐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낭제의를 지닌 종교적, 공동체적, 기층적 성격은 역사적인 전개와 함께 그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아 꾸준한 전승을 통하여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급속한 현대 문명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제의를 위협하여 축소 내지는 전승 중단 사태까지도 초래하였지만 기층민들의 끈질긴 전승력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제의를 지키는 힘으로도 작용하게 된 것이다.

제 II 장 신림면 마을제와의 유형과 특징

-
1. 신림면 마을제의 개관
 2. 신림면 마을제의 조사 현황
 3. 신림면 마을제의 형성 배경
 4. 신림면 마을제와의 유형과 성격
 5. 신림면 마을제의 의미
-

1

신림면 마을제의 개관

-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의 한 단위로, 가족이나 집들이 모여 사는 지역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을을 대신해서 골[谷], 동리, 부락 등의 용어로 대신하기도 한다. 마을은 하나의 완성된 사회이다. 마을의 입지 조건, 형성 원인, 신앙생활, 경제 활동, 사회 구조 등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사진7> 신림면 성남2리 뒷성남

- 특히 자연마을은 마을신앙으로 하는 범위, 통혼권, 상례 부조 등 의례 활동으로 하는 범위로 마을의 특정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해당 마을 이름을 지칭한다는 것은 마을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마을’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해준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며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집안을 잘 알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는 일체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 마을의 범위 및 마을 주민이라는 일체감 형성 등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의(祭儀)이다. 그리고 제의 가운데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흔히 ‘동제(洞祭)’로 대표되는 ‘마을제의’이다. 강원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통마을은 마을제의를 거행하는 ‘제단(祭壇)’과 ‘제당(祭堂)’을 가지고 있고, 마을제의를 앞두고는

금줄을 치며, 외부 사람들은 물론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설정한다.

- 그리고 마을제의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관(祭官)으로 뽑힌 제주(祭主), 헌관(獻官), 축관(祝官) 등이다. 마을 회의를 통해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마을제에 앞서 며칠 동안 목욕재계하고, 마을에서는 사람은 물론 짐승도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금기를 철저히 지킨다. 심지어 마을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사망도 부정(不淨)에 포함시킨다. 만일, 마을 구성원 가운데 산고(産故)나 사망이 발생하면 제일을 변경하거나 심한 경우 지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마을제의를 며칠 앞두고 금줄[禁繩]을 치며, 생기복덕으로 선정한 제주[祭主, 유사]를 맡은 집이나, 제당 근처에서 제물을 만들어 자정 가까울 무렵 제단에 진설하고 제의를 진행한다. 제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강신(降神)한 다음, 헌관의 헌작(獻爵)과 천찬(薦饌) 및 축관의 고축(告祝) 등의 순으로 제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유교식 제의’라고 한다.
- 축관이 축원을 하는 내용은 대개 1년 동안 마을 전체의 안녕과 천재지변, 수해, 질병 등으로부터 마을 구성원, 가축, 곡식 등을 보호하고, 다산(多産)의 효과 또는 풍요(豐饒)를 비는 것이다. 축관이 축을 읽는 것이 끝나면, 마을 내의 구성원이나 계원들을 위해 고사(告辭)를 외우며, 흰 종이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소지(燒紙)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것은 마을 내의 거주하는 구성원과 그들의 가정마다 축원을 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소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한 해 동안의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 소지 올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을제의를 끝이 나고, 마을제에 참석한 주민들은 제의에 사용한 제물과 술로 음복(飮福)을 한다. 음복에는 차례가 있으며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회식(會食)과 분배 등이 있다. 곧 제관들이 마을제의를 거행하면서 음복을 하고, 마을제이가 끝난 뒤에 그 나머지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 준비한 제물의 양이 많으면 회식과 분배를 하지만, 적을 때에는 분배를 하지 않고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회식하는 것으로 마을제의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음복은 신에 의해 성화(聖化)된 신찬(神饌)과 신주(神酒)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도 똑같이 신의 은총을 받아 건강, 장수, 행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위와 같이 진행하는 마을제의는 마을에 따라서 제의의 명칭과 신격(神格), 제당과 제단, 제일(祭日), 제의 절차 등에 일부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원주시 및 신림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마을신앙 조사 내용과 필자가 참여한 2003년 치악산 동악단 산신대제와 굿, 2005년 금창리 가리파, 2005년 황둔리 물안동, 2012년과 2021년 성남리 윗성남 등의 마을제의를 토대로 원주시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를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2

신림면 마을제의 조사 현황

- 현재까지 원주시 관내의 마을제의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조사보고서가 아직 없다. 마을제의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당에서부터 신격, 제일, 제물, 제의 절차, 제의 공동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현지 조사를 통한 종합 조사보고서가 요구된다.
- 다만, 원주시 신림면 일대에 제한해서 현재까지 신림면 일대의 마을제의 관련 내용은 기존 보고서와 단행본, 논문 등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관련 조사 내용은 1990년대에 오면서부터 보인다.
- 먼저, 신종원의 「치악산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민속」, 『한국학』 17(한국학중앙연구원, 1994)에는 1989년 음력 4월 7일 성남리 윗성남 마을신앙을 현지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치악산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민속」은 현재까지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를 현장에서 조사한 가장 오래된 조사보고서다.
- 또한 경수현의 「신림면의 당제에 대한 일고찰」, 『원주월』 제5호(원주문화원부설열심기협의회, 1994)에도 신림면 일대 마을신앙을 조사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1994년 음력 9월 9일 윗성남 당고사에 참관한 내용과 성남리 가둔지, 신림리 언당마을, 마지동, 용암리 사림, 탐골, 구학리 선학동, 석동과 방학동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성남리 일대의 마을제를 제외한 다른 마을들의 마을제의를 수록하면 아래와 같다(성남리 일대 마을제의를는 부록에서 별도로 수록함).

언당은 예전에 당후동(堂後洞)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언당이라 칭하고 있다. 상성남으로 가기 전의 부락으로 전체 가구수가 30여호로 이루어진 동네이다. 堂契에 가입된 가구는 15호이다. 이곳도 상성남이나 가둔지처럼 사월 초파일과 9월 9일 연 2회에 걸쳐 당고사를 지낸다. 제관의 선정은 생기 복덕(生氣福德)하고 부정(不淨)이 들지 않은 분으로 선정하며, 올 9월의 고사에는 진문수(62세)씨가 제관을 맡았으며 유사는 진병찬(61세) 씨가 맡았다. 제수 비용은 당계의 돈에서 얻어진 이자로 사용되는데 당계돈은 약 50만원 가량이 적립되어 있다. 제수는 백설기와 포 과일을 진설하고 술은 담그지 않고 정종을 사서 사용한다고 한다. 성황당은 소나무숲 사이에 당집과 몇 그루의 밤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집은 시멘트와 스테트로 이루어져 있고, 당 안에는 위패를 모시지 않는다. 제사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내며 고사는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소지(燒紙)를 올린 후 당 밖으로 나와 당목에 술을 올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 이곳도 예전에는 축문을 읽었으나 요즈음은 축문이 없어지고 고사의 절차도 극히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 神林2리 마지동 堂告祀

마지동은 신림면 면소재지의 바로 옆 마을로서 신림면에서 가장 큰 뜰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100여 가구에 이르는 큰 부락을 형성하였으나 지금은 중앙고속도로의 건설과 심한 이농 현상으로 마을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20여년 전 만해도 동네 주민들이 전체가 참가하는 규모의 당고사가 이루어졌으나, 교회가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당고사에 참가하고 있는 가구수는 15여호에 그치고 있다. 제일(祭日)은 3월 3일과 9월 9일 연 2회 고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관은 부정이 들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나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이장을 오랫동안 보셨던 홍영희(75세) 씨가 맡아서 지내며 올해도 홍영희 씨가 제관이 되어 고사를 드렸다. 제수 비용은 당논(당에 속한 논으로 마을 공동의 소유임)에서 나오는 소출 중 당논을 부치는 분이 마련한다. 올해에는 김병열 씨가 당논을 부쳤고 제수도 마련하였다. 제물은 피와 갯을 고이고 포와 과일을 진설하며 술은 빗지 않고 사서 사용한다. 성황당은 당집과 여섯 그루의 당목(堂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집은 시멘트 슬라브 건물로 당 안에는 ‘城隍 神位’라고 쓴 나무 위패를 모시고 있다. 고사는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지내며,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燒紙)를 올리고 당 밖으로 나와 당목에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 홍영희 씨가 출타하여 축문을 볼 수가 없었다. 동네 노인들은 해가 갈수록 고사에 참여하는 가구수가 줄어들고 고사의 내용도 간소화되어 간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 龍岩2리 社林의 堂告祀

용암2리는 천주교 성당을 중심으로 용소막 마을과 바로 이웃해 있는 사림(社林)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소막 마을은 50여 가구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가구가 천주교를 믿고 있으며 당고사를 미신으로 치부하여 참가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와 반대로 100여m 떨어진 사림은 전체 가구수가 25가구인데 모두 당고사에 참여하고 성황계(城隍契)에 가입해 있다. 제일(祭日)은 9월 9일 연 1회만 고사를 올리고 있다. 제관은 생기 복덕(生氣福德)하고 부정(不淨)이 없는 사람으로 선출하여 고사를 주관하는데, 올해에는 김시익(61세)씨가 제관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유사라 하

지 않고 공양주(고양주)라 칭하는 분이 제물을 마련한다. 제수비용은 성황계가 조직되어 있어 성황계의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로 제수 비용을 마련하고 돈이 모자랄 경우 조금씩 각출하는데 1993년 10월 15일에는 1만원씩을 걷었다. 성황계돈은 현재 30만원 정도가 예치되고 있으며, 성황계돈을 빌려 줄 때에는 차용증을 쓰는데 다음과 같다. “一金二十九萬圓整 상기 금액을 서기 1993년 음 10월 2일자로 차용함. 년 2부로 함. 차용인 강대봉 보증인 신재경 원주군 용암 2리 당뒤” 제물은 돼지머리 백설기 과일 포 탕을 올리며 술은 예전에는 빚어 사용하였으나 요즈음은 사서 사용한다고 한다. 백설기는 한 말을 하는데 공양주가 세 되를 가지고 제당에 올릴 떡을 하고 나머지 일곱 되는 동네 주민들이 나누어 먹기 위해 따로이 한다. 삼일 전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 성황당과 당목(堂木)에 금줄을 치고 9월 9일 식전에 청소를 한다. 성황당은 당집과 당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집은 2~3평 규모로 시멘트와 스테트로 이루어졌다. 당집에는 ‘城隍 神位’라고 쓰인 위패를 아크릴 판으로 만들어 전면(前面)에 모셔놓았다. 고사는 4시부터 5시 사이에 지내며 잔 올리고 절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당 밖으로 나와서 5그루의 당목에 모두 잔을 드리고 절을 한 것으로 고사를 마감한다. 축문은 한글로 써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년 9월 9일 고양주 ○○○ 근계 ○○○년 구일절을 맞이하여 성황영신님께 높으신 은덕으로 추모하는 마을으로 고하나이다. 지난 해의 평안함을 이루어 주셔서 감축하오며, 금년에도 당계원가가호호의 가내 평안과 태평과 풍작을 이루어 주옵소사 하고 간소한 제례를 올리오니 성황영신님께서 평안히 흥향하옵소소. 서기 1994년 음 9월 9일”



<사진8> 용암리 탑골 서낭당

-龍岩 2里 탑골 堂告祀

탑골이라는 명칭은 예전에 마을 뒤편에 탑이 있었던 것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이 탑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옮겨 갔다고 한다. 또한 마을 앞편을 흐르는 냇가에 20여m에 걸쳐 용 모양의 바위가 있어 용암리(龍岩里)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길을 닦는 와중에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다. 현재는 구인암과 백련암 두

절을 포함한 15가구가 있고, 당고사에 참여하는 집은 10가구이다. 교회에 다니는 집은 참석치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사에 참여하고 있다. 제일은 3월 3일과 9월 9일 연 2회에 지내며, 올해는 제수 비용을 구인암에서 내서 제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공양주는 따로이 선정하지 않고 반장택에서 매년 마련하는데 손기준 씨의 부인이 반장을 보고 있다. 당집은 2~3평 규모로 시멘트와 스텔트 지붕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집 주위에는 2그루의 당목이 있다. 고사는 4시부터 5시 사이에 지내며 제관은 젊은 사람들이 전무하고 점점 주민들의 관심이 희박해져 몇 년 안계원(72세), 유필호(53세) 씨만이 지내고 있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과일 포 술을 올리며, 축문은 읽지 않는다고 한다. 당집에서 제를 마치고 당 밖에서 당목에 술을 올리는 것으로 고사를 마친다.

- 九鶴里 선학동의 堂告祀

용암2리와 경계하고 있는 마을로써 전체 가구수가 20여 가구이다. 마을 가운데에 교회가 들어서 있으나 17가구가 당고사에 참여하고 있어 아직까지 외래 종교에 의해 민속이 배척되지 않고 있으나 마을 노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매년 9월 9일 1회에 걸쳐 당고사를 지내며, 올해는 최용해(71세)씨가 제관을 보고 이상진(70세)씨가 공양주가 되었다. 제수 비용은 쌀로 거두는데 백미 5작(작은 되로 5되)을 거두며 모자라는 금액은 동네 기금에서 보충한다고 한다. 제물은 백설기와 돼지머리, 과일 포를 놓는데 술은 예전에는 누룩으로 빚어 당 주변에 묻어 두었다가 고사를 드리기 직전에 걸러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서 지낸다고 한다. 시간은 4시부터 5시 사이에 지내고 있다. 당집은 2~3평 규모의 스텔트 지붕으로 당집 주위에는 3그루의 당목이 있다. 당집 안에는 '白雲山城隍靈神 神位'라는 신위가 전면에 놓여져 있고 한지와 북이 놓여져 있다.



<사진9> 구학리 석동 당숲

- 九鶴里 석동·방학동 堂告祀

이곳은 한 곳의 당을 두고 두 마을이 나누어서 방학동이 3월 3일에 당고사를 지내

고, 석동은 9월 9일에 지내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범구(75세)씨의 말로는 예전에는 구학리 5개의 자연부락 주민들이 모두 참석하여 소를 잡을 정도로 큰 고사였다고 한다. 올 고사는 이범구 씨가 제관이 되고 공양주는 반장택에서 맡아 제물을 장만하였다고 한다. 제수 비용은 백미 1말씩을 걷고 쌀을 내지 않는 경우 돈으로 환산하여 낸다고 한다. 제물은 올해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았고 백설기와 포 과일 탕을 진설하였다고 한다. 당집은 큰 당숲을 이루고 있는 중간에 위치하며 금줄을 쳐 놓았다. 특이한 것은 다른 곳이 당집과 당목만이 있는데 반해 이곳은 당목 사이에 돌로써 제단을 쌓아 석축(石築)이 있다. 당집은 2~3평의 목조 스레트 집으로 문이 없이 삼면 만이 막히고 정면은 개방되어 있다. 당집 안에는 나무로 깎은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白雲城隍 神位’라고 쓰여져 있다. 고사는 제관이 술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후 축관이 축문을 읽는데, 올해 축관은 이병도(50세) 씨가 맡았다. 소지를 올리고 나서 당 밖으로 나와 돌로 쌓은 제단에 나와 당집에서 드린 고사와 똑같이 제를 올리는데, 이범구 씨의 말로는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고 한다. 산신제를 끝으로 고사를 마치고 고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원주시 역사와 문화유적』(원주시, 1997)에도 신림면 마을제와의 관련한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 신림면 성남리와 송계리 두 곳의 마을신앙이 보인다.¹⁾ 다만 성남리 및 송계리 가운데 어느 자연마을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성남리의 경우 제일에 대한 오기(誤記)도 보인다. 『원주시 역사와 문화유적』에 수록하고 있는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제일	제당과 제단	제관	제의	제물	기타
성남리	6 월 과 12월 택 일		생 기 복 덕 으로 유사 선정			
송계리	정월 14 일	함석지붕 한 평 넓 이 위패 없음		유교식	- 돼지머리 - 제주는 항 아 리 를 묻어 직접 담 갓 으 나 소주를 올 림	- 20세 이상 개인 소지 - 소야, 신목, 도용 에서도 서낭제 지냄 - 황둔은 서낭당 소실 - 음력 정월 14일 과 9월 9일에 지 냈으며, 밤12시 경 유교식으로 지냄

<표1> 『원주시 역사와 문화유적』 수록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1) 김의숙의 『강원도민속문화론』(집문당, 1995)에도 동일하게 수록하고 있다.



<사진10> 구학리 황학동 당숲

- 또한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1997)은 1967년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해당 지역의 마을제의를 조사한 것이다. 당시 신림면 구학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설문지 양식에 맞추어서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마을제당』에서 신림면의 경우, 구학리 황학동과 석동의 동제가 보인다. 『한국의 마을제당』에 기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제일	신격	제당과 제단	제관	제의	제물	기타
구학리 (황학동)	비가 오지 않을 때	구 학 산 산신령	초가1평 위패 돌 무 더 기 제단	제 관 1 명, 축관1명	진설, 고 축, 배례, 음복	제매, 돼지 비용 - 4천 원(가출)	기 우 제
구학리 (석동)	3월 3일 9월 9일	백 운 산 산신령	초가1평 위패 돌 무 더 기 제단	제 관 1 명, 축관1명		술, 백설기, 우육, 과일 비용-5천원 (마을계)	

<표2> 『한국의 마을제당』 수록 신림면 구학리 황학동과 석동 마을제의

- 신림면 황학동과 석동은 각각 ‘구학산 산신령’과 ‘백운산 산신령’을 모시고, 초가 한 평의 당집과 돌무더기 제단이 있었으며, 황학동은 기우제로, 석동은 산신제의 형태의 마을제의로 기록되어 있다.
- 『원주시사』(원주시, 2000)에도 원주시 관내의 7~8개 마을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신림면은 성남리 윗성남, 용암리 사림, 구학리

선학동, 구학리 석동과 방학동 등의 마을제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다만, 여기서는 성남리 윗성남 마을제회는 부록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용암리 사람, 구학이 선학동, 구학리 석동과 방학동의 마을 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 용암(龍岩) 2리 사림(社林) 성황

용암2리 천주교성당이 있는 용소막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사림은 전체 가구 25가구가 모두 성황계에 들어 성황제를 지낸다. 9월 9일 연 1회의 고사를 지내는데 제관은 그해 부정이 없는 사람을 정한다. 이 마을에서는 제물을 마련하는 등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공양주라 부르며 불교계의 용어를 쓰고 있다. 제수의 비용은 성황계 이자자로 마련하나 비용이 모자랄 때는 집집마다 조금씩 각출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백설기, 과일, 포, 탕을 진설한다. 백설기는 한 말을 하는데 세 되를 가지고 제당에 올릴 떡을 하고 나머지 일곱 되는 동네 주민들이 나누어 먹기 위해 따로 찐다. 성황당과 당목에는 3일 전에 금줄을 친다. 고사는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 지내며 헌작, 독축, 소지의 순으로 진행하며 당 밖으로 나와서 다섯 그루의 당목(堂木)에 모두 술을 올리는 것으로 고사를 마친다. 당집은 3평 규모의 시멘트벽과 스테트지붕 구조이며 ‘성황신위(城隍神位)’라는 위패를 모셔놨다.

- 구학리(九鶴里) 선학동 성황

선학동은 전체 가구수가 20여 가구인데 이중 17가구가 당고사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9월 9일 구중일(九重日)에 고사를 지낸다. 제관과 공양주는 부정이 없는 생기복덕한 사람을 정한다. 제수 비용은 그해 마다 거두는데 대개 쌀 반말 정도씩을 가구마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마을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물은 백설기와 돼지머리, 과일, 포를 진설한다. 6.25전만 하더라도 제주는 공양주가 누룩으로 빚어 당 주변에 묻어 두었다가 고사를 지내기 직전에 걸러 사용했다고 한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 치른다. 헌작, 독축, 소지의 순으로 진행한다. 당 건물의 규모는 3평 시멘트 벽에 스테트 지붕을 얹었다. 당 주변에는 세 그루의 당목이 있고 당 안에는 ‘백운산성황영신신위(白雲山城隍靈神神位)’라는 위패를 모셨다.

- 구학리(九鶴里) 석동 방학동 성황

구학리의 석동과 방학동은 한 곳의 성황당을 두고 두 마을이 나누어서 방학동은 3월 3일, 석동은 9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전에는 구학리 5개의 자연부락 주민이 모두 참석하여 소를 잡을 정도의 고사였다고 한다. 제수 비용은 쌀 한 말씩을 걷고 제물은 돼지머리와 백설기, 포, 과일, 탕을 진설한다. 당집은 3평의 목조 스테트 구조로 문이 없이 삼면만이 막히고 전면은 열려 있다. 당안에는 나무로 깎은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위패에는 ‘백운성황신위(白雲城隍神位)’라고 쓰여져 있다. 당과 당목사이에 돌로서 제단을 쌓은 석축물(石築物)이 있다. 고사는 헌작, 독축, 소지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 고사가 끝나면 돌 제단에 나와 당 고사와 똑같은 제사를 다시 올린다. 마을 사람들은 돌제단에서의 제사를 산신제(山神祭)라고 이른다.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에는 신림면 윗성남 당고사를 조사한 내용이 보인다. 한편, 원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한 마을 제당 전수 조사는 『문화유적분포지도』(원주시, 2004)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원주시 관내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 제당도 조사 범주에 포함되었다. 당시 원주시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90여 개 마을 제당을 조사해서 기록하였으며, 마을 제당을 중심으로 마을 제의와 관련한 내용도 일부 조사해서 수록하고 있다. 다만, 제당의 내부와 외부의 형태, 위치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주시 및 신림면 마을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하고 있는 신림면 일대의 마을 제당 24곳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제일	신격	제당과 제단	제의	제물	기타
성남리 절골			기와지붕에 당집 내부 전면 제단과 위패			
금창리 가리파	3/3 9/9	서낭신	초가지붕의 목조 건물에서 조립식 건물로, 내부 제단에는 ‘白雲山城隍神位’라고 쓴 돌비석의 위패			1980년대 성황계 조직
금창리 예찬이	3/3 9/9	산신, 서낭신	가장 높은 당을 ‘신령당’이라 부르고 산신을 모심, 마을 중간과 입구에 서낭당이 위치, 자연석으로 기초를 닦고, 나무 기둥을 세운 뒤 합석으로 지붕을 덮은 한 칸자리 맞배지붕임, 위패는 중당에만 ‘白雲山城皇之位’만 써 있음	생기 복덕에 따라 제관 선정	제물은 각각 세 뭇을 준비	
금창리 둔창	3/3 9/9		5곳에 마을 제당이 있었으나 마을 뒷산에 있는 신령당과 마을 가운데 서낭당이 있음, 신령당에는 자연석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제단 상부에 ‘白雲山神靈神位’라 쓰인 위패가 있음, 마을 내부에는 ‘서낭당’, ‘동네당’이라 부르며 내부에는 ‘白雲山城隍神位’라 쓴 위패가 있음	성황계 계원 가운데 제물을 준비 할 ‘유사’와 제관, 축관 선정	신령당에서 먼저 지내고 원하는 주민들 가운데 자율적으로 서낭당에 정성을 드림	
신림리 싸리치	3/3 9/9		고개 정상에 있었으나 20여 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옮김	계원 중 부정하지 않은		금옥동에서 가리파 마을

				사 람 을 제 관 으 로 선정 하 였 으 나 성 황 계의 계 장이 제 관을 말 음		과 함께 성 황 계 를 조직
신림리 금옥동	3/3 9/9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생 기 복 덕을 봐 서 제관 선정	서낭과 마 을길 입구 에 금줄을 치고 마일 입구에 붉 은 황토를 세 무 더 기 놓아둠.	
신림리 마지동	3/3 9/9	서낭신	내부에 ‘城隍之神位’라 쓰인 위패를 모심			15년 전 에 벽돌 과 시멘 트로 개 축. 예전에는 당 숲 이 무성했으 나 전답 으로 바 뀌고 신 림톨게이 트로 더 줄음
신림리 역골		산신, 서낭신	산신은 서낭당으로 구성, 산신은 특별한 신체 없이 전나무를 위하고, 서낭당은 한 칸의 맞배 지붕임, 내부 에 위패는 없음			
성남리 웃성남	4/8 9/9	서낭신	당집 주위에 엄나무외 전나 무, 나무기둥에 기와를 올 린 맞배지붕집, 제단에는 ‘上城隍之神’이라 쓴 위패가 있음			1962년 천연기념 물로 지 정
성남1 리 아랫성 남	4/8 9/9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고 송판으로 벽면을 한 칸자리 맞배지붕 당집,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위패가 있음	생 기 복 덕을 봐 서 제관 선 정 하 였 으 나	마 을 기 금 으로 제물 준비	도 로 로 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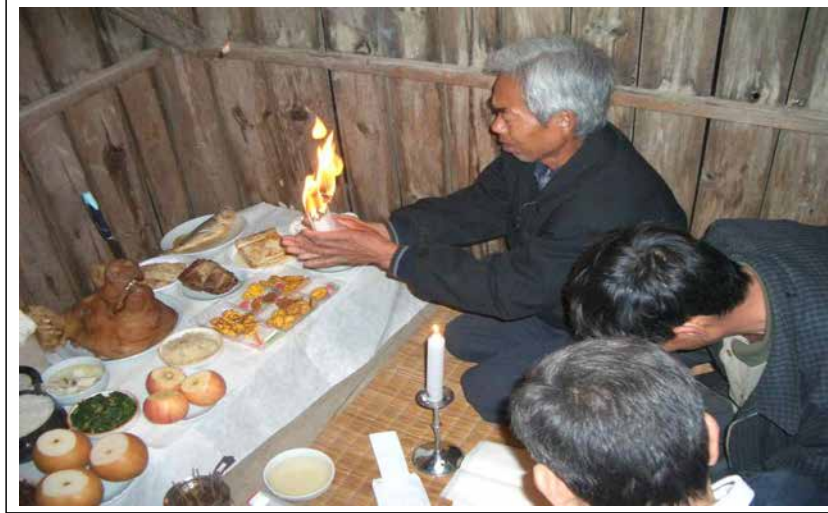
				반 장 이 대 신 하 고		
성남리 가둔지	4/8 9/9		엄나무 아래 자리한 한 칸의 목조건물로 나무기둥에 흙벽돌을 만들어 쌓아 채우고 시멘트를 바름, 내부에 위패가 없음			
구학리 황학동	3/3		산지당, 동네당, 서낭당이 삼각 형태로 분포, 산지당은 소나무로 지은 한 칸의 당집이며 ‘九鶴山山神位’라 쓰인 위패가 있음, 동네당은 황학천 옆에 있으며 송관으로 지은 맞배지붕임	산 제 당 에 서 의 제 사 가 끝난 후 서 낭 당 에 내려 와 서 낭 제를 지 냄. 백 운 과 경 계 에 있는 돌 배 나 무 를 서 낭 으로 위 함		
구학리 방학동, 석동	3/3(방 학동) 9/9(석 동)		두 그루의 엄나무를 사이에 두고, 자연적으로 쌓아 돌담을 만들고 천지당으로 함. 서낭당은 한 칸짜리 맞배지붕으로 당집 내부에는 ‘白雲城皇神位’라 쓴 위패가 있음			
구학리 선학동	9/9일 에서 3/3일 로 변경		마을 입구 느티나무와 시무나무 당숲 가운데 자리함, 송관 지붕 위에 슬레이트를 덧댄 한 칸의 목조건물, 내부에는 ‘白雲山城隍靈神神位’라 쓴 위패가 있음			
용암리 갈밭골	정월 14일	산신, 서낭신	나무로 기둥을 하고 슬레이와 합판으로 벽면을 만들었으며, 지붕도 슬레이트임, ‘山靈之神位’, ‘城隍之神位’라고 쓴 위패가 있음			한국전쟁 때 소실 된 것을 20년 전 에 새로 지음.
용암리 탑골	3/3 9/9		청기와를 올린 목조 건물, 내부에는 ‘城隍之神位’라 쓴 위패가 있음, 서낭당 앞에	서 낭 당 에 서 의 제 사 가		2003년 개축

			는 수부로 한 그루의 업나무가 서 있음	끝나면 제물을 들고 나와서 수부 앞에 진설하고 수부제사를 올림.		
용암리 사림	9/9	서낭신	푸른 기와지붕에 나무기둥을 세움, 당집 내부에는 ‘城隍神位’라 쓰인 위패가 있음			2003년 개축
용암리 선덕동	3/3, 9/9일 두 차례에 서정월 보름으로 변경	산신	바위 위에 한 칸자리 당집이 있음, 내부에는 20여 년 전 선덕사에서 모시던 산신도를 받아와 내부에 모심, 산신당과 서낭당이 따로 있었음			
황둔리 장촌	정월 보름	서낭신, 산신	초가지붕 대신 기와를 올리고 송판외벽 대신 시멘트로 마무리, 당집 내부에는 ‘城隍之神’, ‘梅峰之神’이라고 쓴 위패가 있음			2003년 개수
황둔리 소야	정월 보름 9/9	서낭신	시무나무숲 안에 위치 송판으로 지은 한 칸짜리 맞배지붕 집 정면과 왼쪽 벽면에 제단 설치 중앙 벽에 ‘城隍之神位’라는 목조 위패			서낭당이 두 곳이었으나 화전민정리 이후 한 곳만 지냄
황둔리 물안동	정월 보름	산신, 서낭신	물안천변에 위치하며, 나무기둥과 판자로 사면의 벽을 막고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한 칸 당집. 내부에는 ‘山靈之神’, ‘城隍之神’ 위패가 있으나 보이지 않음			2003년 개수
황둔리 평촌	정월 보름과 10월 보름에 지냈음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한 칸의 맞배지붕			2002년 신축

	나 10월 보름에 만 지냄					
황둔리 제사동	10월 중 택일	감악산 신	슬레이트 지붕의 한 칸 목 조건물, 내부에는 ‘橄岳山神 之位’라 쓴 위패가 있음			
송계리 도용	정월 보름		한 칸자리 목조건물이며, 나무로 기둥을 하고 짚을 섞은 흙벽에 회칠함.	10월 보름 마 을 회의 를 통해 예산 책 정 생기 복 덕을 봐 서 도가 와 축관 선정		정면 좌 측 하단 부에 1978년 9월 준공 기록

<표3> 『문화유적분포지도』 수록 신림면 일대 마을 제당

- 이어서 이소래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은 신림면 일대 47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25개 마을의 마을제의를 조사 정리하였다.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은 기존에 조사한 문헌자료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 신림면 일대 특히 금창리 가리과, 성남리 윗성남,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등의 마을제의 전승 실태를 살펴보고, 신림면 일대 전승하는 마을제의의 성격을 제의의 명칭과 유형, 제의의 유래와 목적, 제일, 신격, 제장, 제비와 제물, 제의 절차, 부정과 금기, 음복과 대동회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또한 2000년대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의 지속과 변화 등도 제시하였다.



<사진11> 황둔리 물안동 서낭제(2005.02.22)

- 다만 학술 논문이기에 금창리 가리파 등 3개 마을 외에 진행한 마을제회에 대한 전모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에 수록한 25개 마을의 마을제회를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	제의 명칭	제일	신격	제당 위치	제당 형태	제물	제의 절차
가리파	당고사	3/3,9/9	백운산신, 치악산신	가리파와 싸리치 정상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헌작, 고축, 소지, 퇴송, 음복, 회의
예찬이	당고사	3/3, 9/9	산신, 성황	마을 뒷산, 중앙, 입구	당집 3곳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청수	헌작, 고축, 소지, 음복
둔창	산신제	3/3, 9/9	산신	마을 뒷산	둘레제단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2잔)	헌작, 고축, 소지, 음복, 결산
금옥동	당고사	3/3, 9/9	서낭	마을 입구	은행나무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밀전, 두부	헌작, 고축, 소지, 음복
역골	산신제	1/15	산신, 서낭	마을 뒷산	전나무,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무채	부정풀이, 헌작, 고축, 소지, 퇴송, 음복, 결산
마지동	성황제	3/3,	서낭	마을 뒤	당집	돼지머리,	헌작, 고축,

		9/9				떡, 탕, 과일, 술, 메, 조기	소지, 음복
갈밭골	서낭고사	1/15	산신, 성황	마을 뒷산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헌작, 고축, 소지, 음복
사림	당고사	9/9	성황	마을 입구	당집, 수부	돼지머리, 떡(2시루), 탕, 과일, 술	헌작, 고축, 소지, 수부 제사
탐골	성황제	3/3, 9/9	성황	마을 입구	당집, 수부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나물, 청수	헌작, 고축, 소지, 수부 제사, 음복
선덕동	당고사	1/15	산신	마을 뒷산	당집, 수부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청수, 무나물	헌작, 고축, 소지, 수부 제사, 음복, 결산
선학동	성황제	3/3	성황	마을 중앙	당집, 수부	돼지머리, 떡(2시루), 탕, 과일, 술, 쌀	헌작, 고축, 소지, 토지 지신제사, 음복
방학동	당고사	3/3	천지신, 성황신	마을 입구	돌탑, 당집, 수부	돼지머리, 돼지 내장, 돼지 갈비, 떡, 탕, 과일, 술	헌작, 고축, 소지, 수부 제사, 음복, 회의
석동	서낭제	9/9	천지신, 성황신	마을 입구	돌탑, 당집, 수부	돼지머리, 돼지 내장, 돼지 갈비, 떡, 탕, 과일, 술, 청수	부정풀이, 헌작, 고축, 소지, 수부 제사, 음복, 회의
황학동	서낭제	3/3	산신, 성황신, 서낭	마을 뒷산, 중앙, 입구	돌탑, 당집, 전나무	돼지머리, 떡(3세루), 탕, 과일, 술	헌작, 고축, 소지, 음복
절골	산신고사	3/15, 9/15	산신	마을 뒷산	당집, 수부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 나물, 한과	부정풀이, 헌작, 고축, 소지, 수부 제사, 음복, 회의
윗성남	당고사	4/8,	성황신	마을	당집,	돼지머리,	부정풀이,

		4/9		입구	수부	떡, 탕, 과일, 술, 메, 나물	헌작, 고추, 소지, 수부제사, 음복, 회의
아랫성남	당고사	4/8, 4/9	성황신	마을입구	당집, 수부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	헌작, 고추, 소지, 수부제사, 음복
가둔지	당고사	4/8, 4/9	산신	마을입구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 나물	부정풀이, 헌작, 고추, 소지, 퇴송
축치동	당고사	3/3	서낭	마을입구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헌작, 고추, 소지, 음복
물안동	당고사	1/15	산신, 성황	마을중앙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메(2그릇), 술	헌작, 고추, 소지, 음복, 회의
창촌	당고사	10/15	산신, 성황	마을중앙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	헌작, 고추, 소지, 음복
평촌	당고사	10/15	서낭	마을중앙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청수	헌작, 고추, 소지, 음복, 회의
재사동	산신제	10월 택일	산신	마을입구	당집	메, 나물, 조기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헌작, 고추, 소지, 음복, 회의
소야	서낭고사	1/15, 9/9	성황	마을중앙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 전, 나물	부정풀이, 헌작, 고추, 소지, 수부제사, 음복
도용	서낭고사	1/15	서낭	마을중앙	당집	돼지머리, 떡, 탕, 과일, 술, 메	헌작, 고추, 소지, 음복

<표4>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수록 신림면 일대 마을제회

-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에는 2005년 2월 22일(음력 1월 14일) 신림면 황둔리 물안동 마을제회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내용이 마을 개관, 제당의 명칭과 형태, 동제 준비, 동제 진행, 영험담, 동제의 운영과 결산, 동제의 특징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마을제회에 대한 현황 조사

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원주시의 경우는 빠져 있다.²⁾

- 이어서 김인선의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1)에는 2011년 음력 4월 7일에 있었던 윗성남 마을제의 현장에 대한 조사 기록이 있으며, 이종우의 「강원도 영서 지역 마을의례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62호(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에도 2018년 음력 9월 9일 윗성남 마을 제의에 대한 참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두 논문은 주로 성남리 윗성남마을의 ‘성황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오창현 외 「강원도 원주 남부 백운치악산신제와 계문서」, 『장서각』 38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19)는 2015년 금창리 가리과 서낭제 참관 기록과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문서를 분석하고 있다.
- 한편, 2021년에 진행한 「원주시 관내 비지정문화재 조사 카드」에 의하면 현재 원주시 관내에 58개 마을에 마을 제당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림면의 경우 신림면 구학리 선학동 성황당, 황학동 성황당, 금창리 가리과 성황당, 둔창 성황당, 성남리 가둔지 성황당, 아랫성남 성황당, 주련골 성황당, 절골 성황당, 웃성남 성황당, 송계리 버들치 성황당, 도용 성황당, 신림리 마지동 성황당, 역골 성황당, 용암리 갈밭골 성황당, 사림 성황당, 탑골 성황당, 황둔리 평촌 성황당, 창촌 성황당, 물안동 성황당, 재사동 성황당, 소야 성황당 등 21개 마을의 마을 제당이 조사되었다.
- 위의 조사 내용을 원주시의 「원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와 이소래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과 대비하면 성남리 주련골과 송계리 버들치 서낭당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구학리 방학동, 금창리 예찬이, 금옥동, 신림리 싸리치 등 4곳의 서낭당은 자취마저 사라졌으며, 구학리 황학동, 금창리 둔창, 신림리 역골, 용암리 갈밭골, 황둔리 물안동 등에서는 마을제의를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암리 탑골의 경우 일 년에 두 번 지내던 것이 한 번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2) 이소래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에 물안동 당고사의 경우 ‘부정풀이’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의 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7)에는 참관 내용에는 부정풀이가 있었다.

3

신림면 마을제의의 형성 배경

-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신림면 일대 마을신앙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원주시 신림면 일대 마을신앙이 보이는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신림면 일대 마을신앙의 형성 배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려 한다.
- 원주시 신림면의 신림을 한자로 ‘神林’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신의 숲’, ‘신이 거주하는 숲’이라는 의미로 ‘신림(神林)’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주시 신림면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곧 신림면의 지명에서부터 신림면 일대 마을신앙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사진12> 치악산 산신제(2003년)

- 신림면은 치악산(雉岳山)과 백운산(白雲山) 사이에 위치한다. 면 전체를 남대봉(南臺峰), 구학산(九鶴山), 감악산(紺岳山) 등에 둘러 있어 전체 면적 가운데 77.7% 이상이 산지이므로 농경지는 극히 적은 지역이다.
- 마을제의와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신림면이 치악산, 백운산, 감악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치악산은 원주시의 진산이다. 차령산맥에 속하는 준령으로, 비로봉을 주봉으로 남쪽의 남대봉(南臺峰, 1,182m)에서 북쪽의 삼봉(三峰, 1,072m)에 이르기까지 능선의 길이가 24km에 달한다. 치악산은

조선시대 이래 국가 제사의 제장(祭場)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조에서 산천(山川)의 사전(祀典) 제도를 올렸다. … 강원도의 치악산(雉嶽山)·의관령(義館嶺)·덕진 명소(德津溟所)… 모두 소사(小祀)이니,³⁾

내시 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원주(原州) 치악산(雉岳山)의 신(神)에게 제사지내고, 호종(扈從)한 신하와 군사(軍士)들에게 3일 양식(糧食)을 주었다.⁴⁾

내시 별감을 보내어 치악산의 신에게 제사하다.⁵⁾

… 이제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오니, 다시 오악과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과 같이 기우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⁶⁾

… 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 원주의 치악산은 소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치악지신(雉嶽之神)이라 쓰며 …⁷⁾

소사(小祀), 영성(靈星)·명산 대천(名山大川)과 【치악산(雉嶽山)은 강원도 원주(原州)의 동쪽에 있고, …⁸⁾

주(州)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 지내기를 소사(小祀)로 한다.⁹⁾

예조에서 치악산(雉岳山)과 계룡산(鷄龍山)의 제례(祭例)와 축문식에 따라 정월·2월·7월에 설행할 것을 청하자, 윤허하였다.¹⁰⁾

- 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치악산은 조선시대 소사(小祀)로서 정기적인 국가 제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한편, 『성종실록』 297권 성종25년 12월 23일 기사에 보면, 성종은 병이 있자, 종묘와 사직은 물론 소격서와 경기 근처의 제장에서 기도를 마치고, “… 외방(外方)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도 겸하여 기도하도록 하소서. … 사의(司議) 박인(朴訥)을 치악산(雉岳山) · 동해(東海)에, …”¹¹⁾라고 해서 외곽의 명산대천에도 사신을 보내 쾌차를 기도하게 하는데, 치악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산8년 5월 4일에는 “향(香)과 축문(祝文)을 강원도 치악산(雉岳山) 등 여러 곳에 보내어 비를 빌게 하였다.”¹²⁾라고 해서 나라에

3)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8월 21일, “禮曹上山川祀典之制… 江原道 雉嶽山、義館嶺、德津 溟所, … 皆小祀.”

4)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윤9월 14일, “遣內侍別監, 祭雉岳之神.”

5) 『태종실록』 30권, 태종15년 9월 28일, “遣內侍別監, 祭雉岳之神”

6) 『세종실록』 8권, 세종2년 4월 27일, “至今不雨. 請還從嶽瀆如初.”

7) 『세종실록』 76권, 세종19년 3월 13일, “… 山川壇廟及神牌制度, … 原州 雉嶽山, 小祀, 祠廟位版, 書雉嶽之神

8) 『세종실록』 128권, 오례, “小祀, 靈星、名山、大川 【雉岳山, 江原道 原州東 …”

9)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名山曰雉岳, 【在州東, 春秋降香祝致祭, 小祀.】”

10) 『숙종실록』 38권, 숙종29년 7월 29일, “禮曹請遵雉岳、鷄龍等山祭例及祝文式, 以正月、二月、七月設行, 允之.”

11) 『성종실록』 297권, 성종25년 12월 23일, “… 外方名山大川, 司議朴訥于雉岳山、東海, …”

12) 『연산군일기』 44권, 연산8년 5월 4일, “送香祝于江原道 雉岳山等處祈.”

비가 오지 않자 치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치악산에서의 기우제는 세조1년 7월 3일과 세조7년 7월 19일에도 있었다.



<사진13> 치악제 굿판에 모신 치악산 백운산 산신(2003년)

- 한편 백운산(白雲山, 1,014m)은 원주시 판부면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치악산의 서쪽 줄기가 뻗어가다가 가장 높게 솟은 봉우리다. 감악산(紺岳山, 886m)은 원주시 신림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와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등에 걸쳐 있다. 백운산과 감악산 등지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으나, 이들 산들이 지니는 지명이 ‘제의’와 무관하지 않다.
- 원주시의 백악산은 아니지만, 백악산이라는 지명은 『삼국유사』에 소재한 단군신화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긴다. 여기서의 ‘백(白)’은 ‘밝다’, ‘하늘’ 등을 상징하는 지명으로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이는 감악산에서도 확인된다. 감악산의 ‘감’은 ‘검’, ‘곰’, ‘금’ 등과 마찬가지로 ‘신(神)’을 의미하는 고어이다. 양주동은 『증정고가연구(增訂古歌研究)』에서 “‘검’은 검 · 검 · 곰 · 금 등으로 호전(互轉)되는 신(神)의 고어로 왕의 고훈(古訓) 이질금(尼叱今)·매금(寐錦) 내지 상감(上監)에 잉용(仍用)되었다.”라고 해서 ‘검’을 ‘신’의 고어로 밝히고 있다. 곧 감악산도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치악산과 백운산, 감악산에 둘러 있는 마을이기에 ‘신(神)’이 들어가는 ‘신림’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

- ‘신(神)’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신림’이라는 지명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고려사』다. 고려 시대인 991년(성종11) 행정구역 개편에서 평구도에 속한 역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원주의 ‘신림역’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신림이라는 지명은 최소한 고려 시대부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평구도는 30개 역을 관장한다. … 단구(丹丘)·안양(安壤)·신림(神林) 【원주(原州)】 …등이다.¹³⁾

신림동에 있는 성황당. 큰 나무 숲 가운데 있는데, 매우 영검하여 정성을 드려 빌면 효험이 있고, 잘못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장난친다고 함. 社林 : 용소막 앞에 있는 마을. 앞에 장숲이 있음. 당숲: 사림 앞에 있는 숲. 시무나무가 울창한 곳. 성황당이 있었음.¹⁴⁾



<사진14> 신림면 성남2리 아랫당숲

- 신림(神林)이란 이름은 이 지역을 ‘신이 깃든 곳’으로 특별하게 신성시한 결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신림면 관내의 지명에 ‘신림골(神林-)’, ‘신림당(神林堂)’, ‘신산(神山)’, ‘신 산당(神山堂;큰당)’, ‘신숲(神-)’ 등이 보인다.¹⁵⁾ 곧 치악산과 백운산, 감악산이 둘러 있으며, 마을 내부에도 거대한 당숲들이 여러 곳

13) 『고려사』, 권82, 지 권제36, “平丘道掌三十. … 丹丘·安壤·神林 【原州】 ….”

1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편』, 1981, pp.305~306.

15) 김은철, 『원주지명총람』, 원주시, 2019, pp.286~287.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신숲’, ‘신림’, ‘신산’ 등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역이 들어서면서 ‘신림역’이라 하였고, 이후 이 마을을 지칭하는 ‘신림리’라는 행정명이 되었으며, 그것이 확장되어 ‘신림면’이 되었다.

- 현재 신림면에는 성남리 윗당숲과 아랫당숲, 구학리 석동당숲, 금창리의 문지기당숲(예천마을 입구), 신림리의 마지동 당숲, 당뒤 당숲, 신림당숲(현 신림치안센터 자리, 신림면 지명 유래가 된 숲으로 신림중학교 남쪽에 있는 신산까지 이어졌다고 함), 용암리 사림당숲 등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4

신림면 마을제의의 유형과 성격

4.1 신림면 마을제의 명칭과 유형

- 신림면 일대의 마을제의 명칭과 유형은 복잡하지 않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마을제의는 산신제와 서낭제, 장승제, 솟대제, 돌탑제, 우물제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마을에 따라서 상당과 하당 등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곳도 많다. 상당에는 신앙 대상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산신제’를 지내며, 하당에서는 ‘서낭제’, ‘장승제’, ‘솟대제’, ‘선돌제’ 등을 지낸다.
- 또한 한 곳의 상당에 2~5곳의 하당이 존재하는 마을들도 있다. 그러나 신림면 일대의 마을제의는 대체로 산신당, 서낭당[성황당] 거기에 ‘수부’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전부다. 장승, 솟대, 선돌, 돌탑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신림면 마을제의 명칭은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신림면 관내의 제당은 ‘서낭당[성황당]’과 ‘산신당’이라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의 경우 ‘천지당’이라는 제당 명칭이 보이나,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살펴보면 산신당과 동일하다. 그리고 제의의 명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고사’라 부른다. 일부 ‘당제사’라고도 하지만, 당고사라 부르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가운데 제의 명칭을 ‘당고사’라 부르는 마을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그리고 서낭제나 성황제, 산신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또한 당고사도 당제, 서낭제, 성황제, 서낭고사, 산신고사 등으로 불리며, 그 구

분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다. 당고사는 ‘당(堂)’에서 이루어지는 ‘고사(告祀)’를 가리키는 말이다. 곧 마을제의의 대상을 모셔놓은 곳에서 ‘말로 신(神)에게 알리고 제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진15> 금창리 예찬이 당숲

-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가운데 장승제나 솟대제, 선돌제, 우물제 등은 보이지 않는다. 부론면 일대의 장승제나 문막읍 일대에서 보이는 솟대제도 신림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금창리 예찬이, 신림리 역골, 구학리 황학동과 석동, 용암리 갈밭골, 황둔리 창촌, 물안동의 경우 산신당과 서낭당 곧 상당과 하당이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서낭당’이나 ‘산신당’을 중심으로 단일한 구조를 보인다.
- 곧 백운산을 자락에 위치한 마을과 감악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에서 상당과 하당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들에서는 단일한 구조를 지닌다.

4.2 신림면 마을제의 제일(祭日)

-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기에 농경과 관련한 시간을 제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일은 마을에서 전승되어온 관념에 따라서 그대로 전승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력이나 태음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마을제의 제일이 일 년에 한 번인 경우는 ‘정월 대보름’이 가장 많다. 또한 우리나라 마을제의 제일이 거의 음력 정월에 집중한다.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2004·2007)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력 정월에 마을제의가 있는 마을이 50% 이상이다.
-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41.7% 가까이 되는 마을에서 음력 정월에 마을제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지금까지 조사한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관련한 자료들을 토대로 제일(祭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일	마을
3월3일, 9월9일	가리파, 금옥동, 둔창, 마지동, 예천이, 탑골
3월 3일	축치동, 방학동, 선학동, 황학동
9월 9일	사림, 석동
9월 9일 다른 날(4월 8일)	윗성남, 아랫성남, 가둔지, 소야
3월 15일, 9월 15일	절골
정월	갈밭골, 도용, 물안동, 선덕동, 역골
10월	창촌, 형촌, 재사동

<표5>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제일(祭日)

- 이상과 같이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의 제일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신림면 일대의 제일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집중되어 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일 년에 두 번 모두 지내는 마을은 금창리(가리파, 둔창, 싸리치, 예천이)와 신림리(금옥동, 마지동), 용암리(탑골) 등이며, 음력 3월 3일 한 번만 마을 제의를 지내는 마을은 성남리(축치동)와 구학리(방학동, 선학동, 황학동) 등이다. 그리고 음력 9월 9일에 마을 제의가 있는 마을은 용암리(사림), 구학리(석동) 등이다. 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모두 마을 제의를 지내는 마을이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가운데 한 번만 지내는 마을도 전체의 24%이다. 그러

16) 전국적으로 마을 제의를 음력 정월에 지내는 곳은 충청북도(86.3%), 전라남도(84.5%), 경상북도(80%), 전라북도(79%), 충청남도(64.3%), 부산(63.9%), 제주(50.2%), 강원(41.7%), 경기(16.5%) 등이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음력 정월에 마을 제의를 지내는 곳이 많으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음력 정월에서 벗어나는 날에 마을 제의를 지낸다.

17) 2021년 「원주시 관내 비지정문화재 조사 카드」를 통해 제의가 중단된 마을들이 확인되었지만, 여기서는 중단된 마을들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나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한 차례 마을제의가 있는 마을도 원래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지내던 마을이 한 차례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신림면 마을 제의 전체의 48%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과 관련되어 있다.¹⁸⁾

- 음력 9월 9일과 다른 날짜(음력 4월 8일)에 마을제의가 있는 마을은 성남리(윗성남, 아랫성남, 가둔지, 절골)와 황둔리(소야) 등이다. 황둔리 소야마을은 음력 정월 보름과 9월 9일에 지낸다. 또한 성남리 절골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지내되,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이 제일이다. 이와 같은 마을들의 제일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과 무관하지 않다.¹⁹⁾
- 다만, 성남리 관내의 윗성남, 아랫성남, 가둔지 등은 음력 4월 8일과 9월 9일에 지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고, 대부분 불교 의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2004)에는 강원도내 음력 정월에 제일이 있는 마을은 41.7%이며, 3월이 제일인 마을은 7.5%, 9월이 제일인 마을은 9.6%, 10월이 제일인 마을은 8%로 정도였다. 또한 『산간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0)에는 음력 3월과 9월에 마을제의가 있는 마을이 25%였다.
- 특히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등 북부지역에서 3월과 9월 두 차례 마을제의를 지내고, 평창군, 태백시, 양구군, 고성군, 춘천시 등지에서는 3월에, 철원군과 화천군 등지에서는 9월에 마을제의를 지내는 마을들이 많다. 한편 강원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등지에서는 음력 정월에 마을제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원도의 마을제이는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3월과 9월이 제일이다.
- 원주시 일대 가운데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제의를 지내는 마을은 치악산과 백운산 일대 주로 원주시 동쪽에 치중되어 있다. 곧 신림면 비롯해서 판부면, 귀래면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원주시 서쪽에 해당하는 마을들은 대부분 음력 정월 초와 정월 대보름에 마을제의를 지낸다. 마을제이가 음력 3

18)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은 이웃한 당숲을 서로 공유하는데 방학동에서는 음력 3월 3일, 석동은 9월 9일에 동제를 지낸다. 또한 구학리 선학동의 경우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동제를 지냈으나, 제비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3월 3일에만 지낸다.(이소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 p.66 참조.)

19) 음력 정월보름에 동제를 지내는 용암리 선덕동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동제를 지내다가 정월 보름으로 변경하였으며, 황둔리 창촌마을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동제를 지내다가 음력 정월 대보름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10월로 변경하였다.(이소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 p.66 참조.)

월과 9월인 마을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마을들에 해당한다.

4.3 신림면 마을제의 제당(祭堂)과 제단(祭壇)

- 마을제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제의를 제장(祭場)인 제당이나 제단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당과 제단이라고 하면 “신이 내리는 곳, 또는 신이 머무르는 곳”이다. 제당과 제단은 마을제의를 진행하면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마을에서 모시는 신의 축복을 균등하게 받는 곳이다. 따라서 제당과 제단은 제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며,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들의 삶의 공간에서 격리된 곳이다.



<사진16> 구학리 선학동 당숲

- 신림면 일대에서는 ‘서낭당’과 ‘산신당’을 중심으로 ‘당숲’이 형성되어 있다. 당숲을 ‘성황림’, ‘성황숲’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당숲’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를 진행하는 마을들은 일부 당숲이 소실된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당숲이 위치해 있다. 울창한 숲 형태의 당숲도 있지만, 몇 그루의 나무만 있어도 당숲이라 부른다. 그리고 당숲을 신성한 곳이라 여긴다. 심지어 당숲 나무는 부러진 가지라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숲에 있는 나무를 훼손에서 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설로 전한다.

구분	금창리	신림리	성남리	용암리	구학리	황둔리	송계리
자연물		1					
당집	2	1	5	4	1	5	1
자연물+ 당집	1	1			3		

<표6>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제장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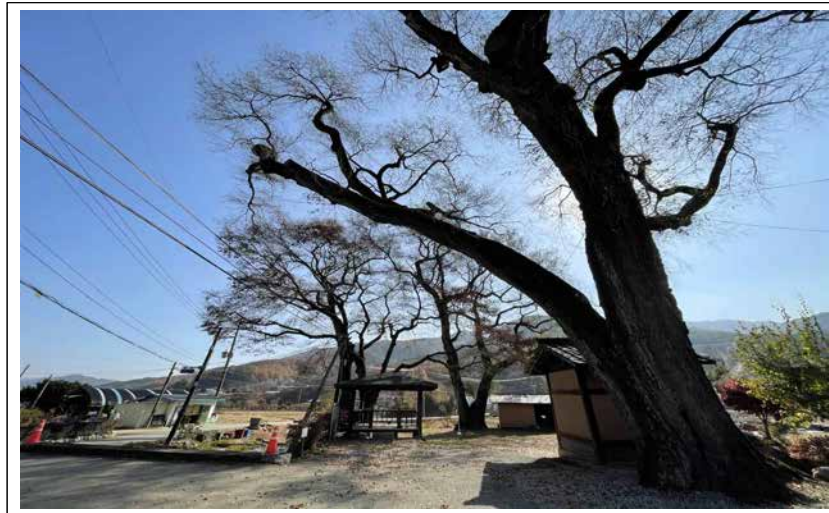
-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제장은 크게 자연물, 당집, 그리고 자연물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신림면 신림리 금옥동의 경우 지금은 마을 제의가 중단되었지만, 마을 입구에 있던 소나무를 제장으로 하였다. 금옥동에 있는 소나무 제장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에 ‘수구막이’와 마을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진17> 서낭당 개축 이전의 윗성남 당숲(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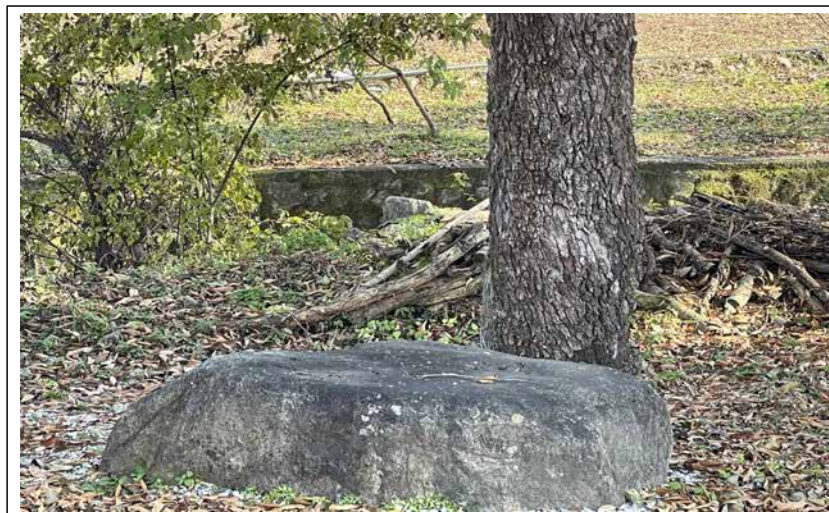
- 그러나 신림면 일대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 대부분은 목조 건물 형태의 ‘당집’이 소재해 있다. 그리고 마을의 제당을 일반적으로 ‘산신당’과 ‘서낭당[성황당]’이라 부른다. 신림면 일대의 당집은 새롭게 옮겨 건축한 금창리 가리파를 제외하고는 당집 내부에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당집의 형태는 맞배지붕이며, 당집 옆으로는 나무와 바위 등 일명 ‘수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당집 내부에는 신격을 상징하는 위패가 놓여 있다.
- 또한 자연물과 당집의 복합형태인 곳은 신림리 역골, 금창리 둔창,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등이다. 자연물과 당집의 복합형태는 다시 당목(堂木)과 당집이 결합

된 형태와 자연석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로 구분된다. 신림면 신림리 역골이 당목과 당집과 결합된 형태이고, 금창리 둔창과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등이 자연석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다.



<사진18> 구학리 선학동 당숲과 계곡

- 제장의 위치는 계곡 옆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마을 제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당 옆에 흐르는 계곡에서 목욕제계를 하기도 했으며, 계곡물로 신주를 담그고,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사진19> 용암리 탑골 수부 제단

- 또한 신림면 일대 마을 제의 제장에는 일반적으로 ‘수부’라고 부르는 제단이 따

로 위치해 있다. ‘수부’는 잡신을 막고, 주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수부는 나무, 바위, 서낭당 내부 별도 제단 등 다양하며, 마을에서 모시는 주신의 하위 신격으로 여긴다. 그리고 당집 내부에서의 제의가 모두 끝나면 수부 앞에 당집 안에 진설되었던 일부 제물을 옮겨와 ‘수부제사’를 지낸다. 수부 단에서의 제사에는 별도의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다. 제주도 단 잔만 올리고, 배례도 한 번만 한다.

- 신림면 용암리 사림마을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용암천 앞에 당숲이 위치하며, 당숲 가운데 서낭당이 있다. 그리고 서낭당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수부로 부르는 사시나무 두 그루가 있다. 용암리 탑골은 마을 입구에 당숲이 있고, 당집 앞에 있는 미루나무가 수부다.²⁰⁾ 선독동은 당집 앞에 바위가 수부다.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은 제당 옆 팔배나무가 수부이다. 성남리 절골은 제당 앞 소나무, 윗성남은 제당 옆 엄나무다.
- 한편 황둔리 소야는 서낭당 내부에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진설하는데, 정면 제단에는 서낭신을 모시고, 오른쪽 제단에 수부를 모신다. 또한 구학리 선학동은 서낭당 앞 공터에 열십자로 짚을 깔고, 그 위에 떡을 올리며 ‘터주지신’ 제사를 지내며, 성남리 싸리치는 서낭제를 지낸 후 소지를 올릴 때 서낭소지와 토지지신(土地之神) 소지를 따로 올린다.

4.4 신림면 마을제의 신격(神格)

- 일반적으로 마을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들의 신격(神格)은 구체적이지 않다. 신을 막연하게 당신, 서낭님, 산신님 등으로 부른다. 다만 신림면 일대 마을 제의에서 모시는 신격을 당집 내부에 모셔 놓은 위패와 축문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현재 신림면 일대 마을 제의의 신격에 대해서는 이소래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이 거의 유일하다. 이를 토대로 신림면 일대 마을 제의의 모시는 신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리	자연마을	위패	축문
금창리	가리과	白雲山城隍神位	白雲山城隍尊靈

20) 사림마을 서낭과 탑골 서낭은 서로 부부지간이라고 한다. 탑골 서낭은 할머니이고, 사림마을 서낭은 할아버지로 인식한다.

	예찬이	白雲山城隍之位	산령지신, 성황지신
	둔창	白雲山城隍神位	白雲山城隍
성남리	가둔지	城隍神位	없음
	아랫성남	없음	없음
	윗성남	上城隍之神	上城隍之神
	절골	永保世上人口等 總司林山禽獸類	寺洞山神
	싸리치	雉岳山城隍 神位	雉岳山城隍尊靈
신림리	금옥동	없음	없음
	역골	없음	山川尊靈, 城隍大神
	마지동	城隍之神位	성황지신
구학리	선학동	白雲山城隍靈神 神位	白雲山城隍靈神
	방학동	白雲城隍神位	城隍靈神
	석동	白雲城隍神位	城隍靈神
	황학동	九鶴山山神	없음
용암리	선덕동	山神圖	山靈
	사림	城隍神位	없음
	탐골	城隍之神位	없음
	갈밭골	山靈之神位, 城隍之神位	없음
황둔리	소야	城隍之神位	城隍之神
	재사동	紺岳山神靈神位	紺岳山神靈
	평촌	雉岳山城隍神位	성황님
	창촌	城隍之神, 梅峰之神	雉岳山城皇之神
	물안동	山靈之神, 城隍之神	山靈之神, 城隍之神
송계리	도용	없음	없음

<표7>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 신격

-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림면 마을제의에서의 신격은 ‘산신’과 ‘서낭신’에 집중되어 있다. 산신만 모시는 마을은 성남리 절골, 구학리 황학동, 용암리 선덕동, 황둔리 재사동이며, 서낭신만 신격으로 모시는 마을은 성남리 가둔지, 윗성남, 신림리 마지동, 용암리 사림, 탐골, 황둔리 소야 등이다. 그리고 산

신과 서낭신을 같이 모시는 마을은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선학동, 금창리 예찬이, 황둔리 평촌, 창촌, 물안동, 금창리 가리파, 둔창, 용암리 갈밭골 등이다.

- 신림면 남동쪽 지역인 금창리, 구학리 일대에서는 신격은 ‘백운산신’이 많으며, 치악산이 있는 북서쪽인 성남리, 황둔리 일대에서는 ‘치악산신’이 신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황둔리 물안동과 창촌에서는 ‘매봉산’, 재사동에서는 ‘감악산’, 구학리 선학동과 황학동에서는 ‘구학산 산신’을 신격으로 모신다. 곧 신림면 일대의 신격은 백운산과 치악산 산신과 마을 인근에 위치하는 매봉산, 구학산, 감악산 등 치악산과 백운산 지맥에 해당하는 산들이다.
- 한편 산신과 서낭신을 각각 모시는 마을도 있다. 두 신을 모시는 경우에는 한 제당에 두 개의 위패를 모시거나, 각자 다른 제당을 지어놓기도 한다. 한 제당에 두 개의 위패를 모신 곳은 신림리 갈밭골, 황둔리 물안동, 창촌이며, 별 개의 제당이 있는 곳은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신림리 역골, 금창리 예찬이 등이다.
- 또한 산신과 서낭신이 결합된 형태의 신격도 존재한다. 금창리 가리파와 예찬이, 둔창마을의 경우 ‘白雲城隍神位’ 또는 ‘白雲山城隍神位’라고 쓴 위패를 모신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백운산의 서낭신’과 ‘백운산 산신이 서낭신’이라는 것으로 백운산 산신과 서낭신을 동일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5 신림면 마을제의 제물(祭物)

- 제물(祭物)은 마을신의 신격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고 조리하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적인 마을제의에서 신찬(神饌)과 신폐(神幣)와 향축(香燭)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신찬(神饌:제물)에는 술, 고기, 메, 떡, 포(脯), 해(醢), 탕(湯), 건어물, 채소, 과일, 과자 등이 있고, 신폐로는 베, 종이, 돈 등이 있으며, 곡물을 올리기도 한다. 신찬 중에는 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제주(祭酒)라고 한다. 제주는 강신(降神)·헌작(獻酌)·음복 등의 마을 제의 절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진20> 윗성남 춘계 당고사 제물 구입(2021.05.17)

- 신림면 관내 마을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에서는 제물 준비를 위해 제비(祭費)를 각출한다. 예전에는 콩이나 쌀 등의 현물을 걷기도 하였는데, 제일을 앞두고 정해진 비용을 걷어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땅을 구입해 한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매년 제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당하게 하기도 한다.
- 제물 구입은 원주중앙시장이나, 신림면소재지에서 구입하며, 일반적으로 돼지머리, 과일, 포, 소지용 한지, 술 등이다. 그 외 제물은 가정용 제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 떡, 탕, 나물 등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사진21> 윗성남 추계 당고사 제물 구입(2021.10.13)

- 마을제의의 주관을 맡은 제관이 먼저 제주(祭酒)를 준비한다. 현재는 제주를 사서 쓰지만, 예전에는 제관이나 유사를 맡은 집에서 직접 담갔다. ‘옥수수 막걸리’를 제주로 사용하였으며, 제당 옆에 향아리를 삼일에서 일주일 전에 묻어서 숙성을 시키기도 하였다.
- 육고기는 소를 성남리 윗성남과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등에서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했다는 구술 기록은 있으나, 성남리 윗성남,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 등에서는 돼지 온 마리를 올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돼지머리만 올린다.
- 특히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에서는 살아있는 돼지를 당숲 입구에서 도살 및 해체를 하였다고 한다. 이때 머리와 갈비 두 쪽,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등 일곱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를 ‘쟁기고기’라 불렀다. 갈비와 내장은 삶고, 쟁기고기는 구멍을 뚫어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당 옆에 걸어두었다.
- 마을제의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주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성남리 윗성남에서도 돼지 온 마리를 올렸을 때, 꼬치에 꽂아서 나누거나 팔기도 하였다.
- 떡과 메는 수확한 것 중에서 미리 선별한 것을 사용한다. 메는 마을에 따라서 제관들이 제당 앞에서 직접 지어 올리기도 하며, 떡은 ‘백설기’로 서되서흙을 찌며 시루째로 진설한다. 시루에 북어나 청수 등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 용암리 사람에서는 두 시루를 찌는데, 한 시루는 ‘서낭당시루’라고 하고, 다른 한 시루는 ‘고양주시루’라고 한다. 마을 제의가 끝난 후 서낭당시루만 주민들이 나누어 먹고, 고양주시루는 마을 제의를 준비한 ‘고양주’에게 준다.
- 또한 시루떡 두 시루를 준비하는 마을들에서는 한 시루는 제당에 진설하기 위해 서되서흙의 작은 시루로 찌고, 주민들이 음복으로 나눌 떡은 다른 시루에 찌는다. 금창리 둔창마을의 경우, 두 개의 메와 탕, 두 잔의 술을 올렸는데, ‘부부서낭’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황둔리 물안동과 창촌과 같이 각각 서낭신과 산신을 모시는 경우 제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4.6 신림면 마을제의 절차

- 신림면 관내의 마을제의는 모두 정숙형 유교식 제의다. 무당이나 법사 등의

전문 사제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제의 진행은 신림면 관내 마을이 거의 유사하며, ‘강신-분향-재배-참신-진찬-독축-헌작-소지-철상-음복’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진22> 황둔리 물안동 서낭제에서의 부정풀이(2005.02.22.)

- 다만, 성남리 절골, 윗성남, 구학리 석동, 황둔리 소야, 물안동 등에서는 제의 진행에 앞서서 ‘부정풀이’를 한다. 부정풀이는 당고사를 올리기 전에 있을 수 있는 부정을 소멸한다는 상징적인 절차로, 마을들마다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풀이의 절차는 ‘긋은[젖은]부정’과 ‘맑은부정’ 등으로 구성된다.
- 먼저 긋은[젖은]부정에서는 솥을 담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긋은[젖은] 부정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낭당 내부와 외부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뿌린다. 긋은[젖은]부정이 끝나고 나서는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담아서 “이번에는 맑은부정입니다.”라며 동일한 방식으로 당집 내부와 외부로 돌아가면서 뿌린다. 한편, 구학리 석동에서는 제관과 축관이 맑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셔 더욱 정결하게 마을 제의를 준비했다고 한다.
- 마을제이가 끝날 무렵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보통 축관이나 제관이 올리며 주민이 많은 곳에서는 축관과 제관이 같이 올리기도 한다. 소지는 먼저 모시는 신격에 대한 소지를 올리고, 제의의 흠향 여부를 묻고, 마을 주민들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마을에 따라서 수부제사까지 끝나고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수부제사는 제물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제당에 진설했던 일부 제물을 내와서 진설하며, 헌작과 배례가 한 번씩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부소지를 올린다. 다

만 신림리 역골, 성남리 아랫성남, 금창리 가리파 등의 마을에서는 퇴송(退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23> 금창리 가리파 서낭제에서의 퇴송(2005.10.10)

5

신림면 마을제의 의미

5.1 ‘마을제의’로서의 의미

-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제의는 마을과 마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불안을 전체적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마을신앙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 동쪽에 소재하고 있는 신림면의 생활 터전은 바로 ‘산’이다. 산은 전통적으로 그 자체로 신성하지만, 신의 처소인 우주 또는 하늘과 통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 그리고 산이 지니는 가변적인 특성으로 신림면 일대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산신(山神)이 있다. 구학리 방학동 마을에서는 “옛날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호랑이를 위한다고”라며 산신제를 크게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이 구성되면서 서낭신에 의지하게 되었다. 곧 마을제의라는 형태를 빌려서 마을이나 구성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던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를의 시작이 마을 주민들이 지니는 ‘불안 요소’ 때문이기는 하지만, 신림면 일대의 마을제의를는 지연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던 마을에 지연강화의 기능을 하였다. 가족이나 씨족 등의 혈연성이 강한 집단에는 제사나 문중 제례 등이 있어 혈연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마을제의를는 지연을 강화하는 의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 또한 마을제의를는 사회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회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에 불과하다.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혈연과 지연이었으며, 신림면의 마을제의를는 마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에 의해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 신림면 일대의 마을제의를는 일상적인 사실을 성화(聖化)하고 의례화하여 제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어떤 날을 정하여 일정한 뜻을 기리는 것은 의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특히 마을제의를는 성스러운 날이나 장소, 성스러운 사람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설정하여 정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신성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제도화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것이 전통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5.2 ‘고개 서낭’으로서의 의미



<사진24> 금창리 가리파 서낭제(2005.10.10)

- 신림면 일대 마을제의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마을서낭’과 ‘고개서낭’이 혼재한다는 것이다. 신림면 일대 대부분 마을제의는 ‘마을 서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곧 마을 주민들의 평안(平安)을 기원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가리파’와 ‘싸리치’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서는 ‘고개 서낭’의 모습도 확인된다. 특히 금창리 가리파와 신림면 싸리치는 원주에서 영월군과 충청북도 제천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교통로에 위치한 고개다. 이들 고개를 중심으로 보부상단이 주관하는 ‘산신제’와 ‘서낭제’ 등과 연계되어 있고, 현재 금창리 가리파에서 확인된다.
-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도 고개에 있는 산신당 또는 서낭당과 보부상과 연계되어 있는 사례는 강원도 태백시 새길령과 경상북도 울진군의 셋재 등에서도 확인된다.
- 『원주읍지』에 “원주관아에서 동쪽 5리에 단구역이 있고, 단구역에서 다시 가리파재를 지나 40리를 가면 신림역이 있고, 중천을 건너 유치[싸리치]와 송치[솔치]를 지나 45리를 가면 신흥역에 도달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단구역’, ‘신림역’, ‘신흥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원주에서 가리파, 싸리치로 넘어가는 교통로는 그 연원이 오래되어 보인다.
- 또한 원주에서 가리파를 지나 직치를 넘으면 충청북도 제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리파와 싸리치는 신림역을 잇는 가장 험준한 고개다. 그렇기에 고개를 넘는 보부상들도 가리파와 싸리치에 각각 제당을 건립하고 산신제를 지냈다. 특히 이 두 곳의 제당은 치악산신과 백운산신을 각각 모셨으며, 제의의 주체는 ‘백운치악산성황계’의 계원들이었다.

5.3 국가 제사 수용의 의미

- 원주시의 진산인 치악산은 조선시대 이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국가제사가 있었던 제장(祭場)이었다. 곧 ‘명산(名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시의 지형은 치악산 줄기와 백운산 줄기가 자리한 동쪽과 남쪽은 높고, 서쪽과 북쪽은 섬강과 남한강이 흘러 낮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에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차령산맥이 치악산의 봉우리들을 이으며, 높고 험준한 산줄기를 형성한다. 남쪽은 치악산 줄기가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백운산, 구학산 등이 이어진다.²¹⁾

- 그 한가운데 신탐면이 위치하고 있기에 ‘산신제’ 중심의 마을제와의 자연스롭게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모셔지는 신격만 보더라도 산신 중심이며, 산신과 서낭신이 결합된 형태도 보인다. 곧 국가 산신제의 전통을 마을 산신제를 통해 현재까지 잇는 것이다.

21) 김은철, 『원주지명총람』, 원주시, 2019, pp.40~41.

제 III 장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의 실제

-
1.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개관
 2.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준비
 3.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절차
 4.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제물
 5.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의미
-

1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개관

- 원주 성황림 안에 있는 당집에는 “상성황지신(上城隍之神)”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어 있다. 이는 마을제의의 신이 윗[上]마을의 성황신임을 밝혀주고 있으나, 당집이 개축되며 위패도 새로 만들어져 원래의 명칭이 확실하지 않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의례를 중시하였으며 모든 제사의 세세한 규정을 정한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국가 제사와 의례의 원형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올리던 성황제는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산천신(山川之神)과 성황신도 함께 제사를 지냈으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예전(禮典)에는 산천단(山川壇)에서 천하명산천하대천(天下名山天下大川)제에 성황(城隍)제와 사토(司土)제를 함께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성황신과 성황림 마을제의의 성황신은 같다고 할 수 없으며, 한자 표기의 성황신이 오늘날 서낭신이나 마을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 다만 도성 내에서 행하는 야제(野祭)와 산간수곡(山間水曲)에서 야제(野祭)와 산천(山川)·성황(城隍)·사묘(祠廟)에 직접 올리는 제사를 금지¹⁾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러한 제사가 이어져 왔으며 또한 성황제는 도성 밖에서 행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민간에서의 제사 형태나 제물이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 세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운양집(雲養集)』에 몽산(蒙山)²⁾ 정상에 있는 성황사(城隍祠)에서 병과(餅果)로 빌고 있었다³⁾고 하여 떡과 과일을 제물로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기적인 제사의 형태인지 일시적으로 기원을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지냈던 고사(告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성황림 마을제의는 매년 봄과 가을로 4월 초파일과 9월 9일 중양(重陽)에 올린다. 오늘날은 음력 4월 7일과 9월 9일의 오후 4시경에 제의를 올린다. 여러 연구 조사에 이 제일(祭日)에 관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 춘기 제일(祭日)을 7일과 8일로 다르게 적고 있다. 만일 4월 7일 밤 자정에 제사를 준비하여 8일에 제의를 올렸는데 오늘날 4월 7일 오후로 시간이 앞당졌다면, 추계 제의로 올려지는

1) <禁制>, 『經國大典註解』; 『大典通編』

2) 면천 몽산으로 추측된다.

3) 金允植, 『雲養集』, 乃陟其頂。有城隍祠。邑人方以巫祝餅果。來禱祀焉。

음력 9월 9일은 9월 10일에 지냈던 제의를 일찍 올리는 건지 아니면 9일 0시 이후의 제의 시간을 늦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 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성황림의 당(堂)에서 올려지는 마을제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과정은 물론 변화의 시점이나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다.

- 본 장에서는 성황림 안에서 행해지는 마을제의 실제 형태를 현지에서 조사한 2021년의 봄과 가을 제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마을제는 ‘제의 준비’와 절차, 그리고 제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그에 관한 내용과 의문점 등을 함께 적었다. 제의 준비는 마을제를 올리기 전에 준비하는 품목들로 제구·복식·제찬은 물론 축과 홀기도 포함하였다. 제의 절차는 제의 전 의례와 제의, 그리고 제의 후 절차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는 마을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절차를 따오며, 제물 역시 실제 올려지는 품목의 조리과 진설과정을 다루었다.

2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준비

- 봄과 가을의 마을제를 마치면 바로 다음 제사를 위하여 유사를 선정하고 제사 비용의 준비를 계획한다. 유사는 부정한 일이라 여겨지는 초상이나 출산 등이 일어나지 않을 집의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이장이나 반장 등이 맡아서 해 왔다. 예전에는 제주(祭酒)를 담그고 제물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오늘날 제사 준비는 제의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일로 시작이 된다. 사용할 물품의 품목을 비치해두고 소모품과 제찬의 재료들은 하루 전에 구입하고, 당일 진설할 음식들을 조리한다. 축문은 매년 새로 써서 준비하고 제의 절차는 기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역할 분담할 사람의 성명과 내용을 기재해서 준비해둔다.
- 제사 비용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와 그렇지 않고 자체 조달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 예산에 맞추어 제사에 사용할 품목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물품을 준비한다. 보조금으로 인하여 여유가 있을 때는 통돼지와 제수들을 넉넉하게 준비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돼지머리는 기본으로 준비하여 올린다. 제수로 올릴 과일과 음식 재료 등은 하루 전에 구매하며, 제일(祭日) 오전에 제찬을 만들고 제기와 제구(祭具)도 꺼내어 준비한다. 성황림 마을제는 성황림 마을체험관과 마을회관이 있어 제기 보관뿐만 아니라 제찬을

조리하고 공간적 여유와 편리함이 있다.

- 아래의 표는 마을에서 “구입 및 준비 품목”으로 작성해 놓은 내용을, 다시 품목별로 구분하여 표로 만들었다.

종류	내역	기재 품목 외 사용 물품
제복(祭服)	도포, 신발	새조대, 유건, 행전
음식류	통돼지 1마리, 시루떡 2말(백설기), 메, 국, 간장, 두부구이, 부침개, 육적, 나물 3가지(숙주나물, 시금치, 고사리)	
술	제주(정종), 물, 막걸리	
과일류	대추, 밤, 꽃감, 배, 사과, 포도, 수박, 계절에 따라 조절	4월에는 참외를, 9월에는 바나나를 추가하였음
과자류	약과, 산자	9월에는 옥춘당을 추가함
포	통복어(3마리)	
제기류	향로, 촛대 2개(초 3개 포함), 향, 술잔, 잔 받침, 모사 그릇, 시저, 물그릇, 축문, 부엌칼, 퇴주그릇, 창호지, 소지, 돛자리, 바가지, 숯 3덩어리, 주전자, 쟁반, 소반, 향로받침(향탁), 제기 세트	소지용 종이
기타	전기 점검, 라이터, 방명록, 사인펜, 붓, 종이컵, 나무젓가락, 사무용탁자	

<표8>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제수용품 구입 및 점검’

- 경비 사용의 사례를 들어보면, 2021년 5월 18일 봄 제사에는 150만 원을 지원 받고 마을에서 50만 원을 부담하여 이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했으며, 동년 가을 제사에는 약 186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보조금 지원이 없었던 시기에는 제의에 참석하는 계원들이 제비(祭費)를 모아서 집행하였다.

2.1 제구(祭具)

- 마을제에 사용하는 제구들은 “성황림 체험마을 체험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당

일에 꺼내 사용한다. 제기(祭器)는 목기(木器)로 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촛대, 향로, 술잔과 받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향탁, 향로, 모사그릇, 시저와 시접, 물그릇, 퇴주그릇, 주전자, 칼, 돛자리, 부정풀이용 바가지 등이 필요하다. 칼은 특별하게 제사용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며, 부정풀이에는 박을 파서 만든 바가지를 쓴다. 모사기에는 쌀을 담은 후 짚을 묶어 꽂아둔다. 이외에 매년 준비해야 하는 물품은 소지용 한지, 초, 숯, 향 등이다. 향은 예전에는 향나무를 잘게 깎아서 태우는 나무로 된 향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향(線香)을 쓴다.

- 제물들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전에는 나무를 끝로 파서 만든 함지에 제수를 담아 지게로 지고 갔으나, 오늘날은 둥구미에 제수를 담아 트럭에 실어서 한꺼번에 가져간다. 둥구미는 왕골로 만들어져 있으며 여러 개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은 품목을 기재하여 두고 그에 따라 준비하며 인하여 착오를 줄이고 있으며, 매년 경제적이거나 계절적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하거나 간소화할 뿐 큰 차이는 없다.

2.2 복식

- 조선 시대는 신분제에 따라 의복은 물론 조상 제사를 지낼 때 봉사(奉祀) 대수와 제물까지도 규정해 놓고 있었다. 제복(祭服)은 조복(朝服)과 같이 격식을 갖춘 옷차림을 입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마을제 역시 당시의 신분제에 따라 가장 좋은 옷을 갖춰 입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편한 일상복을 입고 지내다 근래에 들어 유교 제사에서 많이 착용하여 제복(祭服)으로 판매되는 연청색 도포를 구매하여, 참석하는 제관들이 당일 착용할 수 있도록 세탁하여 보관해 둔다.
- 제복의 구성은 도포(道袍), 술띠(세조대), 검은색 유건, 행전(行纏), 신발로 준비되어 있다. 제의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제복은 바른 착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은 오늘날 평상시에는 입지 않는 옷으로 오로지 제사에만 착용하고 있어 바르게 입는 데 어려움을 갖기도 한다. 유건의 앞뒤를 구별하는 방법이나 도포 착용 시 고름을 매고 술띠를 제 위치에 바르게 묶는 방법, 행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제대로 묶는 방법 등은 익힐 필요가 있다. 행전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는다면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나, 일반 복장 위에 도포를 입기 때문에 다리 부분을 가릴 수 있어 통일감과 단정함을 주고 있다. 신발도 제복의 하나이나 우리가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듯이 당집 안에 신고 들어가는 일과 설사

모두 신을 신기로 하였던이라도 자리를 깔아놓고 절을 할 때도 착용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제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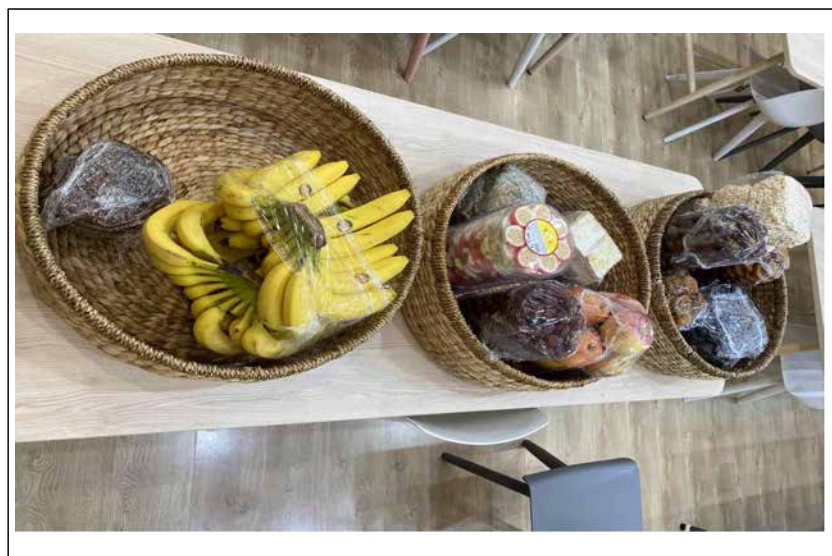


<사진25> 제물 준비(2021.05.18)



<사진26> 제찬 조리(2021.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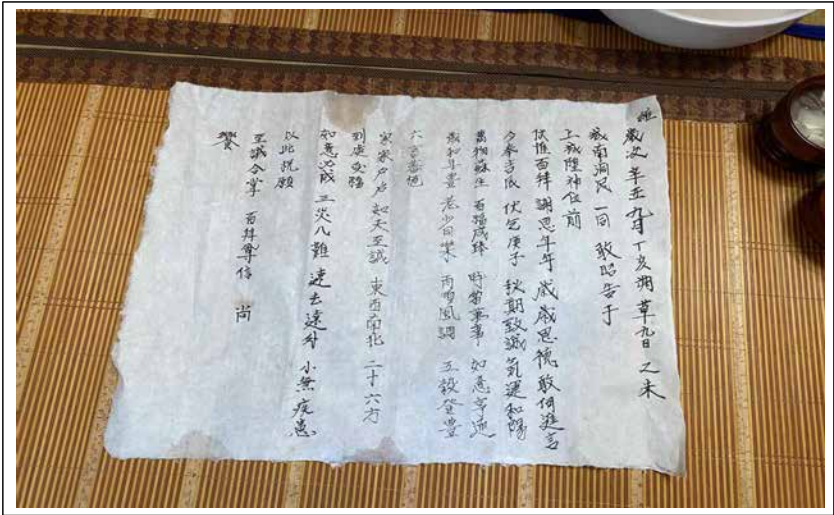
- 제찬은 마을의 부녀들이 ‘성남 2리 노인회관’이나 ‘성황림 마을 체험관’에 모여서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떡도 다 집에서 시루에 찌지만, 지금은 떡집에 맞춰서 당일 배달을 받고 있다.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쓸 때는 생으로 올리지만, 돼지머리는 삶아 판매하는 제물용을 구매하여 올린다. 당일 만드는 제찬은 탕, 부침개, 두부, 적, 나물 등을 준비하고, 밥은 술에 해서 가져간다. 제찬 외에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할 때 내놓을 반찬들을 준비한다. 음식을 만드시는 대부분이 7-80세 이상으로 제찬을 계속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 조리하고 있어 변화가 많지 않다. 다 만들어진 제찬은 동구리에 담아 당집으로 옮겨간다.



<사진27> 동구리(2021.10.14)

2.4 축

- 축문에는 제의를 받는 신과 제일, 제관, 제를 올리는 목적이나 방법 등을 적기 때문에 제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축문은 한자로 작성되어 있고 매 제사에 새로 써서 준비하지만, 분축(焚祝)의 절차는 없어서 태우지는 않는다. 축문은 제상에 올려두었다가 읽고 난 후에도 다시 제상에 올려두었다.



<사진28> 축(2021.10.14)

-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 辛丑 九月 丁亥 朔草 九日乙未
城南洞民 一同 敢昭告于
上城隍神位前
伏惟百拜 謝思年年 歲歲恩德 敢何進言
今奉吉辰 伏乞 庚子秋期 致誠 氣運和陽
萬物蘇生 百福咸臻 時堂萬事 如意亨通
歲和年豐 老少同樂 雨順風調 五穀登豐 六畜繁植
家家戶戶 如天至誠 東西南北 二十六方 到處受福

如意必成 三災八難 遠去遠外 小無疾患 以此祝願

至誠 合掌 百拜 尊信 尙

饗

○ 이를 번역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내용	비고
유 세차 년 간지(干支) 9월 (간지) 초아흐레 (간지)에	신축년 9월의 간지는 무술(戊戌)이므로 매 제사에 간지를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朔草의 초는 초(初)의 오기로 보이며, 삭 (朔)자만 써도 무방하다.
성남동민 일동은 상성황신위 앞 에 감히 고합니다.	제사의 주제자(主祭者)가城南洞民 一同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사에는 모든 마 을사람이 참여하지는 않는다.
삼가 한없는 절로 감사하며 해마 다 이어지는 은덕을 감히 어찌 진언하겠습니까	이 문장은 띄어쓰기에 따라 약간의 해석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금일 길한 날을 받아 경자년 가 을에 엮드려 치성을 드립니다.	2021년은 신축(辛丑)년이므로 이는 2020 년 경자(庚子)년의 글을 고쳐 쓰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기운이 양과 화합하고 만물이 소 생하며 백 가지 복이 다 모이는 때가 되었으니 만사가 뜻대로 형 통해서	‘氣運和陽 萬物蘇生’은 춘기 제사에 사용 하는 용어로 가을 제사에는 용어를 달리 해야 한다.
화평하고 풍년이 되어 노소가 동 락하고 비바람은 순조롭고 오곡 은 풍성하고 가축은 번식하며	육축(말·소·양·개·돼지·닭)의 번식은 현재 가축을 기르지 않는 마을에서는 축원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집이 하늘에 닿도록 지성 을 올리니 동서남북 이십육방 곳 곳마다 복을 받고 뜻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고	‘東西南北 二十六方’은 어떤 범위나 지역 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삼재팔난(三災八難) ⁴⁾ 의 재난은 멀리 가버리거나 나가버려 작은 질환도 없기를 바라며	‘小無疾患’은 작은 질환도 없게 해 달라는 無小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축원으로 정성을 다하여 합장 백배하여 믿으니 흠향하여 주십시오	
尙 饗	제사를 받아 흠향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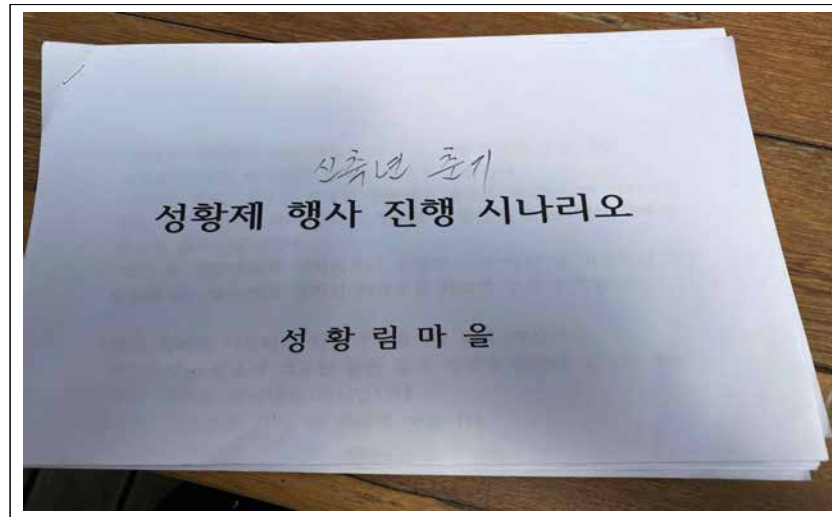
<표9> 신림면 잇성남 마을제의 축문 내용

- 축문은 유교식 제사를 채택하여 변화하며 읽게 되었다고 하며, 오늘날에는 간지(干支) 표시를 거의 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글들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든 축문은 2021년 4월 7일 제사에 쓴 내용으로 성남동민 일동이 상성황신에게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 있다. 은덕에 감사하여 치성을 드리니 여러 소원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달라는 축원이 있고 지성으로 제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 축문의 축원은 제사를 지내는 그때그때 바라는 소망이나 간구를 쓸 수 있다. 이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 제사를 올리면 그 내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심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믿음보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의 후환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는 축원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변화하였다.

2.5 후기

- 성황림의 마을제는 유교식의 제례를 진행하나 창홀(唱筊)은 하지 않으며, 진행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읽고 있다.

4) 삼재(三災)는 화재(火災), 수재(水災), 풍재(風災)의 세 가지 재난을 말한다. 팔난(八難)은 여덟 가지 고난으로, 삼재팔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을 통칭한다.



<사진29> 성황제 행사 진행 시나리오(2021.05.18)

- 현재 제의 중에 읽는 <성황제 행사 진행 시나리오> 중 앞부분의 인사말을 제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례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폴이를 하고 계십니다.

부정폴이는 당숲에 흐르는 맑은 물로 성황당 안팎에 골고루 뿌려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폴이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신축년 춘기 성황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① 강신~ 분향~

제주(○○○)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가 제상(제단)에서 잔을 들어 잔을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술잔을 향불위에 세 번 돌린 다음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빈 잔을 집사에게 건네주고 일어나 참신할 때 재배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② 참신~ 일동 재배~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③ 초헌 헌작

초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 앉는다.

집사(○○○)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초헌관은 잔을 들어 향불위에 세 번 돌리고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술잔을 받아 메 그릇과 갹 그릇 사이 앞 쪽에 놓고 젓가락을 고른 뒤 시접 위에 올려 놓는다.

초헌관은 신위 앞에 꿇어 앉는다. (제관들은 서 있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 자리로 들어간다.

④ 독축

축관(○○○)은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일어나 자리에 들어간다.

⑤ 아헌 헌작

아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 앉는다.

집사(○○○) 잔을 아헌관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아헌관은 잔을 들어 향불위에 세 번 돌리고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술잔을 받아 메 그릇과 갹 그릇 사이 앞쪽에 놓고 젓가락을 고른 뒤 시접 위에 올려 놓는다. 아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리로 들어간다.

⑥ 종헌 헌작

종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 앉는다.

집사(○○○)은 잔을 종헌관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종헌관은 잔을 들어 향불위에 세 번 돌리고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성 명)에게 주면 집사는 술잔을 받아 메 그릇과 갹 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종헌관은 엎드린 채로 잠시 기다리다 삼시정저가 끝나면 두 번 절하고 들어간다.

⑦ 삼시정저

종헌관은 꿇어앉아 있는 동안 집사(○○○)은 메 그릇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고 (손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젓가락을 고른 뒤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종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⑧ 제관 헌작

당 안에 있는 이장, 축관(직 책)은 헌작하고 자리로 들어간다.

⑨ 헌다

집사(○○○)은 갹을 내리고 물을 오른 다음 밥을 물에 세 숟가락 말아놓고 젓가락을 고른다.

이때 제관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 동안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든다.

⑩ 철시복반

집사(○○○)은 물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⑪ 사신 - 일동 재배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 이상으로 '제례 절차가 끝났습니다.'라고 알림.

성황제례 의식 절차가 끝난 후

① 희망자 헌작

헌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잔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철상

제상위의 제수를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제물은 반드시 쟁반에 바쳐 바닥에 먼저 놓은 다음 물려야 한다.

③ 수부제 지내기

제사가 끝나면 진설 제물 중 떡시루, 메, 탕, 제주(酒), 쫄대, 술잔, 과일을 엄나무 제단에 올리고 2명의 제관(이장, 원로제관)이 수부제를 지냄. 잔은 한잔만 올린다.

수부제가 끝나면 참석자(제관, 주민)가 음복도 하고 떡(백설기)도 나누어 먹는다.

(더은 손으로 떼어서 나누어 먹는다)

음복이 끝나기 전에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④ 소지 올리기

수부제를 지내는 동안 당집 안에서는 4명의 제관(○○○)이 소지를 올린다.

큰소리로 축원자의 이름을 알리고 축원 내용을 읽으면서 소지를 태워 올린다.

⑤ 주민화합 잔치

제례의식이 모두 끝나면 참석하신 내빈, 주민 모두가 마을 체험관에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

- 진행 절차의 내용으로 보면 강신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되고 사신의 절차에서 마친 후, 희망자 헌작과 수부제, 그리고 소지 올리기 등은 행사의 연속으로 제복은 입고 있지만, 제사 후의 의례로 분류하였다.
- 유교 방식의 제사를 올린다고 반드시 창홀(唱筓)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마을제의 진행 시나리오에는 제사의 흥기와 같이 제관들에게 순서와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사의 진행 과정을 사회자가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다.
- 의례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부분으로,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나, 이러한 변화와 전통의 유지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집 안에서는 제관에게 제의의 절차를 설명하는 진행을 하고, 밖에서 별도로 관람객들에게 진행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양쪽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절차

- 유교 제사 의례는 인간이 신에게 일방적으로 헌례(獻禮)를 행한다. 물론 국가 의례에는 제악(祭樂)이 있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기도 하지만, 그 역시 신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 의례는 아니다. 그에 반해 굿은 신을 부르고 신과 함께 어우러지는 의례가 있다.
- 오늘날의 성황림의 마을제는 유교의 조상제례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신을 모셔와 음식을 대접하고 보내드리는 의례로 제주가 모든 절차를 주관하여 행하고 집사들은 이를 돕는다. 당제의 절차는 「성황제 행사 진행 시나리오」에 적은 내용이 흥기를 대신하고 있다. 제수 진설을 마치면 부정풀이로 시작을 하여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삼시정저, 제관 헌작, 헌다, 철시복반, 사신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를 마치면 희망자 헌작을 하고 철상, 수부제, 소지의 순서를 마치면 모두 모여 음복으로 전 과정을 마친다. 이와 같은 의례의 과정을 제의 전 의례와 제의 그리고 제의 후 의례로 나누었으며, 마을제의 순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3.1 제의 전 의례

- 마을제를 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절차이다. 전통적으로 유사와 제주(祭主) 등은 며칠 전부터 재계(齋戒)하는 기간을 갖는다. 이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들을 피하며 제사에만 집중하여 신령과 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1) 금줄

- 일주일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타면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한다. 당은 물론 들어가는 입구, 신목(神木),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 등 마을제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줄을 친다. 금줄은 그 자체도 정화의 의미가 있지만, 금줄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초상을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 출산이나 질병, 동물을 살생하는 등 피를 보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마을제에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금줄을 친 장소의 출입조차도 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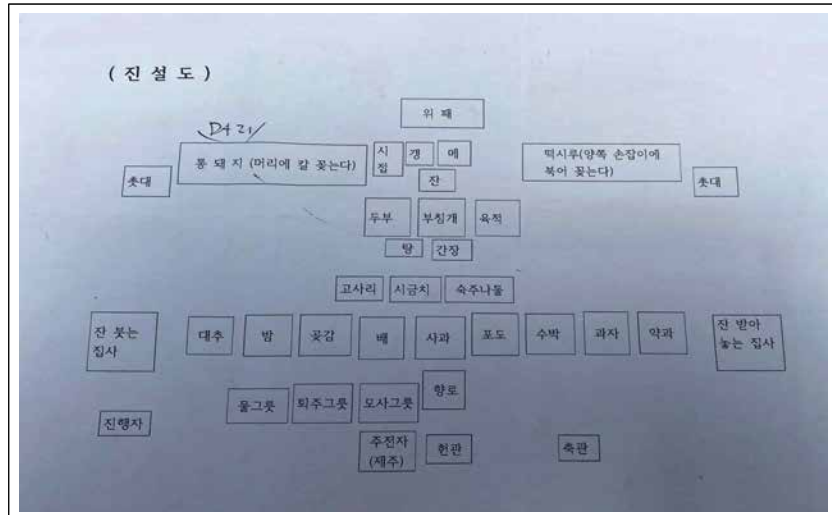
<사진30> 금줄(2021.10.14)



<사진31> 황토(2021.05.18)

2) 진설

- 제물은 마을에서 준비해서 당집으로 옮겨가서 진설한다. 진설도(陳設圖)를 미리 준비하여 두고 그에 따라 제수를 제 자리에 올려 착오를 줄이고 있다.
- 아래는 마을에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설도이다.



<사진32> 진설도(2021.10.14)

- 먼저 폐백으로 올리는 한지를 신위 위의 금줄에 건다. 통돼지 제물은 제기에 올릴 수 없으므로 비닐을 깔고 얹어져 있는 형상으로 놓는다. 다음에 진설도에 따라 제물들을 제자리에 진설한다. 향로와 모사기, 주전자, 부정풀이 바가지 등 모든 제기와 제구가 모두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3) 부정풀이

“먼저 제례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부정풀이는 당숲에 흐르는 맑은 물로 성황당 안팎에 골고루 뿌려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사진33> 부정풀이(2021.05.18)

- 진설을 마치고 제관들이 모두 제 자리에 선 후에 부정풀이로 제사를 시작한다. 부정풀이는 마을에서 연세가 많은 분이 맡아서 한다. 바가지에 물을 담고 숯 세 덩이를 넣어 들고 다니며 손으로 물을 떠서 뿌린다. 처음에는 당집 안의 네 귀퉁이에 한 후 밖으로 나가서 밖의 네 귀퉁이를 돌며, 물을 뿌릴 때마다 부정을 푸는 말로 “맑은 부정 젖은 부정 다 깨끗이 소멸하십시오.”라고 소리를 내어 말을 한다.
- 모두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에는 숯이 없는 맑은 물을 바가지에 담아, “깨끗한 맑은 부정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처음과 같이 당집 안의 네 귀퉁이와 당집 밖의 네 귀퉁이를 다 돌면서 물을 뿌린다. 이로써 안팎의 부정을 씻고 깨끗하게 신을 맞을 준비를 마친다.
- 부정을 씻은 후에 “깨끗한 맑은 부정입니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이 “부정”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 “맑은 부정 젖은 부정 다 깨끗이 소멸하십시오.”라는 주문으로 부정이 소멸하였다면, 그다음에는 “깨끗하고 맑게 정화되었습니다.” 혹은 “깨끗한 맑은 정(淨)입니다”라는 표현이 옳다고 여겨진다. 정화되지 않은 부정(不淨)에 대하여 숯을 넣은 물을 뿌리며 기원을 함으로써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정(淨)이 되게 하는 절차가 부정풀이라고 할 수 있다.

3.2 제의

- 유교 제사의 주요 절차는 술을 올리는 헌작이다. 간소하게 드리는 제사는 한 잔의 술을 올리고, 격식을 갖추는 제사는 석 잔의 술을 올리는 삼헌을 한다. 제주가 올리는 초헌에서 신에게 제사의 상황을 고하는 축을 읽는다. 조상 제사는 조상신에게 술을 올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의례이다. 현재 성황림 마을제의 역시 조상제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삼헌을 올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 마을제의 제의 절차에는 조상제사에서 행하는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여 불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차용된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절차에 먼저 적고 그 논의 사항을 함께 제기하였다.

1) 강신

“제주(○○○)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가 제상(제단)에서 잔을 들어 잔을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술잔을 향불 위에 세 번 돌린 다음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빈 잔을 집사에게 건네주고 일어나 참신할 때 재배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 강신은 조상제사에서는 향을 피워 하늘로 흩어진 혼을 부르고 땅을 상징하는 모사에 술을 부어 백을 부르는 절차이다. 가정집에 사당이 있어 조상의 신주를 봉안하고 있다면,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참신 의례를 올려서 조상신을 뵙고 그 다음에 강신례를 한다. 유교 조상 의례의 형식을 가져와서 마을 제사를 올리고 있다면 당집이 있고 위패를 두었으므로, 참신례를 먼저 하여야 한다. 치악산의 신령이 전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강신례를 하더라도, 참신을 먼저 하고 다음에 강신 의례가 순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강신례는 제주가 맡아서 한다.
- 이러한 신이 내려오는 강신(降神)의 절차는 향을 피우고 모사에 술을 붓는 뇌주(酌酒)로 이루어지는데, 성황림의 마을제의 신은 땅으로부터 백(魄)을 부르는 뇌주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니 영신(迎神)의례를 함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참신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 강신한 신을 뵙는 절차로 이때는 술을 올리지 않고 제사에 참석한 제관 모두 함께 절을 한다. 남자는 의례에서 올리는 절은 평상시의 배가 되는 재배(再拜)를 한다.

3) 초헌

“초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앉는다.

집사(○○○)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초헌관은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술잔을 받아 메 그릇과 갹 그릇 사이 앞쪽에 놓고 젓가락을 고른 뒤 시접 위에 올려놓는다.

초헌관은 신위 앞에 꿇어앉는다. (제관들은 서있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 자리로 들어간다.”



<사진34> 헌작(2021.10.14)

- 신(神)에게 첫 잔의 술을 올리는 의례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때 신에게 고하는 축을 읽는다. 집사가 헌관(獻官)의 술잔을 받아 올린 후에 젓가락을 바르게 해서 시접 위에 올려놓은 형상은,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는 모습을 나타낸다.

4) 독축(讀祝)

“축관(○○○)은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 축(祝)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축원하여, 무엇으로 제를 올리니 받아달라는 글이다. 마을제의 축을 통해 살펴보면, “城南洞民 一同 敢昭告于 上城隍神位前”이라 하여 성남동민 일동이 윗마을[上] 성황신에게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은덕을 베풀어줌에 감사하여 치성을 드리니, 풍년이나 사람의 질병이나 가축의 번식 등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달라는 축원과 함께 지성으로 제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 축문은 유교 의례로 변화하며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마을이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내용을 신에게 고하는 의례이므로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마을에서 가축을 키우지 않는 만큼 육축번식(六畜繁殖)과 같은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이에 대해 간구할 수 있다.
- 축은 신에게 올리는 글이므로 제사를 마치고 송신(送神)을 한 후에 소지와 마찬가지로 태워서 신에게 보내야 한다.



<사진35> 독축(2021.10.14)

5) 아헌(亞獻)

“아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앉는다.”

-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의 의례는 헌관(獻官)만 다를 뿐 초헌과 같으며, 잔을 올린 후에 아헌관만 절을 한다.

6) 종헌(終獻)

“종헌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어앉는다.”

- 정식으로 올리는 마지막 잔이다. 일반적으로 종헌관은 제사에 특별히 참석한 타 기관의 대표나 마을과 관련하여 직급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의례의 형식은 아헌과 같으며, 절을 한 후에는 물러난다.

7) 삽시정저(挿匙正箸)

“중헌관은 꿇어앉아 있는 동안 집사(우제순)은 메 그릇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고 (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젓가락을 고른 뒤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중헌관은 두 번 절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 삽시는 수저를 메의 중앙에 꽂아 밥을 먹는 형상으로. 음식을 권하는 유식(飭食)의 절차에 삽시를 하고 조상이 음식을 다 드실 때까지 나가서 있거나 병풍으로 막기도 하고 뒤돌아서서 기다린다. 따라서 중헌관이 있을 때 삽시정저는 적당한 순서로 보이지 않는다.
- 마을제의 성황신은 산 제물을 받기 때문에 밥은 술 채로 올리고 떡도 시루 그대로 올리는데, 밥술에 숟가락을 꽂으면 술 채로 밥을 먹는 형상이 되므로 이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진36> 삽시정저(2021.05.18)

8) 제관헌작(祭官獻爵)

“당 안에 있는 이장, 축관(○○○)은 헌작하고 자리로 들어간다.”

- 이 절차는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술을 올리지 않은 제관들에게 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추측된다. 이 절차는 종헌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제관들에게 헌작하므로 절차에 있어 타당하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 헌다를 하여 식사 중에 계속 술을 올리는 모습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헌다(獻茶)

“집사(○○○)은 갹을 내리고 물을 올린 다음 밥을 물에 세 숟가락 말아놓고 젓가락을 고른다.

이때 제관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동안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든다.”

- 이 순서는 음식을 다 마시고 나서 마지막에 차를 올리는 절차로 국은 내려놓고 물을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송냥이라고 하더라도 맑은 물을 올린다. 밥을 물에 세 숟가락 말아놓는 모습은 아마도 송냥의 형태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헌다의 행동에서 제관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드는 절차는 신(神)이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유식의 절차에 해당되고 이는 삼시정제와 헌다의 사이에 해야 한다.

10) 철시복반(撤匙覆飯)

“집사(○○○)은 물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 식사를 마쳤다고 가정하여, 수저를 거두어[撤匙] 제자리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순서이다. 복반(覆飯)은 한자를 직역하면 밥을 뒤집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반개(覆飯蓋)라고 하여 열어놓았던 밥뚜껑을 뒤집어서 덮는다고 하던지 혹은 합반개(合飯蓋)라고 하여 밥뚜껑을 합하여 놓는다고 하여야 한다.

11) 사신(辭神)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 이상으로 ‘제례 절차가 끝났습니다.’라고 알림.”

- 신에게 올리는 절차를 모두 마쳐서 송신(送神)하는 의례이다. 모든 제관은 참신 때와 같이 재배로 신을 배웅한다. 그러나 이 절차로 제사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는 할 수 없다. 신에게 행하는 의례는 마쳤으나 이후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음복도 제례의 절차에 포함된다. 다른 의문점은 마을신으로서의 성황신이 이 제사를 마치고 마을을 떠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이 당집이나 신목(神木)에 머문다면 이 절차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차 후에는 신에게 고했던 축을 태워 보낸다.

3.3 제사 후 절차

- 신을 보내고 난 후에 제사를 마치기 위해 진행되는 의례이다.

1) 희망자 헌작

- 희망자 헌작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술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관람객 중에서 미리 신청한 사람들이 당집 안에 들어가 술을 올린다.
- 사신 이후에 제례 의식은 마쳤다고 공지를 하고, 이후에 “희망자 헌작”을 한다. 이는 소지와 달리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잔을 올리는 의례인데, 이미 신이 떠나버린 후에 하게 되므로 이 술잔들은 누구에게 올리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진37> 희망자 헌작(2021.10.14)

2) 철상(撤床)

- 철상은 글자 그대로 상을 치우는 절차로, 남아 있는 제찬들을 거두고 제기를 씻어 보관한다. 그러나 마을제의에서는 제물을 모두 치우는 과정이 아니라 제사상에 있는 일부 제찬을 “수부제”를 올릴 엄나무 아래로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매 제사에 수부제로 옮겨지는 제물의 종류는 달라 일정한 규정은 없는 듯하다.

3) 수부제

- 당집을 사이에 두고 전나무와 마주 보고 있는 엄나무에서 올리는 제의를 말한다. 제물은 별도로 차리지 않으며, 당집 안에서 올렸던 제물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올린다. 수부제는 진설 → 헌작 → 재배 → 소지 → 음복으로 진행된다. 당집 안의 제사상에서 내온 제물을 진설한 후에 단헌(單獻)으로 한 잔의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예를 올린다. 그 후에 앞에서 소지(燒紙)를 올린다. 수부제에 술을 올린 사람이 올렸던 술잔을 거두어 와서 마시는 음복을 한다. 그 후에 당집에서 희망자 헌작을 한 사람들이 다시 엄나무 앞으로 와서 절을 하고 간구를 한다.
- 수부제는 별도의 제찬을 준비하지 않고 당제의 제물을 내와서 올리고 있어 그 신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수부제가 전나무의 신목이나 당집 당신(堂神)의 부제(附祭)로 올리던 신격이라면 적은 제물이라도 별도로 준비하여 올리는 의례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고수레나 퇴송과 같이 제의를 마친 후에 떠도는 귀신을 향한 의례였다면 오늘날 제물의 제기 채로 옮겨와서 올리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38> 수부제(2021.10.14)



<사진39> 수부제 소지(2021.10.14)

4) 소지

- 당집 안에서 올리는 “소지(燒紙)”는 먼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나 소원을 빌고 나서, 참관객 중 희망하는 사람의 소지를 한다. 소지용 종이는 일반 한지보다 얇고 작으며, 미리 개인의 나이나 주소 성명 등을 축원하는 내용과 함께 적어 놓는다. 헌관이나 집사 등이 모여 앉아, 소원을 적은 종이를 먼저 읽은 후 둥글게 만든다. 습기가 있는 종이는 불이 있는 초 위에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동안 건조해지고, 종이 아래에 불을 붙여 거의 타버릴 즈음에 날려 보낸다. 재가 높이 올라갈수록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사진40> 소지(2021.05.18)



<사진41> 소지 축원문(2021.10.14)

5) 음복

- “음복(飮福)”은 신에게 대접했던 제찬을 먹는 것을 말한다. 초헌관이 제사상의 술과 음식을 조금 먹는 절차이고, 수조(受胙)례는 희생의 제물을 나누어 받음을 말하나 제사 후에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음복이라고 한다. 제사상에 올렸던 제찬은 물론 희생과 함께 별도로 음복할 다른 반찬을 더 준비해서 제관은 물론 일반 참관자들도 함께 먹는다.



<사진42> 음복반찬(2021.10.14)

6) 봉송

- 제사를 마치고 제사에 참석했던 마을 사람들의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음식으로 떡과 전을 나눠 담아두었다가 보낸다. 이 과정은 별도의 절차가 없으며 오늘날에는 미리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참관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떡과 전 등의 음식물을 싸서 나누어 준다.



<사진43> 봉송(2021.05.18)



<사진44> 봉송떡(2021.10.14)

4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제물

- 제사상에 올려지는 제물은 돼지와 떡, 술 채 올리는 메를 제외하면 조상제사의 제사상과 크게 차이가 없다. 조상제사는 조상이 살아계시듯이 음식과 술을 올

리는 의례가 주 내용이므로, 헌례를 한 후에 안주를 먹는 형상으로 젓가락을 고르는 순서가 있다. 이처럼 술을 올리면 일일이 젓가락을 고르고 시접 위에 올려놓아 안주를 먹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제수로 올려지는 찬은 홀수로 올린다. 과일은 11종류, 나물은 3종류, 탕 1, 두부·적·부침개도 각 한 접시씩 준비한다. 과일은 조율시이(棗栗柿梨)를 기본으로 8종류에 조과(造果) 3종류를 더하였다. 찬의 진설 방식은 신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후식인 과일류를 올리고, 바로 앞에 기본 주식인 밥과 떡을 올리며, 귀한 음식인 적이나 전류는 다음으로 가까이 올리고 나물과 같이 늘 먹는 찬은 보다 멀리 놓이게 된다.
- 다음은 2021년도 성황림에서 가을에 올린 마을제의의 진설도를 표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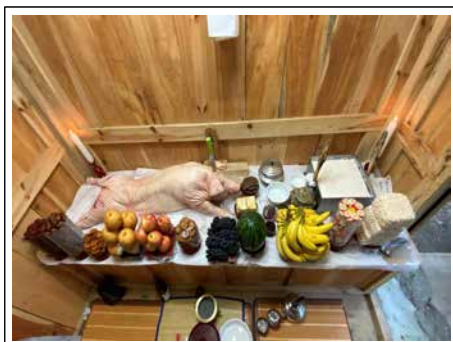
춧대				위 패		춧대			
				갱 메					
				시접		잔		떡	춧대
통돼지									축
				두부	육적	부침개			
					탕	간장			
				고사리	시금치	숙주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약과	포도	수박	바나나	옥춘 산자

<표10> 2021년 추계 윗성남 마을제의 진설도

- 2021년 봄에는 돼지머리를 올렸고, 가을에는 통돼지를 올렸으며, 진설된 제사상은 모습은 다음과 같다.



<사진45> 제사상(2021.05.18)



<사진46> 제사상(2021.10.14)

1) 시성(豕腥)

- 돼지는 생으로 통째 올리거나 머리만 올리기만 한다. 돼지머리만 올려도 이는 돼지 한 마리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희생으로 올리는 동물은 소나 돼지가 가장 일반적이다. 돼지 한 마리를 올리는 제사에 대한 기록으로는 조선 시대에 의례서인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를 살펴보면 명산대천 제사가 포함된 소사(小祀)에 돼지 한 마리를 올렸고, 일부 서원에서 제사에 돼지 한 마리를 올리고, 굿을 할 때도 제물로 통째로 올려 이는 제사 비용의 문제일 뿐이라 할 수 있다.
- 성황림 마을제의의 제물에 나타나는 특별함은 칼을 꽂는다는 점이다. 제물에 칼이 사용되는 예는 굿의 부정풀이 과정에서 신칼을 던지는 경우가 있으며, 조선 시대 국가 제사에서 제물로 올리는 희생을 자를 때 특별한 칼인 난도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를 제물에 꽂아 올리지는 않았다. 돼지머리에 칼을 꽂는 사례에 대하여 다른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 이 칼은 돼지의 부정을 씻고 잡귀를 막기 위하여 꽂아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돼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물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도 치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떡을 자를 때에 손으로 떼어내야 한다. 신의 제물은 정화한 후에 올려지고 신이 그 제물을 흠향한다고 여긴다면, 신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다 하여도 칼을 꽂은 채 올리는 제물을 받아들이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폐백(幣帛)

- 이는 신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의례의 처음에 전폐례(奠幣禮)의 순서가 있으며 이때 폐백으로 비단을 올리는 예이다.

3) 떡



<사진47> 떡(2021.10.14)

- 당제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떡과 돼지이다. 떡은 다른 재료를 섞지 않고 쌀 한 말을 흰무리떡으로 찌서 올린다. 예전에는 집에서 찌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떡이 설익거나 갈라져 떡을 찌기 전후에는 모든 일에 조심해야 했으나, 요즘은 떡을 방앗간에서 주문해서 가져온다. 떡집에서도 마을제에 올릴 떡은 부정 타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한다. 시루째로 가져와 그대로 올리며, 양쪽 손잡이에 북어를 꽂는다.

4) 제찬

- 메와 갯을 기본으로 산적, 두부, 메밀 부침개를 올리고 간장을 곁들이며, 탕 하나와 삼색나물을 올린다.

① 메

- 메는 흰 쌀밥을 술에 해서 술째로 올린다.



<사진48> 메(2021.05.18)



<사진49> 메(2021.10.14)

② 갠과 탕



<사진50> 탕(2021.10.14)

- 탕과 갠은 같이 끓여서 갠에는 국물을 많이 넣고 탕은 국물을 적게 하여 올린다. 소고기와 무, 기름에 부치지 않은 생두부를 넣고 끓이며, 북어나 다시마 등의 어물은 넣지 않는다.

③ 산적



<사진51> 산적(2021.05.18)



<사진52> 산적(2021.10.14)

- 산적은 육적용 소고기를 간장과 참기름 등으로 간을 하여 타지 않게 두꺼운 솔 뚜껑이나 프라이팬에 익힌다. 짭을 맞추지 않아 홀수로 7장을 쌓아 올렸다.

④ 두부



<사진53> 두부(2021.10.14)

- 두부는 기름을 두른 팬에 타거나 뭉개지지 않도록 노릇노릇하게 지져서 홀수로 11쪽 올렸다.

⑤ 부침개



<사진54> 부침개(2021.05.18)



<사진55> 부침개(2021.10.14)

- 강원도는 밀가루를 많이 안 쓰고 메밀가루를 사용하였다. 예전에는 메밀 농사를 지었으므로 집에서 갈아서 쓰거나 방아에 빻아서 사용했다.
- 메밀가루를 질게 반죽하여 치대면 찰기가 생기며 이를 물게 풀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프라이팬에 소금에 절인 배춧잎을 넓게 펴서 얇게 깔고 그 사이사이에 부추를 넣은 후 메밀가루 풀은 물을 그 위에 얇게 펴서 덮는다. 배추가 없을 때는 취나물이나 검은오리나물로 하였다. 지금은 식용유와 들기름을 반씩 섞어서 쓰지만, 예전에는 들기름으로만 하여 타지 않도록 불기와 뒤집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 뒤집어서 앞뒤로 익으면 내어 식도록 펼쳐 놓는다. 예전에는 4~5kg 정도의 메밀가루를 부쳤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 있어 예전의 절반 정도만 부쳤다. 둥근 한 장을 반으로 접은 뒤 다시 반을 접어 삼각뿔 모양이 되는데 이를 홀수로 하여 11장을 쌓았다. 부침개 앞에는 간장을 곁들여서 올렸다.

⑥ 나물

- 나물은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를 삼색나물로 올린다. 수확하는 시기가 있는 고사리는 미리 말려 보관해 두었다가 찬으로 만든다.



<사진56> 삼색나물(2021.05.18)

5) 과일

- 과일은 조율시이(棗栗柿梨)를 기본으로 하여 계절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여 올리며, 각각 홀수로 하여 전체 과일의 가짓수도 조과(造果)를 포함하여 홀수가 되도록 한다. 2021년에는 대추·밤·곶감·배·사과·포도·수박을 올리고 봄 제사에는 참외를 가을 제사에는 바나나를 더하였다. 조과는 약과·옥춘·당·산자 세 종류를 올려 모두 11종류이다.
- 십여 년 전에는 고임을 하지 않고 제기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만 쌓아 올렸다. 그러나 이후 최근에는 점점 올리는 과일의 양을 더하고 있으며, 높게 고여지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다 보니 회갑상의 상차림처럼 높게 고인다.

① 대추[棗]



<사진57> 과일 고이기(2021.05.18)



<사진58> 대추(2021.10.14)

- 대추는 알이 굵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놓는다. 대추를 고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먼저 마른 대추를 따뜻한 물이나 꿀에 채우기도 하지만, 마을 제의에서는 손으로만 만져 모양을 고르게 한다. 한지를 제기 크기로 동그랗게 오린 후에 제기 위에 대추를 한 줄 놓은 다음 한지를 덮고, 다시 대추를 한 줄 깔고 동그랗게 오린 한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쌓았다. 2021년 봄 제사에 대추를 촘촘하게 채우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고였는데, 성황림의 당집까지 옮길 때 이동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같은 해 가을 제사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넣어 대추의 형태를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높게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밤[栗]



<사진59> 밤(2021.05.18)



<사진60> 밤(2021.10.14)

- 마을제에서는 과일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올려야 하므로 고임이 쉽지 않다. 대추와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제기에 놓을 수 있는 만큼 올렸으나, 후에 양을 점

점 많이 올리고자 하면서 쌓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춘계 제사에는 밤을 글루건으로 접착해서 쌓았는데 이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형태가 되어, 추계에는 대추와 같이 투명 플라스틱 통에 밤을 높게 담아 올렸다.

③ 꽃감[柿]



<사진61> 꽃감(2021.05.18)



<사진62> 꽃감(2021.10.14)

- 꽃감은 흠이 없는 좋은 것으로 골라 고이기 좋게 손으로 만져 형태를 만든 다음 차곡차곡 올렸다. 계절에 따라 꽃감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여, 가을 제사에는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꽃감을 올렸다. 꽃감은 고임이 쉬워도 제기 위를 덮을 만큼만 올렸으나 현재는 쌓아 올려 높게 고인다.

④ 배[梨]



<사진63> 배(2021.10.14)



<사진64> 과일(2021.05.18)

- 과일은 칼을 대지 않으므로 그대로 올린다. 흠이 없이 크고 실한 배를 고른다. 먼저 4개를 제기 위에 연결해서 놓고 위에 3개를 올려 홀수로 올리거나 4개씩 두 층을 놓고 그 위에 하나를 더한다. 제수에는 칼을 대지 않는다고 하여 위를 치거나 꺾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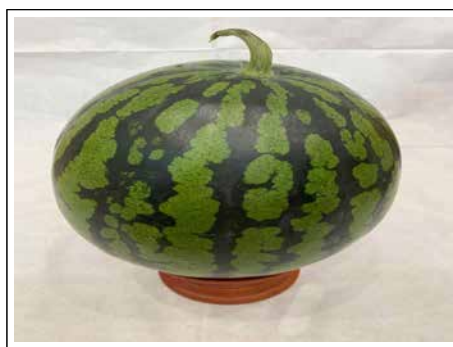
⑤ 사과



<사진65 사과(2021.10.14)

- 오늘날 사과는 사계절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로 배와 함께 제물로 많이 올려지며, 고임의 형태도 비슷하다. 사과와 사과 사이에 꼬치를 이용해서 고정하여, 두 개 층이나 혹은 삼층으로 고인다.

⑥ 기타 과일



<사진66 수박(2021.10.14)



<사진67> 포도(2021.10. 14)

- 조율시와 사과를 제외한 과일은 계절이나 그 시기에 구하기 쉬운 과일을 올린다. 2021년 춘기 제사에는 배, 포도, 참외를 더하였고, 추기 제사에는 수박, 포도, 바나나를 올렸다.

⑦ 조과



<사진68> 약과(2021.10.14)



<사진69> 산자(2021.10.14)

- 조과는 열매로 열리는 실과(實果)가 아닌 손으로 만든 유밀과(油蜜果) 종류를 말한다. 약과(藥果), 산자(散子) 등은 예로부터 제물로 올려지는 밀병(蜜餅)의 종류이다. 이에 옥춘당(玉春糖)을 더하여 3종류를 올린다. 옥춘당과 같은 색이 있는 사탕류는 불교 제의나 회갑과 같은 잔치에서 고임으로 하여 상에 차린다.

6) 포와 술

① 통북어포

- 포는 퍼서 말린 종류가 아닌 통북어를 올린다. 통북어포는 별도 제기를 사용하지 않고 떡시루 양쪽 손잡이에 꽂아서 올린다. 2021년 가을에는 봄 제사와 달리 북어에 실을 감아서 올렸다.

② 술

- 예전에는 집에서 쌀을 누룩으로 빚어 제주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술을 사용한다. 술은 청주와 막걸리를 올린다.

7) 수부제 제물

- 당집 안에서 제의를 마치면 전나무와 당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엄나무 아래로 몇 종류의 제물을 옮겨 수부제를 지낸다. 수부제에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양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이며, 떡이나 메를 모두 옮기기도 하고, 떡이나 메 중에 하나만을 옮기기도 한다. 또 과일 등은 제사상 위의 제기에서 일

부를 조금씩 덜어서 옮겨 놓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과일도 제기 채로 옮겨 놓는다.

- 2021년 봄 마을제의의 제물은 술, 메, 떡, 포, 사과, 배, 대추를 올렸고, 가을에는 포가 꽃혀있는 떡시루와 대추를 올렸다.



<사진70> 수부제 제물(2021.10.14)

5

신림면 윗성남 마을제의 의미

- 성황림의 마을제는 조상제사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래의 형태를 벗어나 유교식 제의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전의 제의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 고유의 특성을 가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 마을 제의의 특징을 일반화할 필요도 없으며 원형의 방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교식 제의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 속에서 고유의 방식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제물에 있어 조상제사에는 익힌 제물을 올리고 적(炙)을 올리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등 국가 제사와 관청의 제사는 생식을 올리고 희생(犧牲)으로 양이나 돼지, 소 등을 올린다. 이외 서원(書院)에서도 이같이 생식과 희생을 올리는 데 이는 신격이 조상신보다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황림 마을제의 제물은 국가 의례의 제물과 시생(豕牲)같이 주 제물이 생돼지이거나 돼지머리이지만, 이를 자르거나 나누지 않고 통째로 올리며 그 이마에 칼을 꽂는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 제물의 종류나 진설은 각각의 방식이 있어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으나 제사 상 위의 제물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라 진설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보면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다. 밥술 하나는 하나의 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올려지는 제찬은 통복어 외에 다른 어물(魚物)은 올리지 않아 산간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갠과 탕, 나물 등 유교 조상제사의 제찬을 올리며 떡과 메를 시루와 밥술째 올리는 진설하는 혼합형의 진설 차림을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본래 유교식 제의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성황림의 마을제는 절차는 신격이 다른 조상제사의 절차가 지나치게 많이 차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유교식 복장과 조상제사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서 민간신앙의 부정풀이와 소지(燒紙) 등의 절차가 있는 복합적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큰 희생으로 올린 돼지는 반찬이나 안주가 될 수 없는데, 이를 밥이나 탕, 나물 등 함께 올려지면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는 제물이 되어 버린다. 이는 이러한 제의의 형으로 인하여 신격을 낮추어 제사를 올리고 있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통사회에서는 집단의 구성원은 나이나 향렬, 직급이나 신분의 차이 등으로 서열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사람 간의 질서는 신과의 관계에서 더욱 지극한 정성을 보였음이 틀림없다. 제례의 모든 과정은 당시로서는 일상의 예절대로 행하여 움직임은 하나하나 절도 있고 공손하여, 앉을 때는 무릎을 꿇고 물러날 때 뒷걸음으로 물러나며 모든 동작은 두 손으로 하고 의례에서 남자들은 재배를 올린다. 마을제는 닫힌 공간의 조상제사와 달리 마을의 공동 학습의 장소로서, 이러한 전통 의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통 생활 예절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다.
- 또한 성황림에서 신과 소통하는 제의는 그 신령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오랜 세월 소지를 올리는 제관 한 사람처럼 소지를 잘 말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촛불 위에서 습기를 제거하여 가볍게 하고, 거의 타 갈 즈음에 촛불 위 더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도록 놓아버리면, 종이는 재가 되어 높이 날아오른다.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은 소원은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듯하여 힘을 얻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신령함을 얻을 수 있다.
- 그러나 마을제는 전통 방식 유지와 전수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경제적 조건 외에도 매 시기에 마을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마을의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제사 준비와 진행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마을제

를 주관하는 구성원들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으로 제사를 이어간다면 전통을 계승하기 어렵게 된다.

- 현재는 팬데믹으로 모임의 제한이 있지만,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사용으로 인한 온라인의 정보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람객들과 이들을 통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제치고 적극적으로 현작을 하거나 소지를 올리고 있으며, 마을제 역시 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마을제의 신앙심은 강요할 수도 없고 증명도 되지 않으므로 다른 대안으로 마을 사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유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나 방식이라도 전통의 방식을 버리고 발전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연극 공연과 다름이 없게 된다.
- 따라서 당제의 참여 구성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제는 마을의 부녀자와 어린 이들은 참석하지 않는 마을제였다 하여도, 현재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한 마을 사람의 참여는 아주 적은 수이다. 이로 인하여 마을제의 성격이 축소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의에 직접 참여하는 제관이나 그렇지 않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질감을 줄여, 참관하러 온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여행 온 관광객 등과 같이 마을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마을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여 지켜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마을제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의 단결과 유대감으로 마을을 지켜왔던 선인들의 의지가 마을제에 있다. 마을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이 나타나 있으므로, 정형화하여 오랜 세월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세한 논의가 요구된다. 유교 의례와 민간 신앙의 제의에서 적당하고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옛날 제사 방식을 기억하는 노인들에게 더 세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제사 형식이나 절차 등의 세세한 조목을 작성하되 융통성 있는 변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 마을 사람들은 마을제를 당 치성이라고 하였다. 당에 올리는 치성은 마을 사람들 개인과 가족과 마을을 위한 치성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한 정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마을제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게 모여, 치성으로 올려지고 다시 복으로 받아 나누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Ⅳ장

신림면 성황숲 가치와 활용

-
1. 신림면 성황숲의 가치
 2. 신림면 신목(神木)의 유형
 3. 신림면 성황숲의 활용
 4. 신림면 성황숲 활용을 위한 과제
-

1

신림면 성황술의 가치

- 원주 치악산의 남쪽 자락 상원사 아래, '성남리'라는 마을이 있다. 치악산이 휘감고 있는 마을이 신림면 성남리인데 성황술(천연기념물 제93호)으로 유명하다. 치악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소나무 숲 아래 보를 이룬 아랫마을 성남 1리를 지나면 성황림과 치악산국립공원, 상원사가 있는 성남 2리가 있다.
- 신림면은 '장소성(場所性)'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되고 있는 곳이다. 장소성은 구비적 유적과 지속화된 의례와 설화 전승의 현장성 등을 포함한다. 성황림이라고 하는 '당숲'은 옛부터 마을신이 사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 평소 함부로 접근하지 않고 나무도 훼손하지 않았으며, 숲 안에는 마을의 신을 모신 신당이 있어 이를 '당집'이라고 하였다.



<사진71> 신림면 잇성남 성황술

- 신림(神林)은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숲의 영산 개념은 신화 중요 배경인 셈이다. 지금은 마을 숲에 있는 제단(祭壇), 제각과 주변에 산재해 있는 나무 등으로 신성한 숲 곧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장소와 터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¹⁾

1) 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2007, 92쪽. 한국 마을숲 중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제93호)이다. '성황림'은 보통명사인데, 원주 성황림이 생태나 보전 측면에서 독보적이라 성황림은 원주의 그것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되었다. 다른 마을의 성황림을 원주 성황림과 구별하러 '성황숲'이라 표기한다. 신림(神林)면의 신림은 '신성한 숲'이라는 뜻을 지녔다.

- 신림의 장소 이미지로 숲경관 상징성, 생태적 환경의 보고, 공동체 의례 명소 등 숲이 가지는 일반적인 장소 이미지도 있지만, 신성한 장소, 소도신앙과 같은 특별한 장소 이미지도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다.²⁾ 특히 천연기념물 관련 민속문화재는 한국 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신적 문화재로서 대물림 전통으로 미래지향적 자산이다.³⁾
- 이 숲에 신(神)이 산다고 하여 '신림(神林)'이라 하였다 한다(평상시 숲을 개방하지 않아 잘 알아볼 수 없음). 아직 물 맑은 마을이며 자연이 보존된 만큼 마을 주민의 마음이 아직 순박해 보인다. 신성한 원시림 '성황림'인데 재앙 막고 병 쫓던 자리에 이젠 재물·건강 소원을 모으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다. 마을숲 공동체 의례로서 민속신앙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숲의 흐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민족적 공동체의 공유된 정신소(精神素)와 숭고성이 내재되어 있다.⁴⁾ 숲과 관련한 당신화(堂神話)가 있어 신을 모시거나 의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 신목의 민속현상과 현장기능⁵⁾에 따라 신림형, 신매형, 신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림 유형은 소도, 신불(神市)처럼 신성한 숲인 경우이다. 신 매개체 유형은 숲의 나무가 신대가 되어 이동하거나 사제자로 신이 내리는 통로나 길인 경우이다. 신격화 유형은 당산나무처럼 그 자체가 신체(神體) 구실을 하는 경우이다. 나무를 통한 자연 경외감과 신화적 상상력은 일정한 전승원리와 원초적 사유체계(속신관념 포함한 전통지식)에 기초한다. 이 점에 대해 민속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 공동체 의례에서 신체(神體) 만큼 중요한 대상이 신목(神木)이다. 흔히 우주나 무인대 신내림의 매개체인 신대, 신간 역시 주목되고 신의 성격인 신림도 맞물린다.⁶⁾ 이 셋과의 관계를 살피는 자체가 생태신관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단순히 협의의 무속문화권-몽골리안 샤먼로드의 교류문화권 확대 필요성 제기에만 국한시켜 논의하지 않는다. 신불(神市)은 신림, 신전 개념을 넘어 신목의 장소성을 함축한다. 신목, 신대, 신불의 관련성은 기존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숲의 민속학적 해석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2) 장호수, 『문화재학』, 백산, 2008, 23-24쪽.

3) 이창식,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전망」 『강원문화연구』 43집, 강원문화연구소, 2021, 121-154쪽.

4) 조지훈, 「한국학민속논고」, 『한국학연구』 (조지훈전집 8), 나남출판, 1996, 221쪽.

5) 자연신앙의 애니미즘 속성과 신화원형을 고려하였다.

6) 1861년 대동여지도 역사 속의 '신림', 대동여지도에도 표기된 신림 성황림은 치악산 남대봉 남동쪽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2

신림면 신목(神木)의 유형

- 신단수(神壇樹)는 인공적 행위가 부재하는 자연의 나무이다. 신령이 나무를 통로로 하여 강림하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믿어지는 나무이다. 신이 강림하여 머물러 있다고 믿어지는 나무이다. 신목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단군신화>와 <제왕운기>에서 신단수는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나무이다. 신성한 나무가 있는 그 지역은 성역을 뜻한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한지, 오색 땡기를 매어 둔 나무. 나무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림대의 역할을 한다.



<사진72> 신림면 윗성남 서낭당과 신목

- 전나무는 신목(神木)이다. 면적 5만4414m²의 성황림은 온대 활엽수림의 보고인데 이 신목만 상록수이자 침엽수다. 전나무와 또 다른 신목인 엄나무가 당집인 성황당(城隍堂)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놓였다. 성황림의 고갱이 같은 이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막고, 병을 쫓아내며, 길한 것들을 품으려는 기도를 올렸다. 인간의 바람을 하늘에 전하는 행위는 지금도 이어진다.
- 당집 앞으로 20여m 떨어진 곳에도 금줄을 둘렀다. 신목과 당집이 신성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다. 소원을 적은 한지 쪼가리를 새끼줄 매듭 사이 걸어뒀다. 방문객들에게도 기회를 준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큰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소원한다. 마을 제관들은 매년 음력 4월 8일과 9월 9일 두 차례 열리는

성황제 때나 금줄 교체 뒤 촛불로 종이를 불태우는 소지(燒紙) 올리기를 한다.

- 본래 당집은 없었다. 숲 나무 자체였다. 성소(聖所)는 공포관념과 금기도 주입한다. 성황림 입구 쪽 나무를 벤 사람이 바로 죽었다는 동티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 구전으로 내려온다. 동티속신이 지배한다. 한편 성황림은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이기도, 청년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신목이 있다. 신목이 제단과 신격 대상이 된다.
- 신목은 우주목(宇宙木)이나 세계수(世界樹)라고 한다.⁷⁾ 우주목은 땅 아래로 뿌리를 뻗음으로써 물의 근원을 획득하고, 하늘로 뻗은 줄기와 가지들이 하늘에 닿아 생명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서는 신목의 향유층 민속활동과 현장적 기능성에 따라 신불형, 신매형, 신격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2.1 신불형(神市型)

-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桓雄)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신단수(神壇樹) 밑에 강림하였다 하니, 신목 신앙이 한민족의 태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신목에 대한 신앙은 산악신앙 및 천신강림(天神降臨)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고조선 이래 신목에 대한 신앙은 무와 더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지속된다.⁸⁾ 고조선 신단수, 마한 소도, 비르숨, 서낭숲 등이 그것이다. 신시가 아니고 신불로 읽어야 문맥이 맞다. 신불은 신성림이다.⁹⁾
- 「단군신화」에 보면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땅으로 올 때 신불의 신단수를 타고 내려왔다. 단오의 주신인 국사성황신 역시 신단수처럼 신성한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음력 4월 15일 국사성황제를 지낸 다음 신목(神木)을 잡는 신목부가 성황당 뒤편의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면 10여 명도 넘는 무당이 뒤를 따른다. 숲을 헤치던 신목부가 어느 단풍나무 아래에 걸음을 멈추면 바람도 불지 않는 데 그 나무가 갑자기 부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 「단군신화」의 신단수처럼 국사서낭신-신라 고승 범일국사신, 김유신-이 바로 그 나무를 타고 내려온 것인데, 사람들은 신목부가 나무를 흔드는 게 아

7) 자크 브로즈, 『나무의 신화』(주향은 옮김), 길벗, 2007, 한국 마을숲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시기 많이 사라졌다. 원주 성황림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당집이 훼손됐다. 그때 낸 찾길이 성황림을 동서로 갈랐다. 1990년대 초반 출입제한과 보호 지역이 된 뒤 진행된 식물의 분포가 뚜렷했다. 전형적 온대 활엽수림의 생태를 고스란히 보전하여 DMZ 외에 남한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시림이라는 평을 받는 곳이다.

8) 이용범, 「현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문제」, 『동북아역사논총』20, 동북아재단, 2008, 53-84쪽.

9)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나무신앙 및 역사인식」, 『삼국유사 새로 읽기 1-기이편』, 일지사, 2004.

닌가 의심하기도 하지만 신목부가 손을 대기 전에 나무가 먼저 신호를 보낸다. 옛날엔 강릉부사의 명에 따라 북 치고 장구 치는 무격대 백 명, 저녁 때 횃불을 든 봉화군 수백 명, 제물을 삶아진 사람 수십 명, 말을 탄 관리와 말을 탄 무당 수십 명, 그 뒤에 신단수를 따르는 사람 수백 명이 줄을 서서 횃불-길놀이와 영산홍 꽃밭-길이만 10리에 이르렀다. 숲의 나무가 신대가 되어 이동한다.

- 강릉단오제는 국사여성황사에 보름 동안 모셔놓은 신목을 단오장 한가운데 자리잡은 굿당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아흐레 동안 밤낮 없이 이어졌다. 옛날의 소도처럼 이곳엔 사람이 숨어들어도 잡아가지 못했고, 자정 통금이 있던 시절에도 이곳만은 통금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거의 모든 지역의 단오가 강제로 사라졌지만 강릉단오제나 미로단오제만은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것은 이들 단오가 국사성황제를 바탕으로 한 제례와 굿당을 중심으로 한 무속과 난전의 놀이판이 함께 어울어졌기 때문이다.
- 삼척 미로 하거노1리 단오 서낭숲은 의례현장이면서 민속놀이, 난장의 장소성으로 연결된다¹⁰⁾. 무당집 곁에 특정의 신수(神樹)를 모시는 풍속은 시베리아 체민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전자의 경우 신목은 특히 당건물과 신천(神泉)과 함께 한국무의 전형적인 신당 내지 굿당을 이루어왔다. 신림, 대왕수(大王薮),¹¹⁾ 신불은 그 자체가 신이기도 하다. 신불이 이동하여 마을 공동체와 상징적으로 만난다.

2.2 신매형(神媒型)

<자료 1>

갓없는	저바당에	뿌리없는	냘이나서
가지가지	열두가지	있는삼백	예순이라
그 끝에	여신열매가	무엇인줄	몰랐더니
열렸고나	열렸고나	해가달이도	열렸고나 ¹²⁾

— 「주머니노래」, 『한국구비문학대계』8-2, 412쪽.

10) 이창식,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양상」, 『한국 민속제의 전승과 현장』, 새미, 2009, 115-139쪽, 2008. 6. 8. 서낭숲 조사.

11) 신중원, 「대왕숲」,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32쪽.

12) 김태숙, 「춤치노래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고찰 -“한장군 놀이”와 비교하여-」, 『한국시가연구』14, 한국시가학회, 2003.

<자료 2>

역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연월일시가 없으며, 낮과 밤의 구분도 없었다. 태양과 달이 세상을 비춰 세상이 밝았었는데, 달의 중심에 푸른 측백나무 한 그루와 검은 측백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검은 측백나무가 빠르게 자라 꼭대기의 태양을 받치고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무성하게 퍼져 태양과 달을 가려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다. 지이서저[蟣依奢則]神이 하늘에 와서 인간세상의 정황을 서어무에게 보고하자 어무가 지경즈[徹埂自]에게 시켜 사정을 알아오게 한다. 먼저 다람쥐와 청사(靑蛇)를 시켜 알아보게 했지만 검은 측백나무가 너무 커서 실패한다. 이번에는 원숭이를 보냈더니 나무 끝까지 올라가 보고는 돌아와 검은 측백나무의 줄기와 잎이 너무 무성하여 하늘을 가렸다고 한다. 천군 서어무는 다시 티에바이지성[鐵白蟣生]을 원숭이를 따라가게 했고, 티에바이지성이 나무 밑에서 쇠뇌[弩]를 쏘니 잎이 7개 떨어졌고, 다시 쏘니 잎이 9개, 그 다음은 가지가 하나 떨어지면서 빛이 미약하게 보였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자 치경즈는 8명의 신을 보내 검은 측백나무를 베게 했다. 하지만 베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면 나무가 다시 붙어버려 벨 수가 없게 되자 4명씩 교대로 하여 베어버릴 수 있었고 그 베어낸 나무를 태워 검은 측백나무를 완전히 없앴다. 푸른 측백나무만 남게 되자 태양과 달과 별이 나와 세상에 밝음이 회복되었고, 수안인은 모두 기뻐했다. 지이서저神은 푸른 측백나무 옆에 여러 신을 모아서 그 나무의 뿌리, 가지, 줄기, 잎의 수에 따라 1년, 12월, 12시, 360일의 연월일시의 역법을 정한다.¹³⁾ - 중국 이족창세신화

- <자료 1>의 「쥬치 노래」에서는 나무가 등장하는 모든 각편에서 해와 달을 열매로 맺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나무가 가지는 가지, 잎, 뿌리의 수는 생략되거나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성주풀이」 무가에서는 해와 달-일월의 상생원리-이 열매를 맺는다는 화소를 가진 각편이 3편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주목의 가지와 잎의 수 그리고 부귀공명, 수명장수, 자손번성 등의 생생력 의미를 가진 열매들이 열린다는 화소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공동체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쥬치 노래」와 「성주풀이」에서 중요시 여기는 행위에 맞춰 관련 소재는 강조되고, 부수적인 소재는 탈락되거나 변모되는 것이다. 이는 이족 화산절 신대(운남성 이족 답사, 2012. 1.)와 <자료 2>처럼 신화적 맥락에서 변이한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 서역인과 고구려인이 씨름하는 모습을 그린 고구려 각저총 벽화-5세기 말경으로 추정-에 신목이 있다. 배치의 상태를 보면 앞방과 통로에는 나무와 맹견이 있고 널방 네 벽 가운데 북벽에는 주인의 실내생활도가 있으며 동벽에는 씨름 그림과 부엌 그림이 있다. 서벽에는 수레와 나무가 있으며 남벽에는 나무

13) 권태효,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비교 연구」, 『탐라문화』3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51쪽.

- 만파식적,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몽골어머니나무, 신라금관 잎문양 등 변이-가 그려져 있다.

- 각저총 씨름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각저총의 별자리, 나무와 연결할 경우에 신내림 유희 곧 신명풀이임을 시사한다. 제천 오티별신제의 소나무 신내림과 농악이 동시에 이루어져 본당에서 모셔놓고 농악놀이를 즐긴다.¹⁴⁾

2.3 신격형(神格型)

- 특정 나무가 전승공동체의 신목이자 조상으로서 나무를 신체(神體)로 모시는 현상이다. 영남 골맥이, 강원 산맥이, 제주 본풀이 등에서 지킴이, 대상목을 말한다. 1919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거수노수명목지 朝鮮巨樹老樹名木誌》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 전체 신목의 총수는 94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목의 나무 종류에는 느티나무가 가장 흔하고 팽나무와 들메나무, 매차나무, 소나무가 그 다음으로 많다.¹⁵⁾
- 신목은 그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신앙되어 온다. 하나는 사제자나 무당의 집이나 신당(神堂) 곁에 자리하여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이나 산 속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이다. 고정된 공동체 사례가 많고, 개인 치성인 경우에는 대물림 사례도 있다. 주로 전승공동체에 의해 의례, 금기, 관리 등 문화행위가 이루어지나, 문화환경에 따라 비의(秘儀)와 신화적 구술물과 맞물려 있다.

<자료 3>

巫女:그나무 가지는 서른가지~

한달 서른날로 응(應)해 있고~

그나무 잎은 삼백육십(三百六十)~

일년(一年) 삼백일(三百日)로 열려있네~

그나무 열매는 일광월광(日光月光)

해달이가 열렸구나~

동(東)쪽으로 뻗은 가지~

14) 이창식,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31-39쪽.

15)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下, 大阪 屋號書店, 1938, 27-45쪽.

노귀공명이 열려있고~
 서(西)쪽으로 뻗은 가지노
 부귀 공명(富貴功名)이 열려있고~
 북(北)쪽으로 뻗은 가지야~
 자손 공명(子孫功名)이 열려 있네¹⁶⁾

- 「성주풀이」

- <자료 3>처럼 성주목을 베기(상극작용) 위해 목신(木神)이나 산신(山神)에게 제(祭)를 올리는 장면이 형상화된다. 나무가 상징하는 수명장수, 부귀공명, 자손창성 등이 무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당의 입을 통해 구연이 확인된다. 무(巫)에서 신목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므로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상생적 우주나무(宇宙木)의 의미를 가진다.¹⁷⁾
- 신목을 위하여 매년 봄이나 가을에 정기적으로 마을곳이 행하여진다. 태만하여 그 곳을 올리지 않으면 벌로 재앙-동티형 속신-이 내린다고 믿어지고 있다. 동네의 치성을 드리는 신목이 암수 한 쌍-할배당, 할망당-으로 되어 있는 음양 상생의 경우도 있다.¹⁸⁾ 신목의 주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거나 또는 돌로 제단이나 돌담불을 마련하거나 금줄과 예단, 기줄, 제물을 매여 두는 예도 많다.
- 신당의 신목은 영험한 힘과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져¹⁹⁾ 제관과 무당은 영력을 얻기 위해, 단골은 집안 식구의 병을 낫게 하거나 복을 받으려고 예단이라 하여 색색의 형짚이나 환자의 옷가지를 나무에 걸어둔다.²⁰⁾ 굿하는 도중 신목 앞에 약간의 제물이 바쳐지기도 한다. 마을이나 산 속에 위치한 신목이 특별한 신명(神名)을 얻어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솟대목(짐대), 서낭목(城隍木), 산신목(山神木), 부군목(府君木), 대감목(大監木), 동신목(洞神木), 본향목(本鄉木) 등이 그것이다.²¹⁾ 그 가지와 잎 역시 신성성을 부여하였

16) 박경신, 「성조(成造)거리 무가(巫歌)」, 『동해안 별신굿 무가』(3), 국학자료원, 1999, 165-170쪽.

17) 류동식, 『한국무교(巫敎)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1975, 34-51쪽.

18) 김의숙, 『민속제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148-156쪽.

19) 『조선을 구한 신목, 소나무』(강관권)는 한반도 역사의 단절을 불러올 뻔했던 절체절명의 시기인 임진왜란 당시, 거대한 일본 수군의 군사력을 제압하는 전함이 되어 백척간두에 선 조선의 생명을 지켜낸 ‘소나무’를 조명한 책이다.

20) <수로신화>의 허황옥 폐백 등, 이창식,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글누리, 2015).

21) 일제강점기 이래 신목 신앙을 미신으로 여긴 기독교인들이 그 타파의 일환으로 마을의 신목을 베어버리거나 훼손하여 신목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마을사람들과 반목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흔하였다. 그러나 신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신앙되고, 신목 신앙과 속신(俗信) 관념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살아 있다. 『한국의 무

다. 화수목금토 오행이 일월과 상생되는 원리인 것이다. 그 자체가 나무와의 교감행위인 것이다.

3

신림면 성황숲의 활용

- 숲 관광자원을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매주 토요일 인원 제한 개방-으로 만들어야 한다. 1916년 귀신숲 서낭당 중심의 신림리가 중앙이라 신림면으로 개칭돼 현재에 이른다. 원주 성황림은 마을의 신성구역이다.²²⁾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길흉화복에 관한 기도를 올렸다. 신목에 둘러싸인 당집 앞 금줄엔 소원을 적은 한지를 내걸었다. 마을 사람들의 여러 추억이 서린 곳²³⁾이기도 하다. 산림문화의 존재는 숲에서 비롯된다.
- 신림은 예로부터 성스러운 대상 장소성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사회는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왔다.²⁴⁾ 첫 도착지가 바로 숲이다. 신불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숲이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재적 위상, 현존 수용양상²⁵⁾ 등도 주목된다.
- 적은 면적에 희귀한 수종 간직한 고대의 숲이다. 총면적이 5만m² 남짓한 성황림은 1940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89년부터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철책으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했다. 13년이 지나면서 숲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였다. 그 연령은 치악산국립공원보다도 오래되었고, 그 다양성은 면적에 비해 북한산 못지 않아 그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 성황림에는 수령 300년 이상의 엄나무, 전나무 고목과 털야광나무, 복자기나무, 털피나무 등 보기 드문 수목을 포함 34과 53목 91종이 서식한다. 성황숲

(巫)』(조흥윤, 정음사, 1983) 참고.

22) 신림은 원주의 동남쪽지역이라 옛 원주의 관아에서 평창, 영월을 거쳐 영동지방과 제천 등 충북 북부지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재지이었다. 19세기 후반에 발행된 원주읍지에는 단구역서 가리파재를 넘어 신림역과의 거리는 40리이다. 신림역에는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과 짐을 실을 수 있는 말 목마 3필과 노비 31명이 있었다.

23) 동티의식: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 목신이 노하여 병을 일으킨 것과,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땅에 떨어진 마른 나무는 굽어갈 수 있지만 산 나무줄기는 결코 베지 않는 것이 마을 주민의 자발적 금기사항이다.

24) 김도현, 「마을 천제의 구조와 성격」, 『한국민속학』 69집, 한국민속학회, 2019, 219-222쪽.

25) 나경수, 「마을 숲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림문화박람회 연계 아시아강원민속학회-남도민속학회 공동 학술대회: 산림-민속의 南과 北, 활용의 民과 學, 2018.10.6(토) 14:00/ 산림문화박람회 연계(인제 관내).

나무들은 신적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이었다. 또한 복수초, 홀아비꽃대, 금남화, 노루귀 등 온대지역 대표 야생화들로 숲이 우거져 있다. 크낙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태고의 숲이다. 거기서 풍겨 나오는 원초적 신비로움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사례1>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 갈 수 없어
 애뜻한 그 마음 가지로 뺨어
 멀리서 사모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기라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나무는 저리도 속절없이 꽃이 피고
 벌 나비 불러 그 맘 대신 전하는 기라
 아아,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향기 실어 날려 보내는 기라

- 시 「그리운 나무」 / 정희성

<사례2>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의 성황림은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이 숲은 신이 산다고 믿어지는 곳으로, 이에 연유하여 마을 이름도 신림(神林)이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치악산의 성황신을 이곳에 모셔, 100여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이 숲을 보호해 왔다. 온대림의 일부로 잘 보존된 이 숲은 전나무, 소나무, 복자기, 귀룽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찰피나무, 말채나무 등 비롯한 50종류 내외의 목본식물과 다양한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음력으로 4월7일과 9월9일에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 왔다. 이때 제주는 상을 당하지 않고 굶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정해지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사례3>

샤머니즘에서 하늘의 신이 내려오는 나무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나무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림대의 역할을 하며 나무에 앉는 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세피로스라든가 이그드라실로 그려지는 세계수가 신화에 잘 등장하는 경향이라든지 고목을 신성한 것으로 숭배한다든지.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라든가 성황당 나무라든지 솟대, 백제와 가야의 장례용 금관 등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사례4>

합포구 추산동 산 1번지는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의 말사인 成德庵(성덕암) 산 두척산 아래의 환주산이다. 자연히 이 환주산에 성황당을 설치하고, 사람들은 공신당산이라 불렀다. 이 산신당 주위에는 푸조나무 5그루가 신목인 엄나무를 에워싸듯 자라고 있어 신비롭다. 실제로 산신당 위에는 고사하기 시작한 거대한 엄나무가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방리 엄나무보다 더 굵다.

<사례5>

천연기념물 제76호 ‘강원도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는 하송리 사람들에게 ‘신목(神木)’이다. 나무의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와 얽힌 신이담*초인간적인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룬 설화를 구전해왔다.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나무는 조선시대 최대 은행나무로 평가받기도 했으며 단종이 세조 3년 청령포에 유배와 있다가 관풍헌으로 옮겨질 때, 어린 임금이 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몇 알 따,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기도 했다고 한다. 은행나무의 영험한 기운은 나무 속에 사는 신기한 뱀 때문이라 믿으며 아이들이 나무에 떨어져도 다치는 법이 없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절개와 의리를 상징하는 하송리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자신의 몸 일부를 잘랐다. 1901년 한일강제병탄, 1945년 해방, 6·25전쟁 때 북쪽가지를 부러뜨리고, 8·15 광복 때는 동쪽 가지를 부러뜨려 나라의 슬픔과 기쁨을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마산 성신대제를 지내기 위해 신목이 필요한데 이를 베어 오는 곳이 신각이 위치해 있다. ㉸

- 사례 유형으로 보아도 인문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활엽수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는 치악산 성황림은 성남 1리와 2리 접근 지점에 있다. 1리와 2리에는 모두 당숲이 있다. 성황림 보존을 위해 개방해 놓진 않지만 그 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신비스럽다. 성황림 근처에 켜 설화 조형물이 설치된 성황림 소공원이다.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솟대와 야생화, 그리고 공원 중앙에는 조형물이 이야기를 담은 채 서 있다. 마을을 지키는 비보숲 성황림 성남리에 있는 성황림을 신(神)적인 수림(樹林)이라 하여 ‘신림(神林)’이라 하였다. 1리는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는 숲으로 ‘아랫당숲’이라고 하고, 2리는 자연잡목림으로 ‘웃당숲’이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마을 숲을 ‘당숲’이라고 한다.
- 마을 지명도 당뒤(성황림 동쪽 내 건너의 들), 당숲굴(작은지렁굴 안쪽에 있는 당숲이 있는 곳의 굴. 옛날 화전민들이 살 때에는 이 굴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당숲약수(서낭당 옆에 있는 샘), 당후동 서낭당(당뒤에 있는 서낭당을 말한다.) 등 성황림을 중심으로 제당과 관련된 것을 여러 마을에서 만날 수 있다. 성황림이 생전 현세의 길흉화복에 관한 기도적 소도이다. 성남리가 속한 신림

면의 신림(神林)이란 명칭도 바로 이 성황림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신불형 신목 유형이 현재 신림면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1리의 당숲은 1972년과 1990년에 일어난 홍수로 숲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다.

- 하지만 2리의 당숲인 성황림은 넓은 계곡을 따라 좌우로 오랜 세월 동안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전통적인 식생(植生)들의 보고(寶庫)로 여겨진다. 이렇게 잘 보존된 것은 옛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나무가 다치면 동네가 망한다. 마을을 번창시키려면 마을 앞을 숲으로 막아야 한다.”고 전해지는 비보의식이 작용한다. 마을 사람들은 숲의 영험한 기운을 믿는 듯하다.
- 성황림엔 자체 발원하는 샘물이 흐른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봄이면 샘물 덕에 초본 식물이 꽃동산을 이룬다. 전염병이나 나쁜 기운을 막는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수라고 불렀다. 피부병과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약수 경험담이 전해진다.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성황림 내 약수는 피부질환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피부병환자들은 그 ‘영험한’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문화가치를 산림민속형유산-300년 성황제-에서 주로 상징화하고 있다. 지역과 대내외의 교류 활동이 중요하다. 지역축제 주요 항목으로 반드시 공연화, 시연화, 상품화는 필요하다.²⁶⁾ 대학 축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의 행사에 두루 참여할 수도 있다.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 다른 시, 도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외국 전시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 공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은 마련 중인 산림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들어 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유지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시간적 확대를 통해서 공연기회를 확장, 그 가치와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산림문화유산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²⁷⁾에 집중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는 보유자, 전승교수, 이수자, 전승공동체 등으로 구분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선정 및 관리를 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창의적인 전승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공동체 의례 관련 전승조직은 단체로서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조직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 『인문콘텐츠』 21집, 인문콘텐츠학회, 2011, 18-21쪽.

27)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시군별 무형문화재 검토, 『강원민속학』 18집(2004) 참고.

-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교육보조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의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구성원들 사이에 인화단결이 중요하다. 마을 공동체유산 역시 단합이 필요하고 외부인 포용 태도도 중요하다.²⁸⁾ 무형문화유산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명예와 자부심-를 원활하게 도모하고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 산림문화 정책의 일관성과 미래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형 잣대로 전승 정책도 중요하나, 창조적 국면-숲, 인간, 자연의 일체관-에 대한 획기적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인식도 상당히 바뀌었다. 이에 부합하여 연대하면서 성황숲과 같은 복합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와 세계화에 집중해야 한다. 원주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일회성, 전시성, 시사성, 정치성 정도에 머물렀다. 지속적인 산림민속형 무형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 원주의 생태형 전통문화마을 선정과 유지
 - 원주 성황숲의 창조학교 운영, 전통 스토리텔러 육성(문화해설사 등)
 - 원주 성황숲의 전승 축제(시연 포함)
 - 성황숲 서낭제 무형문화재 지정 및 공연콘텐츠 개발팀 구성(숲 체험 포함, 삼국사기 궁예 석남사터 불교민속신앙)
 - 박물관형 산림민속전수회관 건립(가리과재 성황제,²⁹⁾ 평과 선비의 상원사, 양길장군묘, 고판화박물관 등 연계)
 - 융복합형 원주학연구소/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설립
- 같은 전승 부문끼리 지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거나, 지역적인 문화재끼리 서로의 동질감을 논의하고, 서로의 제도나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보호'의 범주에서 전승주체가 '돈벌이'를 전략으로 살리면서 활성화의 신명풀이를 수행해야 한다.³⁰⁾

28) 고계환(고주환): 성남2리 마을이장, 숲해설가, “이곳의 기운을 받으려는 무속인이나 일반인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박성남: 성남2리 마을이장은 “2리 사는 윤할머니는 아들 점지를 위해 성황당에서 기도하다 호랑이가 지나 갔는데 성황신께 부탁드렸더니 호랑이가 그냥 지나쳐갔다고 한다. 그 후 윤할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특별한 아들은 아직도 효자”라고 한다.

29) 가리과재 성황제 문서는 1888년 11월 제작된 절목, 원주우지사 인장과 도장함, 문서함, 시대미상과 1920~37년 작성 추정되는 계원명단 등 11건 17점의 산신제 민간 계문서가 있다.

30) 이창식,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전망」 『강원문화연구』 43집, 강원문화연구소, 2021, 121-154쪽.

- 문화자원의 인간문화재를 고민하여 숲 체험으로, 전통춤(원주지전살풀이)으로, 전통놀이로, 전통공예로, 전통음식 등으로 OSMU 전략화하여 실천해야 한다.³¹⁾ 규격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³²⁾는 틀이 아닌 열린 가치창조론³³⁾-가치 높이기, 예술적 완성도 상화, 대중 공감화-이 우선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민속문화보유자들끼리의 격의 없는 교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도 무형문화재간의 지속적인 담론 모임과 피칭워크숍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 이미 ‘신들의 숲’ 패키지는 객실 숙박과 함께 다양한 생태 자원의 보고인 ‘성황림 숲 해설’, ‘명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원주다운 숲 유지를 위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도 확대해야 한다.
- 특히 성황림 숲 체험 프로그램은 원주시 숲 해설사의 생태 이야기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해 내려오는 나무에 얹힌 이야기는 문화콘텐츠로 발굴해 후대까지 이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숲 스토리도 있어 천연기념물로서 가치 곧 천연식물원의 원형을 더한다. 가치 스토리텔링 창조하기, 그것을 교류하기, 교류한 것을 킬러콘텐츠 상품화 만들기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신림면 성황숲 활용을 위한 과제

- 성황림(천연 93호)은 마을 앞에 탁 트인 곳을 막아 마을과 주민을 보호하는 ‘비보숲’ 이자 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신성공간이다. 민속문화유산의 창조성 문제는 '향부론(鄕富論)'에 우선한다. 전형의 실제 공연 프로그램 강화, 관련 지적재산권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 지역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위한 문화산업 견인이 그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끌어내야 한다. 관련 주체, 전문가, 지역지도자 등의 창의적 문화마인드가 필요하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민속자산에 참여한 항목에서 재미나서 설레게 하는 요소를 찾아낸다면, 성황숲 지속가능의 수월성이 제고될 것이다.
- 공동체 의례에서 신체(神體) 만큼 중요한 대상이 신림과 신목이다. 흔히 신화

31) 이창식, 「아리랑, 아리랑학, 아리랑콘텐츠」, 『한국민요학』 21집, 한국민요학회, 2017, 194-201쪽.

32) 이창식, 「미래사회의 가치창조와 융합콘텐츠」,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87-119쪽.

33)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 『인문콘텐츠』 21집, 인문콘텐츠학회, 2011, 30-31쪽.

에서 우주나무인데 신내림의 매개체인 신대 역시 주목되고 신의 성격인 신림(神林)도 맞물린다. 신목은 몽골리안-샤먼로드와 관련이 깊은 문화자산이다.³⁴⁾ 신목은 신불과 신림의 신격의 상징화를 통해 인간계에 현시하는 대상이다. 신목은 신화적 문맥에서 고구려벽화 씨름 나무나 백제계 칠지도³⁵⁾ 등처럼 신대, 신간 형태로 놀이, 축제, 공연구비예술의 소통으로 기능한다.

- 이 논의는 숲(수목)신화론을 가설로 나무에 대한 신앙적 발상과 공동체 표현행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피고 성황술의 가치를 의미부여하는 데 있다. 이를 전제하면 신불(神市)을 신시(神市)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진대, 궤대, 깃대, 신대 등도 신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기술해야 한다.
- 무형문화재 성황술제 지정 대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공동체제의-신림 성황제/서낭제-에서 신을 모셔오는 신대 기능은 농악대의 오신적 행위에 의해 축제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특히 샤만-몽글리안 분포지역에서는 접신(영신)-오신-송신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숲과 신목에 대한 층위별 생태적 속신적 비교적 성찰과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⁶⁾
- 이러한 숲의 어메니티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례-서낭제, 신화전승 등-를 지속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성황술의 순환성, 신불 성격의 신성성, 숲 친화의 생태적 삶의 진정성에 대해 체험화, 교육 미디어화, 피칭워크숍화 등을 동시다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숲의 인문유산적 국면을 발굴하고 이를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공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숲은 오래된 천연보물이다.

34) 인도 힌두-불교 문화권에서의 수목신화와의 비교도 흥미있는 과제다.

35) 칠지도는 실제 칼이 아니다. 의례용 상징물이다. 실제 신사 나무의례와 연관하여 모셔진다.

36) “마을학교형”의 마을숲과 공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등을 다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주자가례』
- 경수현, 「신림면의 당제에 대한 일고찰」, 『원주열』 제5호, 원주문화원부설
열심기협의회, 1994.
-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세시풍속』, 2001.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1997.
, 『한국의 마을신앙』, 2007.
- 김은철, 『원주지명총람』, 원주시, 2019.
- 김인선, 「마을숲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 『중앙민속학』 16집, 중앙대
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11.
- _____,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학
교 석사논문, 2011.
- 김의숙, 『민속제 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 _____,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산간신앙 - 강원·경기·충북·충남 편』, 1993.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수림지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04.
- 문화재청, 『강원권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2013.
- 서인석,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산림기록과 활용 방안」, 전남산림박물관.
-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 『인문콘텐츠』 21집, 인문
콘텐츠학회, 2011.
- 신종원, 「치악산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민속」, 『한국학』 17집, 한국학중앙
연구원, 1994.
- 오창현 외, 「강원도 원주 남부 백운치악산신제와 계문서」, 『장서각』 3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윤덕인, 「강원도 민속제 의의 제물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30, 비교민
속학회, 2005.
- 이소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구」, 연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이종우, 「강원도 영서 지역 마을의례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연구」, 『인문과

- 학연구』 6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이창식,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 _____,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8.
- _____, 「원주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인제문화원, 『인제 민속놀이』, 도서출판 산택, 2018.
- 원주시, 『원주시 역사와 문화유적』, 1997.
- _____, 『원주시사』, 2000.
-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원주시, 2004.
- 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2007.
- 정향교, 「江陵端午祭 祝文考」, 『아시아강원민속』 16,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02.
- 조광렬, 『신림향토지』, 치악신림향토문화연구소, 2006.
- 조지훈, 「한국학민속논고」, 『한국학연구』 (조지훈전집 8), 나남출판, 1996.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야기로 만나는 치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 2019.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편』, 1981.

○ 부록 1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마을제의 조사 기록

제목	1989년 윗성남 춘계 당고사
현지조사일	1989년 5월 11일
수록지	신종원,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민속」, 『정신문화연구』 17집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6~8쪽.
조사 내용	<p>성남리는 원래 火田民 부락이었다. 지금은 겨우 48戶만이 살고 있으나 종전에는 160여호가 있었다. 이러한 洞勢는 성남국민학교가 신림국민학교의 분교로 移屬된 데서도 잘 나타난다. 48호의 家口 중 교회에 다니거나 미신이라 하여 제사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한 20여호가 당고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p> <p>제사 준비는 有詞(司?)宅에서 한다. 작년 9월에는 李貞浩씨가 유사를 맡았으나 올해(1989년)는 秦明植씨(33세)가 뽑혔다. 秦氏의 말로는 제삿날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농사일이 바쁜 때를 피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사로 선정된 집은 부정한 일이 없어야하며, 금줄을 쳐놓는다. 예전에는 출입도 삼갔으나 요즈음에는 그렇게 엄하지 않다. 각 戶에서 몇 천원씩 추렴한 비용으로 유사는 음식을 마련한다. 제사 음식은 陳設圖를 참고하기 바란다. 전에는 犧牲으로 소 온 마리를 썼으나 지금은 형편상 돼지머리만을 사용한다. 고사에 쓰이는 술은 당숲에 묻어 담근 술을 썼으나, 지금은 有詞宅에서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를 사용한다. 告祀 전후에 풍물같은 것은 하지 않으며, 전에는 젊은이들이 堂에 미나리가 말타기라는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祭官은 거의 고정적으로 金慶鎭씨(66세)가 맡는다.</p> <p>1989년 5월 11일(음력 4월 7일) 밤 9시 30분쯤이 되자 음식을 챙겨 지게로 당숲까지 이동하였는데, 참가한 사람은 유사·里長·祭官 그리고 동네 청년 두 사람이 고작이었다. 서너평 정도 규모의 서낭당 門에도 금줄을 쳤으며, 당집 좌우에는 백여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전나무가 있다. 상량문은 ‘太歲己亥奉庚午月拾六日甲戌玄柱上梁’ 前面 벽에는 ‘上城隍’이라고 쓰여진 종이 위패를 모셨는데, 전에는 나무에다가 ‘上城隍任’이라고 써서 사용했다 한다.</p> <p>9시 50분에 당숲에 도착하여 가져간 장작으로 모닥불을 지피고, 한편에서는 祭需가 陳設된다. 제관과 유사는 堂 뒤편에 흐르는 물로 세수를 하고 고사에 임한다. 고사는 9시 57분경에 시작하여 10시 22분경에 끝났다. 원래는 子正에 지냈던 것이다. 고사는 ‘동네 모든 過去之事의 不淨은 전부</p>

다 소멸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오이다'하고 시작한다. 향을 사르면서 제관은 '이건 맑은 不淨이올시다. 여지껏은 흐린 不淨, 이건 맑은 不淨, 앞으로는 계속 이런 맑은 부정이 새로 새롭게 오길 기원하오이다.'라고 辭說한다. 그 다음, 제관과 유사는 절을 하고 祝文을 읽는다. 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담뱃불을 끄도록 命한다. 傳來의 축문이 어느 때부터인가 전해지지 않자, 10여 년 전 경북 奉化에서 온 어느 漢學者가 원래의 축문 내용을 참고하여 써준 것을 베껴 읽는다고 한다(사진3). 이어 제관이 燒紙를 올린다. 처음에는 마을 전체를 위해, 다음에는 家家戶戶의 안녕과 번성을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入隊者나 外地에 공부하러 간 사람에 대해서 올린다. 이 날은 29회의 소지를 올렸다. 첫 소지 때의 辭說은 다음과 같다.

이 소지는 今年 4월 春期 초파일 치성이올시다. 우리 미련한 인간은 금년 일년 성심성의껏 이 치성을 올리오니 다 △△하시지 않았는지 미련한 인간은 이 소지 일장으로서 길흉판단을 알고자 하나이다.

다음은 두번째 이후의 燒紙辭說,

아무게 소지올시다. 이 미련한 인간은 소지 일장으로서 길흉판단을 알고자 하오며, △△△△하길 성황님께 기원하는 바이올시다.

내용은 주로 身病快差, 농사풍년, 아들점지, 무사태평 등이다. 堂內에서 고사가 끝나면 밖을 나와서, 왼쪽 나무에 촛불을 켜고 돼지머리와 떡을 옮겨 놓고 술을 나무에 붓는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조금씩 잘라서 버린다. 이것을 '수구맥이'라 한다. 堂 양쪽의 나무들이 堂을 잘 지켜주었으니 술을 부어준다는 것이다. 오른쪽 나무에는 이미 절을 했으므로 다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사가 끝난 뒤 마을의 남녀노소는 유사 집에 많이 몰려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당고사의 효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사를 성의껏 지내지 않은 해는 호랑이가 밤새도록 울어 잠을 못 잤다. 또, 동네에 이상한 질병이 돌아 많이 죽었다. 그러나 제사를 잘 지내면 무사태평하여, 육이오 때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 당고사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결속시켰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도와주는 미풍양속이 훌륭히 보존되었다.

	<p>결산은 이튿날 아침에 한다. 참고로 戊辰年(1988)의 帳簿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戊辰年 九月 九日 上城隍契 有祠 李貞浩 ----- 이종설 1,500원 한주익 1,500원 ----- 致誠經費 內容 頭內服代 20,000원 ----- 合計 33,000원 有置金</p> <p>이 당고사의 시작에 대해서 문자, 金慶鎭씨는 약 150년 전부터라고 막연히 추정하였다.</p>
--	--

제목	1994년 윗성남 추계 당고사
현지조사일	1994년 10월 13일
수록지	경수현, 「신림면 당제에 대한 일고찰」, 『원주열』 제5호, 원주문화원부설원주열심기협의회, 1994, 90~94쪽.
조사 내용	<p>성남리(城南里)는 원래 화전민 부락으로 예전에는 160여 호나 되는 제법 큰 규모의 촌락을 형성하였으나 지금은 40여호만이 남아 이농 현상(離農現象)으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붕괴를 알 수 있다. 40여호의 가구 중 교회를 다니거나 미신이라 하여 제사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한 20여호가 당고사(堂告祀)에 참여하고 있다. 제사 준비는 생기 복덕(生氣福德)한 사람을 유사(有司)로 선정하여 유사택(有司宅)에서 하며, 9월 고사의 유사는 안달호(55세) 씨가 맡았다.</p> <p>제사일은 사월 초파일과 9월 9일로 하며, 이날이 정해진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한다. 유사로 선정된 집은 부정한 일이 없어야 하며, 금줄을 쳐 놓아 잡인의 출입을 삼가했으나 요즈음에는 그렇게 엄하게 제제하지는 않는다. 제수 비용의 마련은 고사에 참여하는 집에서 돈으로 얼마씩 각출하여 비용을 만들고, 유사는 이 비용으로 제물을 마련한다. 제물은 진설도 <그림1>를 참고하기 바란다.</p> <p>전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를 올릴 정도로 고사의 규모가 컸으나, 지금은 돼지 머리로 대신한다. 술은 유사택에서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를 사용한다. 고사 전후에 풍물놀음은 하지 않으며, 전에는 젊은이들이 미리 나가 말타기라는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p> <p>올해 제관(祭官)은 이병섭(67세)가 맡았고, 김정진(71세)가 같이 진행하였다. 밤 9시 30분쯤에 음식을 챙겨 지게로 당숲까지 이동하는데 참가한 사람은 유사 제관 이장 및 동네 청년 몇 사람이 고작이다. 성황당은 서너평 규모로 1992년 개축하였으며 기와를 올린 맞배 지붕이다.</p> <p>성황당 문에 금줄을 쳤으며 당집 좌우에는 백여년이 넘는 전나무가 있고 전나무에도 금줄을 쳤다. 전면 벽에 ‘上城隍’이라고 쓰여진 종이 위패를 모셨는데, 전에는 나무에다 ‘上城隍任’이라고 써서 사용했다고 한다.</p> <p>9시 50분경에 당숲에 도착하여 가져온 장작으로 모닥불을 지피고, 한 편에서는 제수(祭需)가 진설된다. 제관과 유사는 당 뒤편에 흐르는 물로 세수를 하고 고사(告祀)에 임한다. 고사는 10시경에 시작하여 20분 정도 지낸다. 원래는 자정에 지냈던 것이라고 한다.</p>

고사는 ‘동제 모든 과거지사(過去之事)의 부정(不淨)은 전부 다 소멸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오이다.’하고 시작하며 향을 사르면서 제관은 ‘이건 맑은 부정(不淨)이올시다. 여지껏 흐린 부정(不淨), 이건 맑은 부정(不淨) 앞으로 계속 이런 맑은 부정이 새로 새롭게 오길 기원하오이다.’라고 사설한다. 그 다음 제관과 유사는 절을 하고 축문을 읽는다. 전래의 축문이 어느 때부터인가 전해지지 않자 15여년 전 경북 봉화에서 온 어느 한 학자가 원래의 축문을 참고하여 써 준 것을 베껴 읽는다고 한다. 이어 제관이 소지(燒紙)를 올리는데 처음에는 마을 전체를 위해 다음에는 가가호호의 안녕과 번성을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입대자나 와지에 공부하러 간 사람에 대해서 올린다.

이 소지는 금년 9월 추기(秋期) 치성이올시다. 우리 미련한 인간은 금년 일년 성심성의껏 치성을 올리오니 다 ○○하시지 않았는지 미련한 인간은 이 소지 일장으로서 길흉 판단을 알고자 하나이다

다음은 두 번째 이후의 소지(燒紙) 사설로

아무개 소지올시다. 이 미련한 인간은 소지 일장으로써 길흉 판단을 알고자 하오며, ○○ ○○하길 성황님께 기원하는 바이올시다.

내용은 주로 신병(身病) 쾌차(快差), 농사 풍년, 아들 점지, 무사 태평 등이다. 당내(堂內)에서 고사(告祀)가 끝나면 밖으로 나와서 왼쪽 나무에 촛불을 켜고 돼지머리와 떡을 옮겨 놓고 술을 나무에 붓는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조금씩 잘라서 버린다. 이것을 ‘수구맥이’라 한다. 당(堂) 양쪽의 나무들이 당을 잘 지켜 주었으니 술을 올린다는 것이다. 오른 쪽 나무에는 이미 절을 했으므로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사가 끝난 뒤 마을의 남녀노소 유사 집에 많이 몰려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당고사(堂告祀)의 효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산은 이튿날 아침에 한다.

성남리(城南里)에는 상성남리의 당고사 외에 하성남리의 당고사와 절골의 당고사가 같은 날에 행하여지며, 절골의 당고사는 예전에는 원주(原州)나 춘천(春川) 강릉(江陵) 같은 외지인들이 제물을 차려 와 동네 주민들과 같이 지냈다고 하나, 몇 년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외지인의 출입을 금

	지하여 동네 행사로 동민들만에 의해 고사가 이루어진다.
--	--------------------------------

제목	城南里 가둔지 堂告祀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경수현, 「신림면 당제에 대한 일고찰」, 『원주열』 제5호, 원주문화원부설원주열심기협의회, 1994, 94~95쪽.
조사 내용	<p>가둔지는 상성남리 가기 전에 있는 부락으로 20여호가 동네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도 사월 초파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올리고 있다. 20여호의 가구중 교회에 다니거나 마신으로 치부하여 참가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고 약 10가구가 고사에 참가하고 있다.</p> <p>성황당은 당목(堂木)과 당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관(祭官)은 돌아가면서 그 해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이 있고 부정(不淨)이 들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며, 올 9월에는 박병권(42세)씨가 제관이 되었고 제물도 장만하였다고 한다. 제수비용은 당계(堂契)의 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p> <p>성황당 당집은 시멘트와 스테트로 이루어졌다. 당 안에는 위패를 모시지 않고 9월 고사를 올린 후 복어와 한지를 걸어 놓았다. 고사는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지내며 제물은 술과 포 과일 정도로 하고 백설기 떡은 특별히 진설하지 않으며 동네 주민들이 떡을 올리자고 할 때만 올린다고 한다. 고사는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소지(燒紙)를 올리는 것으로 끝맺음하는데 예전에는 축문을 읽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축문을 고하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한다.</p>

제목	성남리(城南里) 상성황(上城隍)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원주시, 『원주시사』, 2000, 140~141쪽.
조사 내용	<p>성남리 천연기념물 93호인 ‘성황림’이 있는 고장이다. 40여호의 가구 중 20여 호의 가구가 성황당 당고사에 참여하는데 제일(祭日)은 매년 4월 초파일과 9월 9일 구중일(九重日)로 하며 제사비용은 고사에 참여하는 집에서 각출하여 마련한다. 제사 준비는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을 유사(有司)로 정하여 그가 맡는다. 이밖에 제관과 집사도 역시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을 정하여 맡게 한다. 전에는 소 한 마리를 잡을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최근에는 돼지 머리로 대신하고 백설기와 복어포, 무나물, 탕을 진설한다. 제주는 유사택에서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를 쓴다.</p> <p>제사 날 밤 9시가 지나면 제물을 챙겨 지게로 당숲까지 옮기는데 제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제관을 제외하면 이장과 마을청년 몇 사람 정도이다. 성황당은 1992년 개축해서 4평규모의 기와를 올린 맞배지붕 구조이다. 상성황(上城隍)이라는 위패를 모셨다. 제관과 유사는 성황당 뒤에 흐르는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원래 자정에 지냈던 것이 좀 빨라졌다고 한다.</p> <p>“동네 모든 과거지사(過去之事)의 부정(不淨)은 전부 다 소멸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오이다.”하고 성황에 알리며 제사를 지낸다. 헌작, 고축이 끝나면 제관은 마을 전체의 소지를 올리고 다음에는 가가호호의 소지를 올리며 마지막으로 입대자나 출타자의 소지를 올리며 무사하기를 빈다. 당내(堂內)에서 고사가 끝나면 밖으로 나와서 당(堂) 왼쪽 나무 밑에 촛불을 켜고 제물을 옮겨놓고 나무에 술을 붓는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조금씩 잘라서 던진다. 이것을 ‘수구떡이’라고 하는데 장 양쪽의 나무들이 당을 잘 지켜줘서 술을 올린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유사집에 몰려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p>

제목	당제사(윗성남과 아랫성남 당고사 혼제)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세시풍속』, 2001, 131~132쪽.
조사 내용	<p>성남2리는 매년 사월 초파일과 구월 구일에 ‘성황림’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성황림은 마을 입구에 있는 숲으로서 소나무, 엄나무, 잣나무, 피나무, 가래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군락(群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하고 철책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 성황림 중심부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자리 맞배지붕 목조 기와집 형태의 당집이 있다. 당집은 정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가을에는 일부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마을에서는 이 숲을 성황당이 있는 곳이라서 ‘당숲’이름으로 더 많이 부른다. 이곳 당제(성황제)는 원주시에서도 유명해서 1998년부터 3년 간은 원주에서 당제사를 지원하고, 가끔씩은 시장이나 면장이 참석하기도 한다. 당제의 규모는 커서 한 때는 신림면 전체 유자들이 모두 모여 소를 잡아서 지냈다고 한다. 소를 잡던 것은 해방 이후에도 몇 번 있었으나 경비를 충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돼지를 잡아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p> <p>지금은 당(堂)을 믿는 사람들 12명으로 구성된 ‘성황계(城隍契)’에서 제사를 전담하고 있다. 예전에는 유사 1명과 유사를 돕는 보조역 2명 등 3명을 뽑았고, 축관이 1명 따로 있었는데, 서로 귀찮아 하므로 7년 전부터 순번을 정해서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유사는 제물을 만들고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로서 1년간 2번의 제사를 모두 치른다. 4월 4일이 되면 유사는 원새끼를 꼬아 성황숲 입구와 성황당, 유사집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7일에 유사는 장에 가서 제사에 쓸 제수품과 음복 때 먹을 수 있는 음료수와 술을 구입한다.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포와 삼색실과 정도이고, 백설기는 방앗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배달된다. 돼지는 원래 산 돼지를 사서 마을에서 직접 잡았는데 지금은 추주간에 맡겨 해체시킨다. 돼지는 통째로 살짝 삶아 제상에 올리고 내장은 큰 그릇에 담아 함께 진설한다. 제사는 초이레 밤에 지내는데 11시나 12시쯤에서 초파일의 첫 시간이 되는 셈이다. 제사 차례는 진설, 분향·강신(焚香降神), 제관의 헌작, 재배의 순이고, 마지막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성황님 것, 마을, 성황계 계원들 순으로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모인 사람들끼리 간단히 음복하고, 다음날 유사집에 모여 모두 식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음</p>

복한다.

축문(祝文)

維歲次 ○年 ○月 ○○朔初○日 下城南里民一同 敢昭告于上城隍任(堂神位)前 伏以 百拜謝恩 年年世世恩德 敢何進言 今奉吉辰 伏乞○○ 春(秋)期致誠氣和 萬物繁生 百福咸至 時堂萬事 如意 歲和年豐 老小咸樂 雨順風調 五穀登豐 六畜蕃殖 家家戶戶 如天至誠 東西南北二十四方 到處受福 如意必成 三災八難 遠外速作送去 小無疾患 以此祝願 至誠合掌 百拜尊神 尚 饗

[유세차 ○년 ○월 ○○삭 ○일 하성남 이민(里民) 일동은 감히 성황님(堂神位) 앞에 밝게 고합니다. 삼가 아웁니다. 백배 사은(謝恩) 하노니 해마다의 은덕을 감히 어찌 다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제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바라옵건대 ○○은 ○○○○ 화창하고 만물이 번성하게 성장하며 백복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뜻과 같이 되게 해 주소서. 나라는 태평하고 곡식은 잘 되며 노소가 다 즐겁게 살며 비는 제 때에 내리고 바람은 고르며 오곡이 풍성하게 수확되고 육축(六畜)이 살찌며 가구마다, 호구마다 하늘의 지성(至誠)처럼 성실하고, 동서남북 24방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며 뜻대로 받드시 이루어지며 삼재(三災)와 팔난(八難)이 멀리 보내지고 조금도 질환이 없도록 해주소서. 이로써 축원하고 지성으로 합장(合掌)하여 백배하고 신에게 전(奠)을 드립니다. 흠향하소서.]

제목	2002년 추계 윗성남 당고사
현지조사일	2002년 10월 14일
수록지	이소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 41~47쪽.
조사 내용	<p>윗성남의 성황당은 마을입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신림면 성황림 내에 자리하고 있다. 성황당은 성황림 내 공터에서 조금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치악산을 바라보고 있다. 성황당의 뒤흘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당집의 좌우로는 높이가 약 3m도 넘는 굵은 아름드리 엄나무와 전나무가 서 있는데 이는 神木으로서, 마치 당집을 호위하는 듯하다.</p> <p>성황당은 정방형에 가까운 한 칸 건물로, 크기는 약 280x290cm로 신림면의 여느 마을보다는 큰 규모이다. 또한 본래는 굴피지붕을 얹었으나 현재는 나무기둥에 기와를 올린 맞배지붕집이다. 당집은 동쪽을 향해 있으나 당집 내부에 마련된 재단은 북향이다. 재단은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에 나무로 만든 것으로, 전면의 벽으로부터 약 80cm가 돌출되어 있으며 당집 내부의 북측면 전체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p> <p>당고사는 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치악산의 산신을 위한 제사이다. 성황제의 정확한 시작은 알 수 없지만, 마을이 형성된 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성황제의 유래가 깊다는 의미로 “100년도 더 넘은 제가”라고 전한다. 깊고 험한 치악산 자락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화전을 일구었고 산촌마을의 안녕을 위해 당을 만들고 성황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은 지금도 돌을 쌓아 집 울타리를 치고 논밭의 구획을 할 정도로 돌이 많은 척박한 지역이다. 당연히 이러한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는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픈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던 만큼 큰 욕심 없이 ‘無害無得’¹⁾하고자 했던 그들의 소망은 치악산 계곡마다 자리잡은 마을들의 성황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p> <p>제일이 다가오면 우선 유사를 선정해야 한다. 유사는 당고사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생기복덕을 살피고 집안에 부정한 일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서 당고사에 참여하는 가구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약 20여 호만이 참여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사도 이 20호 중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기복덕을 보거나 부정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유사와 함께 축관과 두 명의 집사도 선정하되, 모두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한다.</p>

당고사를 올리는 사월과 구월 초하루 전에 유사가 선정되면, 가장 먼저 유사 집에 금줄을 친다. 유사는 자신의 몸과 집안팎을 정결하게 하고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금줄은 길지를 넣은 원새끼로 끈 것으로, 제사가 끝난 다음날까지 걸어둔다. 또한 당집도 청소하고 지난 치성 때 사용하였던 금줄을 떼고 새 금줄을 친다.

유사는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일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윗성남의 주민들은 당고사는 마을을 위하는 것인 만큼 금기를 수행하는 유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유사로 선정되면 불만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렇다고 유사직을 수행한 사람에게 특별한 보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제물로 쓰인 육고기 중에서 한 두 쟁기고기²⁾만을 더 챙겨 주는데 그치고 있다.

만약 당고사를 앞두고 마을에 초상과 같은 죽은 부정이 발생하면 당고사를 지내지 않고 달(月)을 ‘가쳐서’ 미룬다. 예를들어, 구월 가을 치성을 올리는 팔월 말에 초상이 난 것은 관계없지만 구월 초순에 초상이 났다면 그 달은 부정한 달이므로 구월을 지나 이후 좋은 날을 택해 제를 올린다.

제비는 각 호에서 균일하게 추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성황계에 저축된 자금이 있을 때는 추렴을 걷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나 돼지를 잡지 않고 돼지머리만을 사용할 때는 유사의 개인 부담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2002년 가을치성에는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는 13만원이었고 나머지 제물 준비에 3만원이 들어 총 16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나 기존의 저축된 자금을 사용하여 추렴을 걷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城隍田 이 있었을 때는 권들 가운데 일정한 사람에게 賭地로 주어, 그 賭地로 제물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城隍田은 1963년 계원들의 합의 하에 마을에 신림초등학교 성남분교를 세울 때 기증하였다고 한다.

제일의 전날, 오전에 유사는 제물을 위한 장을 보러 나간다. 돼지를 잡을 경우 원주 시내의 ‘중앙시장’으로 가지만, 간소하게 돼지머리만 올릴 경우는 가까운 신림면의 시장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때 유사는 부정한 것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목적인 곳만 향해서 간다. 주변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주위 깊게 보지도 않는다.

떡과 메를 지을 쌀 한 말과 통북어, 막걸리, 향, 양초, 사 고지 등을 사오는데 이때 물건값은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또한 돼지도 미리 제사에 쓸 것이라고 귀뜸해 놓아 가능한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사온다.

여러 제물 중에서 술과 메는 당집 앞의 공터에서 직접 만들어서 올리곤 하였으나 요즘은 제물 일체를 유사 집에서 준비해온다. 모든 제물을 준비하기 전에는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재계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한다. 또한 제물을 조리할 때는 간을 보거나 절대로 먼저 먹지 않고, 고춧가루 등의 양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물로 준비한 쌀 한 말 중에서 닷 되는 떡과 메를 짓는데 쓰고, 나머지 닷 되는 대동회의 때 함께 나누어 먹을 밥을 짓는다. 떡은 백설기로 하는데 떡을 찌 때는 부정하지 않게 목욕재계하고 찐다. 그렇지 않으면 잘 익지 않고 설익은 떡이 된다. 떡이 설익으면 주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성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사는 떡이 설익지 않도록 정성을 다한다. 작년의 경우, 마을 입구에서 식당을 하는 주민이 유사를 맡았는데, 직업상 외지사람들과 접촉해서 부정을 탔는지 떡이 잘 익지 않고 결국은 설익은 떡이 되었다고 한다.

술은 원래 일주일 전부터 당집 앞의 공터에 술독을 묻어 놓고 막걸리를 만들어 썼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옥수수 가루를 뿜아 찌낸 뒤 누룩과 배합하여 발효시킨 옥수수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제사 지낼 것은 당집 앞의 술독에서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마실 것은 유사 집에서 만드는데, 한창 많이 담글 때는 다섯 말 정도를 만들곤 하였다.

돼지는 제를 지내기 한나절 전에 유사택에서 집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잡는다. 이때에도 부정한 사람은 오지 않고 초상집에 갔다거나 나쁜 일을 본 사람은 스스로 참석하지도 않는다. 돼지는 통으로 잡아서 진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요즘은 돼지를 잡더라도, 돼지머리와 한 두 쟁기 정도만 진설하고 있다. 나머지 고기는 제를 지낸 다음날 아침 열리는 대동회의 때 함께 먹기도 하도, 계원들에게 등분하여 나누어 준다.

또한 나물은 보통 무나물 한 가지만 준비하는데,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고 올린다. 이 외에도 밤, 대추 등의 삼색실과를 마련한다.

당고사는 저녁 8시 경에 올리는데, 축관과 집사 등 임원들이 유사 택에 모여서 준비한 제물을 나누어 들고 당집으로 향한다. 성황당에 도착하여 집사가 제물을 진설 할 동안 나머지 제관들은 미리 싸 가지고 온 의관을 입는다. 원래는 각 제관들이 의관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올려야하는데 지금은 약식으로 탕건과 옥색두루마기 정도만 입는다.

당집 내부 제단이 되는 북측 벽에는 양쪽 끝에 못을 막고 금줄을 늘어뜨려 놓고, 벽 중앙에는 깨끗한 종이를 두 장 정도 겹쳐 걸어 놓았다. 이것을 ‘山神’이라 부르는데, 만약 학생이 산신을 떼어다가 글을 쓰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한다. 제단 주양에는 나무를 꺾어 만든 위패에 ‘上城隍之神’이라 쓰여있다. 이 위패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제물을 진설한다,

메는 새옹 채로 올리고 떡도 시루째로 올린다. 이때 떡 시루의 양쪽에 포를 꼬리 쪽으로 꽂아 세워둔다. 돼지고기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장도 큰 함지박에 담아 함께 올리며, 특히 흑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쫓기 위한 의미로 돼지머리에 칼을 꽂아 세워 놓는다.

당고사는 먼저 당내에 굶은 부정과 맑은 부정을 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축관은 바가지에 당집 옆을 흐르는 냇물을 떠다가 숯 한 덩어리를 넣고 “굶은 부정올시다, 모든 부정을 천리, 만리로 속거천리하게 해주시오.”라고 오치면 당집 내부부를 돌며 조금씩 흠뿌린다. 이후 축관은 바가지를 당집 밖에 있는 집사에게 건네 주면, 집사는 굶은 부정 바가지를 들고 당집의 왼쪽으로 돌면서 당집의 네 귀퉁이에 나머지를 뿌린다. 이때 집사도 “굶은 부정올시다.”라고 말하면 뿌린다.

이후 축관은 다시 맑은 냇물을 받아서 이때는 아무 걸도 넣지 않은 채로, “맑은 부정올시다. 남녀노소가 모두 깨끗한 마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역시 당집 내부에 흠뿌린다. 나머지 부정도 당집 밖에 뿌리되, 이번에는 굶은 부정과는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면서 뿌린다. 이렇게 두 번의 부정풀이를 마치면 이제 성황당은 모든 부정을 가시고 깨끗하게 정화되어 신을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된다.

이어 향을 피워 당집 안에 향내가 가득 퍼지면 강신하고 참석한 임원들 모두 재배한다. 유사가 먼저 헌작재배하면, 잔을 올리고 난 후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은 나물 위에 언즈는다. 다시 유사만 재배한다. 이어서 축관과 집사가 순서대로 헌작한 후에 축관은 준비해 온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마을에 전래되어 오던 것을 그대로 써왔으나 그 내용 중에 시대가 변하여 맞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약 3년 전에 원주향교의 한학자들에게 부탁해서 받아 온 것을 사용하고 있다.

<윗성남 축문>

維歲次 ○○ ○月 ○○朔 初○日 ○○ 都有司○○○ 敢昭告于
 上城隍神位前 伏唯 百拜謝恩 年年世世 恩德敢何進言 今峯吉
 辰 伏乞○○
 春(秋)期致誠 氣運和陽 萬物蘇生 百福咸臻 時堂萬事 如意亨
 通
 歲和年豐 老小同樂 雨順風調 五穀登豐 六畜蕃植 家家戶戶
 如天至誠
 東西南北 二十六方 到處受福 如意必成 三災八難 速去遠外
 小無疾患 以此祝願
 至誠合掌 百拜尊神 尚饗

독축이 끝나면 일동 재배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축관이 올리는데 한 명의 집사가 축관 옆에 앉아 소지 올릴 성황계원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을 보며 호명하고, 유사와 다른 집사는 축관의 뒤에서 소지 올리기가 끝날 때까지 사 고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동그랗게 말아 준다.

소지를 올릴 때는 산신소지를 가장 먼저 올리고 유사소지를 올린 후에 성황계에 속한 사람들만 그 가호의 번지 순서대로 호구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비롯한 타지에 나가 있는 주민들의 소지인 출전군인소지와 출향인사 가운데서 별도로 부탁한 사람들은 소지명단의 끝부분에 넣는다. 소지를 올리는 사람은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대신 빌어 주는데 주로 건강, 사업번창, 결혼, 득남 등이다.

소지는 끝까지 활활 타면서 제가 되어 위로 올라가야 잘 오르는 것이다. 누구네 소지가 잘 올라가면 그 집안의 일년 운수가 좋을 것이라고 여겨 집사들은 “어이 잘 올라가네,” 등의 말로 자기 일처럼 좋아한다. 그러나 반대로 흑시라도 타지 않고 떨어지는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이므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모아 놓는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돼지 귀 하나를 잘라, 그 위에 메와 떡을 각각 조금씩 떼어 얹어 제단 위에 헌식으로 남겨 놓는다.

이렇게 성황당 안에서의 제가 끝나면 돼지머리, 떡, 메, 향, 초 등의 제물 일부를 들고 당집 밖으로 나온다. 당집의 왼쪽에 금줄 친 엄나무 앞에 약 60cm 높이로 솟은 바위 위에 떡시루와 돼지머리를 올리고 초와 메, 향은 바닥에 진설한다.³⁾

먼저 함께 재배한 후에 축관이 단잔을 올리고 다시 재배

	<p>한 후에 수부소지를 올린다.</p> <p>“수부님 소지올시다. 일년 내내 삼백육십오일 순풍에 나뭇가지 하나 안 부러지고 태풍에도 잘 견지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수부님께서 잘 돌 봐주셔서 숲이 이렇게 잘 되어 갑니다.”</p> <p>소지를 올린 후, 성황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돼지 귀 하나와 북어, 떡을 떼어 헌식으로 제물을 진설했던 바위 위에 남겨 놓는다.</p> <p>다시 성황장으로 돌아와서 음복을 한다. 성황님께 올린 떡과 고기, 술은 ‘복있는 음식’이므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 은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음복을 마친 이후 철상하고 마을 로 돌아온다.</p> <p>당고사 이튿날 아침에 주민들은 모두 유사 댁에 모여서, 메와 떡을 만들고 남은 쌀로 밥을 짓고, 돼지고기 삶은 물 에 시래기를 넣은 국을 끓여 아침식사를 한다. 이때 밖에서 는 집사들이 남은 돼지고기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계원의 수만큼 분육하여 봉투에 담아둔다. 또한 음복을 겸 한 식사 후에는 대동회의를 여는데 금번, 당고사의 회계보 고를 하고 차기 대동회장과 총무를 선정하기도 한다.</p>
--	--

- 1) 無害無得이란 표현은 제보자 가운데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큰 욕심없이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자 했던 민심을 읽을 수 있다.
- 2) ‘쟁기고기’란 식용으로 잡은 마소나 돼지 따위 짐승의 몸뚱이를 각을 떼서 살코기를 바르지 않고 쇠갈고리에 걸어 놓은 뼈와 살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 3) 당집 좌우의 나무는 보통의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신목임이 분명한데, 이 중에서 수부로서 제사를 받는 나무는 오른쪽의 엄나무이다. 즉 왼쪽의 전나무는 당집 내부의 제단과 동일한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절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제목	2010년 추계 및 2011년 춘계 당고사
현지조사일	2010년 10월 16일, 2011년 05월 09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42~54쪽.
조사 내용	<p>원주 성황림의 신성성은 일 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원주 성황림 성황제⁴⁾를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성황림이 위치한 신림면은 각각의 자연부락마다 당을 가지고 해마다 제를 지낼 만큼 주민들의 마을신앙에 대한 의지가 각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⁵⁾</p> <p>치악산(雉岳山) 권역의 공동체 신앙은 강원도 영서지역의 산간신앙형태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김의숙, 1997:371-378), 신림면의 여러 자연부락 중 성남2리 본동(윗성남)의 당고사는 제의의 장소가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신림면을 포함한 원주시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신림면의 마을제의를 기록한 연구자료들 중 상당수가 윗성남 당고사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강원도 세시풍속』 편에 원주시 신림면 성남2리 본동 성황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경수현(1994), 신종원(1994), 이창식(2005), 이소래(2007) 등의 논저에서 성남2리 윗성남 당고사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윗성남(上城南)’당고사의 연원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100년 이상 지속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거나, 암성황수인 엄나무의 나이가 300년이 넘었다는 것을 들어 당고사의 역사를 더 오래 전으로 소급해서 보기도 한다.</p> <p>성남2리가 속한 신림면의 제일(祭日)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 북부 일대와 경상도 일대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의 동제(洞祭)가 주로 이 날짜에 치러진다. 그러나 성남2리 윗성남의 경우, 봄에 치러지는 당고사의 제일은 음력 4월 7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날짜는 종전 4월 초파일 자정에 하던 행사를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시간대를 앞당긴 것으로, 본래는 4월 7일에서 초파일 자정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지내던 것이다. 이를 두고 4월 초파일의 고사는 불교와 연관된 것이며, 주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초파일 행사의 일환이 절(寺)이 없어진 후에도 남아 전해져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별 뜻이 없이 농사일이 바쁜 때를 피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신종원, 1994:6).</p>

1970년대 이전, 이 마을에는 화전민(火田民)들이 200여 명 가량 거주하며 화전을 경작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한 영서 내륙의 산간지대에 집중적으로 화전이 분포하고 있었는데(현영학, 1985), 그 시기에는 주민의 숫자도 많고 당고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 제의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이고, 제물도 소 한 마리를 잡았을 정도로 제의의 규모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시행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산림녹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 치악산 산비탈에 화전(火田)을 일구던 이 마을 100여 가구의 화전민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마을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당고사를 유지할 수 있는인적(人的), 물적(物的) 토대는 흔들리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추렴하여 진행하던 당고사도 20명남짓의 당계원(堂契員)들의 행사로 축소되어 명맥을 이어 오다가, 2004년 문화재 당국의 지원이 시작된 후, ‘성황제 보존협의회’가 발족되고, 매년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아 당고사의 명맥을 잇게 되었다. 윗성남 당고사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원주 성황림이 우리나라의 당숲을 대표하는 예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천연기념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후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당고사가 행해지는 장소인 윗성남 성황당은 숲의 입구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좌·우 성황수(城隍樹)사이, 동(東)쪽을 바라보고 지어져있다. 성황당 내의 제단은 우측 수 성황수인 전나무를 바라보며 북면(北面)해 있는데, 이는 한국 마을제당의 대체적인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다.⁷⁾ 제단에 모셔져 있는 신은 ‘上聖皇之神’이며, ‘성남리 윗성남(上城南)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⁸⁾ 성황당은 성황제가 시작되기 5~7일전 행사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성황제 행사 당일에만 개방된다. 사람의 발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윗성남 당고사의 준비 과정은 크게 제관(祭官) 선정⁹⁾, 제비와 제물(祭物) 준비, 제수(祭需) 준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당고사의 제관은 유사(有司)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제관이라는 호칭을 쓴다. 과거 제관을 선정할 때는 생기복덕을 가려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지만, 윗성남 당고사가 대외적인 행사가 된 현재는 제관을 외부인사가 맡아 진행한다.

당고사에 쓰이는 제비(祭費)는 2004년 이전에는 당계원

들의 주립으로 충당하였으나, 현재는 원주시에서 매년 춘·추로, 문화재청에서 3년에 한번씩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아 제물 준비와 제수 준비, 그리고 외부 인사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제물(祭物)은 기본적으로 신림면에서 마련해 오는데, 신림면 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은 원주시로 나가서 마련한다. 제물은 마을 부녀회원들과 마을 총무·이장 등이 나서서 준비하며, 구입한 모든 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인다. 시 당국의 지원금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만큼, 회계 내역은 따로 ‘성황제’ 장부를 두어 관리되며 그 결과는 원주시에 보고된다.

당고사에 쓰이는 제수(祭需)는 마을 부녀회원들이 만든다. 6~70대의 노년층을 중심으로 제수를 장만하는데, 성황신에게 올릴 고기와 떡, 과일술 등은 모두 외부에서 주문하고, 메와 갯, 나물, 전 등의 음식만 만든다. 이 마을에서는 특히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진설하는데 매년 ‘○○고기마트’에서 돼지를 주문해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특이하게도 메밀가루를 이용한 배추전과 두릅전을 제수로 올리는데, 잡귀를 물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수 음식으로 안 쓰는 경우가 많은 메밀이 이 마을에서는 제물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메밀을 제수의 재료로 쓰는 이유는 이 지역 메밀의 품질이 좋고, 주민들이 즐겨 만들어 먹는 음식임에서 비롯한 것이라 추측된다.

윗성남 당고사의 제의 절차는 고사의 제관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당과 숲을 청소하고, 원새끼를 꼬아 금줄을 설치하고 숲 입구에 황토흙을 뿌리는 준비 과정과, 본 행사인 당고사, 그리고 음복과 뒤풀이의 세단계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당고사는 고사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사를 하기 5~7일전 부터 이미 시작된다. 성황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마을 간부와 노인회 회원 3~4명이 모여 일주일 뒤에 있을 당고사의 사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당숲 안으로 들어가 당의 문을 열고, 준비해 간 북어와 막걸리 등으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 다음, 당 안을 깨끗이 쓸어 내고, 신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반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당 안에는 박쥐 배설물 등의 먼지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인데, 그에 대한 청소 작업을 미리 해 둠으로서, 신에 대한 예(禮)를 다하는 것이다. 당청소를 마친 후에는 전 당고사 시 쳐 놓은 금줄을 걷고 새로운 금줄을 다는 작업을 하는데, 당 좌우의 엄나무와 전나무, 천

연기념물 표지석¹⁰⁾, 성황당 내부와 외부, 그리고 성황당을 기준으로 반경 50m 정도의 공간을 주변의 나무들을 이용해 금줄을 친다. 이 때 전 당고사 때 쳐 두었던 금줄을 걷어내고 새로운 새끼줄로 갱신(更新)을 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원새끼는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직접 만들며, 약 30발 분량이 소요된다. 금줄을 치는 작업이 끝나면 성황림 밖으로 나와 입구에 ‘춘계(추계)성황림 성황제 개최’라는 현수막을 걸고, 황토흙을 뿌려 둠으로서 이날의 준비 과정은 일단락된다.

당고사의 본 행사는 제의 당일 당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물을 진설하고, 성황당 안팎에 자리를 깔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고사의 순서는 부정풀이, 분향, 강신, 초헌, 독축, 아헌, 삼헌, 삼시, 철시, 참석자 헌작, 일동배례, 소지, 수부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윗성남 당고사의 제물 진설에 관한 기록은 신종원(1994)과 경수현(1994), 이소래(2007)등이 정리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제물 진설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래에 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돼지머리 대신 통돼지를 올리는 것인데, 이는 원주시의 지원금을 받게 된 이후부터 가능하게 된 일이다.

성황림이 일반에게 폐쇄되기 전에는 당고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옆에 모닥불을 지폈다(신종원, 1994:7). 성황림 외에도 여러 지역의 당숲에서 제의를 진행할 때 불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어 오는데, 이는 본래 한밤중이었던 제의 시각(時刻) 무렵의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으나, 불로서 속인(俗人)들의 부정(不淨)을 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타오르는 불길은 액운을 쫓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현재 당고사 제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의의 첫 순서로 부정풀이를 행하여 마을과 숲에 존재하는 부정이 소멸되길 비는 과정을 거친다.

본 제의를 하기에 앞서 제의 참석자들은 옷을 갈아입는데, 초헌·아헌·종헌관은 옥색 도포를, 나머지 참석자들은 흰색 도포를 입는다. 부정풀이가 진행되는 동안, 제관은 향을 사루고, 이후 강신과 초헌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고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초헌관’의 존재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2004년 이후 윗성남 당고사가 대외적인 행사로 치러지게 된 이후에도 초헌관만은 반드시 마을 주민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헌관의 자리는 남한테 뺏겨서는 안 되는 것¹¹⁾이라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 윗성남 당고사가 대외적인 행사로서 확대되어 치러지고 있지만 마을주

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제의의 주체가 항상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증거이다.¹²⁾

초헌이 끝나면 독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읽는 축문은 1980년 이전, 전래의 축문이 소실되고 난 뒤, 경북 봉화의 한 한학자가 원래의 축문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써 준 것을 읽는 것으로, 그 양식은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어, 매년 당고사 당일마다 성황제 보존협의회 회장이 직접 손으로 쓴 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상성남에 올리는 치성을 통해 마을의 모든 이가 건강하고 편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4월과 9월에 열리는 제의에 따라 축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며, 단지 춘기(春期)와 추기(秋期)를 구분하기만 할 뿐이다. 현재 성황당 내에 자리한 신위는 ‘상성황지신(上城隍之神)’인데 성황제 축문의 신위는 ‘상성남신위(上城南神位)’로 되어 있다. 이는 과거 축문이 소실된 이후, 다시 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황’을 ‘성남’으로 잘못 표기하였거나 ‘상성남성황신위’를 축약해서 표현한 결과라고 짐작된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윗성남 마을의 신’에 대해 체를지내는 것이므로 ‘상성황’과 ‘상성남’은 동일한 뜻이라고 여기고 있다.¹³⁾

독축 이후에는 아헌, 종헌, 삼시의 순서로 제의가 진행되며, 삼시를 한 후 잠시 시간이 지난 뒤 철시 후 외부 참석자들의 헌작이 이어진다. 이때는 대개 남자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헌작하는데, 여자 참석자들은 나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또한 당고사 진행 내내 마을 여성들은 제물과 제수를 준비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제의 장소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떨어져 있거나, 아예 자리에 불참하는 등 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석자 헌작이 끝난 후에는 제관과 헌관 일동이 재배(再拜)하고, 마을 사람들의 기원문을 불사르는 소지(燒紙)가 이어지는데, 맨 첫 번째로 ‘성황소지’를 올린 후, 마을 소지, 개인 소지 순으로 올리게 된다. 소지를 올리면서는 ‘마을 아무개의 소지이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건강, 멀리 사는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등의 기원을 담는다.¹⁴⁾ 소지의 다음 순서는 ‘수부제’, 즉 당 좌측의 ‘엄나무’에 대한 고사를 지내는 것인데, 본래는 소지 올리는 일을 완료하고 수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개는 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성황소지만을 올리고 나서 수부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윗성남 당고사에서는 ‘수부제’를 ‘수분제’라고 칭한다.¹⁵⁾

소지가 끝난 후 당 안에 진설된 메와 갯, 떡, 나물, 과일, 북어 등의 제물을 내와 엄나무 앞의 돌제단에 다시 진설하는데, 헌관이 절을 올릴 때, 옆에서는 제관이 암성황수 소지를 따로 올리면서 ‘수분님 소지올시다. 부디 숲을 올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告)한다.¹⁶⁾ 엄나무가 상을 받는 동안 우측의 전나무것도 받지 않는데, 좌측 암성황수(엄나무)에만 따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오랜 관습이라고 한다.¹⁷⁾ 수분제를 올리며 신의 위치가 우측에 있으므로, 우측의 전나무도 함께 상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경수현:1994:94).

수분제를 마치고 철상을 하면, 제의의 절차는 일단락되며 일동은 자리를 정리하고 마을회관으로 돌아가 음복을 하는 것으로 이 날의 행사는 마무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남리 윗성남의 당고사는 마을 주민들만의사적(私的)행사가 아닌 민(民)·관(官)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로서 수년째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이는 성남리 여타 자연부락의 마을제의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래 윗성남 마을에는 성황림에 딸린 성황전(城隍田), 일명 ‘위토’가 있어, 도지를 부쳐 매해 제를 지내는 비용을 산출하는 데 썼다고 한다. 이 위토를 소유함으로써 마을에서 춘추로 열리는 당고사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위토가 사라진 이후 당고사의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참여 인원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아 ... 2004년 봄까지는 동네 몇 사람이 지냈어요. 옛날에는 거기 제사지내는 땅이 있었어 땅. ‘위토’라고 하는거야 위토. 옛날 그 저 양반들이 땅 이렇게 쥐가지고(중략), 농토를 주고서 농사를 지어 먹고, 일 년에 한 번씩 시제라고있어 시제, 가을에 지내는 거 그 시제를 차려 줘요. 그 땅을 보고 ‘위토’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땅이 있었어. 성황림에 그... 딸린 땅이. 닷 마지기가.750평정도. 그게 있어가지고 쌀을, 이제 그 농사짓는 사람이 고 도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로 제사 지냈거든? 그거 가지고 옛날에는 저기를 했대요, 소를 잡아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땅을 여기 폐교가 된 분교가 성림분교라는 게 있어. 그거를 여기 유치하는데, 이제 저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이랑 경쟁이 붙어

서 이제 여기다 하는데 우리 동네서 대지를 댄다, 땅을.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가서 분교 이거를 산거여. 이제, 땅을 팔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지낼 자금원이 없어 이제,자금줄이 없어져... 그래서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했는데. 그 때 가난했잖아. 6.25전후로 가난했잖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나갔어, 돈 못 내면 떨어져 나가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열 몇 명까지 남았어요 그게, 2004년까지[이어진거지].

<2010.10.15 홍○○(남, 75)>

위의 내용을 통해 과거 성황림에 딸린 농토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땅을 마을의 중요 시설 유치를 위해 사고 팔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윗성남 당고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간신히명맥만을 이어 오게 된 상황에 이르렀었다는 것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최인학은 동제(洞祭)가 공동체의 연대를 견고히 하는 장치(메커니즘)로서 기능하며, 공동체의 기능이 쇠퇴하면 동제는 자연 소멸하며 또한 동제를게을리하게 되면 공동체의 연대감 또한 해이해진다고 보았다(최인학,1995:52). 성황림의 성황제 또한 기존 마을 성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탈의 과정 속에서도 당계를 운영하면서 마을숲의 제의를 전승해 왔던 주체들은 현재, 자신들의 ‘윗성남 당고사’가 대외적인 행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그것으로 제의 자금을 충당하고, 제의가 있을 때마다 외부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고사를 남에게 뺏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¹⁸⁾ 현재 원주 성황림 성황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황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배경과, 마을의 당숲이 천연기념물이 되면서 생겨난 여러 현상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성황제는 성황림 숲에서 전승되는 무형(無形)의 문화유산이자, 유형의 자산인 성황림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원주시 신림면 성남2리 성황림에서 개최되는 마을제의를 공식 명칭은 ‘원주 성황림(춘/추계)성황제’로, 성남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윗성남 당고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3.3장부터는 현지의 언어에 따라 ‘원주 성황림 성황제’의 명칭을 ‘윗성남 당고사’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하겠다.
- 5) 신림면 전체의 마을신앙에 대한 연구로는 이소래(2007)의 논저를 참고하길 바람.
- 6) 화전민들이 일구던 산비탈의 경작지는 지금은 완전한 산림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토지 명목은 아직도 밭(田)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2011.1.17. 제보자: 오○○).

제목	성황림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원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286쪽
조사 내용	<p>신림면 성남리 191 천연기념물 제93호 1962년 12월 3일 지정 조선 기타유적</p> <p>온대림의 일부로 잘 보존된 이 숲은 전나무, 소나무, 복자기, 귀룽나무, 느릅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찰피나무, 말채나무 등을 비롯한 50종류 내외의 육본식물과 다양한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다.</p> <p>이 숲은 치악산록에 정착한 선구자들이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치악산의 성황신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던 신성한 숲이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켜온 결과 남은 숲이며 숲 양쪽에는 내가 흐르고 있어 식물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도 성황당 옆에 서 있는 커다란 전나무(높이 29m, 가슴높이의 지름 1.3m)와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10여 그루의 늙은 복자기들이 자연을 의지하여 삶을 영위하던 선조들의 옛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p>

- 7) 신림면의 신앙대상물들은 대체로 성황당, 당숲, 수부 등으로 간소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성황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타 지역의 마을제당이 장승, 솟대, 선돌, 돌탑, 미륵 등의 구조물을 거느리고 있는 것에 비해 소박한 형태를 띠고 있다(이소래, 2007:56).
- 8) 성남리의 자연부락 중, 가둔지, 아랫성남, 윗성남, 절골, 싸리치 등이 각기 당을 가지고 마을제의를 전승하고 있는데, 이들 당의 신은 성황지신, (無), 상성황지신, 절골산신, 치악산성황신위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이소래, 2007).
- 9) 2004년 원주 성황림 성황제는 원주시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는 행사가 되어 여러 외부인사(문화재청 담당관, 원주시 문화관광과, 원주시 국회의원, 신림면 관계자)가 다 같이 참석하는 대외적 행사가 되었다. 신림면장, 원주시 의원 등 원주시 주요 인사가 제관을 맡기도 한다.
- 10) 현재 성황림 내 엄나무의 전면(前面)에는 ‘천연기념물 제 93호 성황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 11) 2011.5.9, 제보자: 허○○(남, 78)
- 12) 2010년 추계 성황제와 춘계 성황제의 초헌관은 마을 노인회장이 맡았다.
- 13) 2011. 6. 13. 제보자: 박○○(남, 63)
- 14) 당고사 소지 사설은 대개 제관이 맡는다. 수십 개가 넘는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올려야 하므로 제의 참여 경험 많은 제관이 이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 15) ‘수분제’ 혹은 ‘수분’이라고 하나 연구 자료에서는 ‘수부제’라고 표기된 경우가 많다.
- 16) 수분제의 의미는 성황수가 주위의 수분을 잘 빨아들여 생명을 잘 유지하게끔 기원하는 것이라 한다(제보자: 허○○, 남, 78).
- 17) 엄나무에 고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마을 원로의 해석은 이러하다. “그냥 저기서 소고기고, 닭고기고, 또 엄생이고… 그걸(엄나무) 넣고 삶으면 잡내가 없어지고 맑은 정신으로 자라난다고, 그 나무가 아주 유명한 나무야. 사람을 건강하게 해 주고, 그렇게 엄나무가 그냥 엄나무가 아니야, 사람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나무야. 그렇게 큰나무가 이 위에 원주시에 없어. 우리 마을에 제일 큰 거야. 그 엄나무가 무지하게 큰 거야. 그렇게 큰 나무가 없다고.” < 2011. 5.9. 제보자: 허○○(남, 78)>
- 18) 당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 19) 정명철은 그의 연구에서 제의 명칭을 “당산제, 당제, 동제, 촌제, 동신제, 도당제(도당굿), 부군당제(부군당

제목	2018년 추계 당고사
현지조사일	2018년 10월 17일
수록지	이종우, 「강원도 영서 지역 마을의례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62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64~69쪽.
조사 내용	<p>성스럽게 여겨지는 산을 지칭하는 이름이 다양한 만큼 그곳에서 진행되는 의례의 명칭 역시 다양하다.¹⁹⁾ 성황림에서 진행되는 의례의 정식 명칭은 ‘성황제’²⁰⁾로, 매년 음력 4월 8일²¹⁾과 9월 9일에 의례가 치러진다.</p> <p>사진에서 보이는 행사 홍보물에서 ‘성황제’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 마을 이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장은 “이전에는 ‘윗성남 당고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성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장은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는데, 그것은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해제된 성남1리 아랫당숲에서도 “당고사”라는 명칭을 가진 마을 제의를 치른다는 것이다. 성스러운 숲으로 인식되는 공간이 홍수로 사라진 상황에서도 마을의례는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이다.</p> <p>의례가 진행되는 날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음력 4월 8일과 음력 9월 9일이다. 이 가운데 필자가 참석했던 의례는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음력 9월9일) 오후 4시에 있었던 ‘성황림 가을 성황제’였다.</p> <p>의례는 오후 4시에 있었지만, 실제 의례의 직접적 준비는 오전 10시부터 성황림 체험관에서 시작되었다. 의례의 순서는 그림과 같다. 의례의 준비는 음식의 준비를 비롯하여 동선의 확인, 기자제와 역할 분담의 최종 확인, 내빈에 대한 참석 여부 확인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었다.</p> <p>이후 오후 1시부터 성황림이 개방되었고, 사람들이 성황림에 들어올 수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고, 숲 해설가들의 성황림에 대한 해설이 병행되며, ‘소원지 올리기’에 올릴 소원지를 접수 받았다.</p> <p>오후 3시에는 성황림 체험관에서 성황제를 준비하던 제관들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제관들은 소위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성황림 체험관에서부터 성황림까지 제수용품을 실은 차를 선두로 해서 약 20여분 동안 행진을 했다. 제관 행렬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통제 차량을 선두로 진설(陳設)할 통폐지와 제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마을의례에 사용되었던 음악이었다. 의례의 행렬의 선두에 있었던 트럭의 앰프에서는 궁중제례악이 송출되었다. 마을</p>

전통 의례가 설행되는 곳에서 궁중제례악이 사용된 것이다. 마을 의례에서 사용된 음악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감은 되지만, 궁중제례악이 성리학의 정신이 반영된 음악이고, 현대 마을의례가 전통 궁중의례와 그 맥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선곡이었다. 마을의례의 음악의 발견이 추가될 필요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제관 행렬이 도착한 후 제수의 진설이 이어진다. 제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물은 돼지 한 마리였다. 오후 4시부터 본격적인 의례가 시작되었다. 의례의 순서는 ‘도열→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 헌작→독축(讀祝)→아헌(亞獻) 헌작→종헌(終獻) 헌작→삽시(插匙) 종저→제관 헌작→헌다→철시 복반→사신’의 순서로 이어졌다. 강신 때는 제주의 분향이 있고, 참신 때는 제례에 참가한 사람들의 재배(再拜)를 한다. 초헌, 아헌, 종헌 때는 각각을 담당하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존재한다. 유교의례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희망자 헌작, 철상, 수부제, 소지올리기, 음복은 성황당에서의 의례 후 행사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성황당 안에서 희망자는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헌작을 수행하였고, 동시에 성황당 밖에서는 수부제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본 행사가 끝난 후 성황림 체험관에서 뒤풀이 화합잔치가 열렸다.

維歲次 ○○ 月 朔 初 日 ○○ 都有司○○○ 敢昭告于 上城隍神位前伏唯 百拜謝恩 年年歲歲 恩德敢何進言 今奉吉辰 伏乞 春(秋)期致誠 氣運和陽 萬物蘇生 百福咸臻 時堂萬事 如意亨通 歲和年豐 老少同樂 雨順風調 五穀登豐 六畜蕃植 家家戶戶 如天至誠 東西南北 二十六方 到處受福 如意必成三災八難 速去速外 小無疾患 以次祝願 至誠合掌 百拜尊神 尙饗

굿), 성황제(서낭제), 포제, 별신제, 천룡제, 산신제, 지신제, 골매이제, 당고사, 거리제, 노제 등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정명철, 「마을숲 기능의 재해석과 활용방안」, 282쪽.

20) 이 곳의 의례의 명칭은 정식 명칭의 경우 ‘원주 성황림(춘/추계) 성황제’로, 성남리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성남 당고사’라는 명칭으로 불린 적도 있다. 김인선, 「마을숲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원주 성황림을 중심으로」, 71쪽.

21) 김인선은 음력 4월 7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 43쪽.

제목	성남리 웃성남 성황당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원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286쪽
조사 내용	<p>미상 기타목조물(城隍堂)</p> <p>치악산 상원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웃성남에서는 매년 음력 사월 초파일과 9월 9일로 일년에 두 번 성황제를 올리고 있다. 웃성남의 성황제와 성황당은 신림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해방 후에는 지역의 유지들이 참가할 정도였다.</p> <p>성황당은 1962년,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된 성황림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성황당은 성황림 공터에서 조금 물러선 곳으로, 성황림 모두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집의 좌우로 아름드리 엄나무와 전나무가 각각 서 있다. 당집은 정방형에 가까운 한 칸 건물로, 나무기둥에 기와를 올린 맞배지붕 집이며, 제단에는 ‘上城隍之神’이라 쓰인 위패를 모셨다.</p>

제목	신림면 성남1리 아랫성남 성황당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원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287쪽.
조사 내용	<p>미상 기타 목조물(성황당)</p> <p>아랫성남에서는 매년 음력 사월 초파일과 9월 9일에 당고사를 올린다. 본래 마을 입구의 당숲에 성황당이 있었지만 당숲을 가로질러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주령천 옆으로 이전하여 개축하였다. 성황당은 자연석으로 기단을 만들고 송판으로 벽면을 처리한 한 칸짜리 맞배지붕 당집으로 내부의 제단 위에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위패가 모셔져 있다.</p> <p>현재 제사는 생기복덕이 맞으며 아프지 않고, 집안에 우환이 없는 등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도가로 선정하지만 근래에는 주로 반장이 대신하고 제물은 마을기금을 꺾어서 준비한다.</p>

제목	성남리 절골 성황당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원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282쪽.
조사 내용	<p>기타 목조물(성황당)</p> <p>치악산 남대봉(1,181m) 아래에 자리잡은 절골은 사동(寺洞)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큰 절이 있었다 하여 절골이라 부른다. 절골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위해 매년 음력 3월 보름과 9월 보름에 당고사를 지낸다.</p> <p>당숲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을 가로질러 맞은 편 산으로 올라가면 바로 절골의 성황당이 나타나는데, 여느 당집과 달리 규모가 크고 화려한 편이다. 기와지붕을 올리고 큰튼한 나무기둥을 받쳤으며 단청의 장식도 화려하다. 당집 내부의 중앙 벽면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에 ‘ ’라 쓰인 위패가 있다.</p>

제목	성남리 가둔지 성황당
현지조사일	미상
수록지	원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282쪽.
조사 내용	<p>기타목조물(성황당)</p> <p>가둔지는 신림면 성남리의 첫 번째 마을로, 상원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4월 초파일과 9월 9일에 마을제사를 올리고 있다.</p> <p>성황당은 마을 앞 도로에서도 아름답리 엄나무 밑에 자리한 한 칸의 목조건물이다, 나무기둥에 흙벽돌을 만들어 쌓아 채우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입힌 모양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을 올리고 정면과 측면 외부의 시멘트가 벗겨진 곳이 많아 흙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p> <p>내부에는 어른의 허리정도 되는 높이에 제단을 만들었으며 특별한 신체나 위패는 모셔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정면벽에 북어와 한지, 실타래를 엮어서 예단으로 바쳤다.</p>

○ 부록2 - 윗성남 당고사 관련 구술 기록

제목	성황숲의 신성함
현지조사일	2011년 05월 03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36쪽
조사 내용	여기 낭구[나무]는 옛날엔 낭구를 여기 와서 베는 거, 그러면 벌(罰)을 받았어. 요앞에 저 터[성황림 입구 쪽]에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참나무가... 그걸 인제 베어가지고, 켜 가지고 이제 소에 구르마, 마차라고 그래 그걸, 방틀이라고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을 만드느라고 밤에 와서 자르는데, 나무 베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옛날엔 신이 참 대단했다구. < 2011.5.3. 제보자: 엄○○(남, 71)>

제목	성황숲의 신성함
현지조사일	2011년 11월 17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36~37쪽.
조사 내용	마을에 상이 나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꼭 이제 숲 지나갈 때 요기서 제를 올리고 가죠? 반드시 신고식 하고 가고, 술이 생기면 먼저 따라다 드리고, 나무에다 먼저 따라드리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대요, 시골엔 특히(중략) 그리고 저 시골에서 술 좀 거나하게 잘 드시는 분들은 숲 지나다니다 꼭 나무하고 얘기해요. 나무 붙들고서 뭐라고뭐라고 나무하고 얘기해요. 자기 하소연을 다 하는 거죠(중략).<2011.1.17. 제보자: 김○○(남, 46)>

제목	성황숲 옷물
현지조사일	2011년 11월 17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38쪽.
조사 내용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땐지, 들어가기 전인지, 예전에 시골 아이들은 노는 무대가 주로 학교 딱 끝나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노는 게 일이에요. 산을 누비면서 놀았던 말이에요(중략).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잘 타냐면, 옷이 잘 올라요. 옷나무를 사정없이 만지고 놀이를 하니깐, 옷이 오르면 예

	<p>전에 무슨 약이 있겠어요. 자꾸 이게 두들두들 해지고 빨리 안 가시잖아요, 자꾸 굵고, 점점 번지고 그러더니 어느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저길 가면 난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아버지께서] 당숲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저 당에다가 절을 하래요. 그리고 절 데리고 약수 앞으로 가신 거예요. 가서서 옷을 다 벗으래요. 다 벗고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약수물을 바르면 옷이 싹 나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약수를]적서 줬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싹 나아 버렸어요(후략). <2011.1.17. 김○○(남, 46)></p>
--	---

제목	성황숲 옷물과 기우제
현지조사일	2011년 05월 03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38~39쪽.
조사 내용	<p>저 위에 탕을 만들어놓고... 여 웅덩이 만들어놓고, 탕이라 그러지. 웅덩이를 깊우게 만들어 놓고, 옷 올른 사람, 몸 가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여 와서 목욕을 하고 씻고 그러면 그게 아물어, 또 뭘 하나면, 개 있지? 개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일년에 한 번씩 뿌려줘. 그 피는 쉽게 가지면서도, 흠집 나고 이런 걸 막아준다고 해가지고, 뭐 미신을 많이 믿은 거지 옛날에는... <2011.5.3. 엄○○(남, 71)></p>

제목	성황의 신성함
현지조사일	2010년 10월 08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41쪽.
조사 내용	<p>여기 성황님은 아주 영험하셔서, 치성을 드리면 꼭 들어 주시고, 여기 숲 둘레로 울타리 쳐져 있는데 그 밑에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술 부어 놓고 기도하고 가고 그러지. 지금 있는 성황각[성황당], 그게 새로 지은 건데, 그 전에 통나무로 지어진 성황각을 부수고 다시 지은 거야, 그 때 성황각 부술 때 책임자가 넘어갔어[쓰러졌어]그게 왜 그러냐면 신한테 정성을 안 드려서, 술 한 잔이라도 부어 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깜박하고서... 그 사람 죽다 살아났지, 성</p>

	황님한테 빌어가지고.< 2010.10.9. 제보자 : 안○○ (남, 73)>
--	---

제목	성황숲과 동자삼
현지조사일	2011년 05월 03일
수록지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42쪽.
조사 내용	<p>이제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 인제 여기 당숲 산이 있거든, 산에 그 삼이 동자삼이 아주, 몇 백년 묵었대요 그게, 엄청나게, 그게 천년쯤 묵었는지도 모르지, 변복을 해서 땡기니까,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동자삼이 원주시장을 갔대, 인제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너무,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제 그게 신이니까 다 알아 가지고 그랬겠지? 그래서 그 남자 다리에다, 젊은이 다리에다가 명주실을 땀대, 동자삼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기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리에 실이 맥혔으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실을 따라서 와 봤대요, 그랬더니, 그 이 당숲, 당숲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끝을 보니까 삼 대궁에 명주실이 매였더라요, 그래서 그거를 캐고 보니까 옆에 있고, 또 옆에 있고 그래서 열두 뿌리를 켜다고, 그래서 그 젊은이가, 하도 착한 젊은이가, 복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런 전설을 들었어요.<2011.5.3 제보자: 김○○(여, 61)></p>

○ 부록 3 : 2012년 추계 윗성남 당고사 사진

	
<p>현수막</p>	<p>제주</p>
	
<p>당숲</p>	<p>신목</p>
	
<p>당 내부 위패</p>	<p>당 내부 상량문</p>
	
<p>참배객</p>	<p>당고사 준비</p>



당고사 준비



제물 진설



제물로 올릴 통돼지



진설된 제물



제관 의복 입기



금줄에 소원지 달기



당고사



당고사



수부제



수부제



소지 올리기



소지 올리기



당고사 제관



당고사 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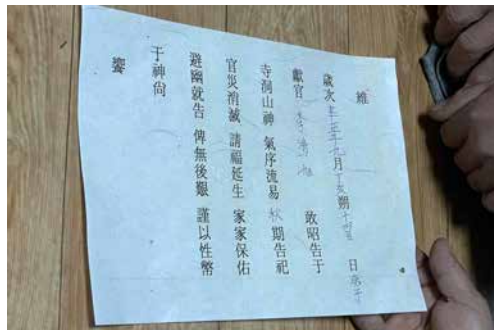
마을회관에서의 뒷풀이



마을회관에서의 뒷풀이

○ 부록 4 : 2021년 추계 절골 산신제 사진

	
원주중앙시장에서의 제물 구입	원주중앙시장에서의 제물 구입
	
원주중앙시장에서의 제물 구입	구입한 제물
	
메 준비	준비한 부침개
	
돼지머리 삶기	보자기에 싼 제물



축문



차에 싣는 제물



산신당으로 향하는 제관



제물 진설



산신당 위패



진설된 제물



초헌례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제관 일동 재배



소지 올리기



음복



수부제



수부제